



2019 강원도 사회적경제 정책 개발 보고서

| 2019. 1 |



연구진 구성

■ 연구원 : 조경자 상임이사(협동조합 교육과 나눔)

김운정 소장((주)나비 부설 연구소)

박은경 연구원(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성지은 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성락 본부장(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재육성본부)



Contents

✕	I. 연구요약 1
	II.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과 평가방안 7
	1. 사회적 가치 연구 동향 및 핵심 분석
	2.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
	3. 사회적 가치 평가 방법 분석
	4. 사회적 경제 기업 평가지표 Pool
✕	III. 사회혁신과 리빙랩 방법론 43
	1. 서론
	2. 리빙랩의 개념과 추진현황
	3. 사회혁신을 위한 리빙랩 추진 사례 분석
	4. 향후 과제
	IV.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을 위한 강원도 사회적경제 교육 모델 제안 ... 77
	1. 머리말
	2. 강원도 사회적경제 교육 현황 및 문제점
	3. 강원도 사회적경제 교육 모델 제안
	4. 소결
✕	V. 강원도 여성 사회적경제 취업 및 창업 활성화 방안 103
	1. 여는 말
	2. 경력단절여성 대상 경력이음 지원 현황
	3. 사회적경제와 여성일자리
	4. 주요 사업 모델과 활성화 방안 탐색
	5. 강원여성 JOBS 활성화 방안
	6. 맺는말

I.

연구요약



I. 연구요약

1.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과 평가방안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과 평가방안에서는 국.내외에서 사회적가치 측정에 주목하는 이유와 국내의 사회적가치 측정과 관련한 연구동향을 소개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협동조합 7대 원칙,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및 경영공시, 마을기업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공통지표로 기업현황을 분류하였고 성과 부분에서 조직운영성과, 사회적성과, 경제적 성과로 분류하였다. 분류별 사회적 경제 기업 평가를 위해 아래와 같이 평가요소를 제시하였다.

<표 I-1> 사회적 경제 기업 평가요소

평가 영역	평가 요소
기업 현황	사회적 경제 기업 유형 조직 형태 업종 / 업태 주 사업 내용
조직 운영성과	조직 목적 조직 운영의 민주성 고용 창출 양질의 일자리
사회적 성과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 수준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경제적 성과	재정 상태 재정성과 제품/서비스 사회적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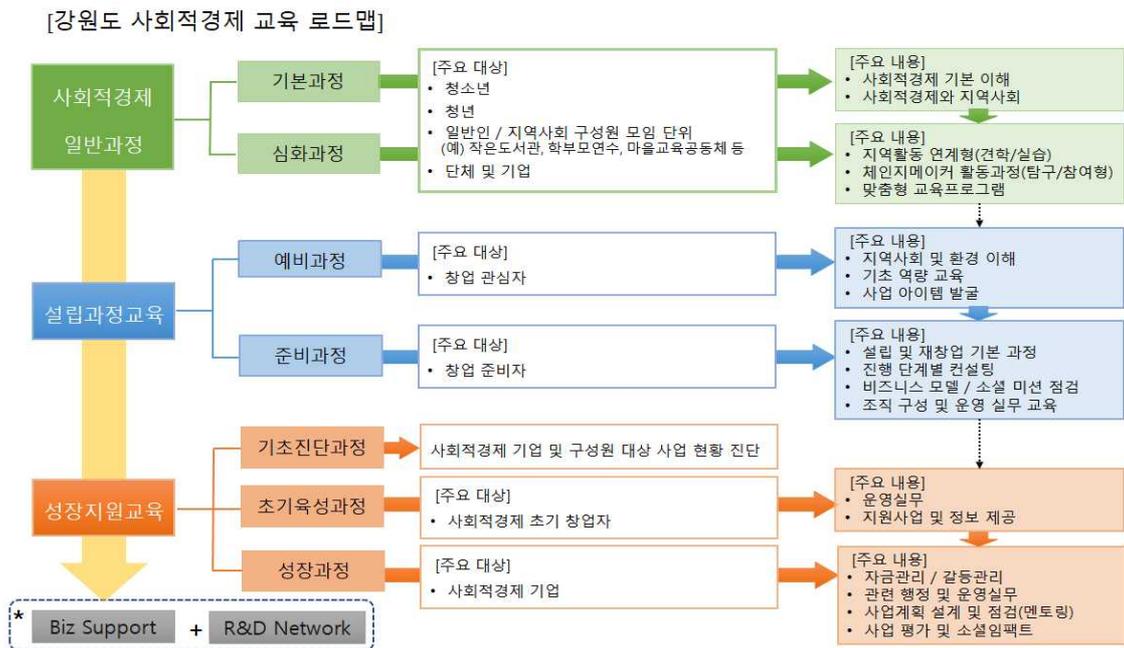
2. 사회혁신과 리빙랩(Living Lab) 방법론

기존 공급자 및 전문가 중심의 기술개발, 정책, 교육 등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는 개념으로 리빙랩 방법론이 등장하였다. 본 장에서는 리빙랩

의 개념적 의미를 정리하고 최근 사회혁신을 위한 리빙랩 추진 사례를 분석하였다. 중앙정부 주도의 사회혁신 리빙랩 사례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생활연구와 리빙랩 ② 행안부의 디지털 기반의 주민주도형 사회문제 해결(공감e가득)이 있다. 지자체 및 중간지원조직 중심의 사회혁신 리빙랩 사례로 ①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시니어 리빙랩 ② 포항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사례 ③ 대전시 센서 기반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 관리 리빙랩 ④ 서울혁신파크의 ‘사회혁신 × 리빙랩’ 프로젝트 등이 있다. 대학 주도의 사회혁신 리빙랩 추진 사례로 ① 동국대 리빙랩 사례 ② 경남대 리빙랩 사례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 주도의 사회혁신 리빙랩 추진 사례로 ① 성대골 에너지 전환을 위한 리빙랩 ② 대전 지역문제 해결 리빙랩 프로젝트 ‘건너유’를 제시하였다.

3.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을 위한 강원도 사회적경제 모델 제안

2018년 7월, 정부는 사회적경제 인재유입 확대와 종사자 역량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강원도 사회적경제 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강원도 인재양성 교육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을 위한 사회적경제교육모델은 초, 중, 고 학생들과 일반시민들이 생활속에서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일반교육과정과 다양한 인재들이 사회적경제로 유입되고 전문가로 키워질 수 있는 설립과정 교육, 기업 성장단계별·분야별 맞춤형 특화교육을 위한 성장지원 교육의 3단계로 교육 로드맵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4. 강원도 여성 사회적경제 취업 및 창업 활성화 방안

향후 전체 인구에서 미래 청장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할 것을 고려해볼 때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여성인력이 얼마나 빨리 보완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동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반가운, 2014).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재진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회적경제 분야로의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적경제 분야의 조직들이 지역에 기반한 소규모 창업이나 일자리 제공형으로 운영되는 특성이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진입에 적합할 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취업 혹은 창업이라는 진입과정에 대한 준비가 지역별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강원도 여성의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위해 ① 기반 조성 및 문화 형성 ② 여성친화적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③ 여성친화적 특화 직종 및 경력 개발 코칭 시스템 지원 ④ 지역 기반 협력 모델 다양화 등의 정책모델을 제안하였다.

II.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과 평가방안

1. 사회적 가치 연구 동향 및 핵심 분석
2.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
3. 사회적 가치 평가 방법 분석
4. 사회적 경제 기업 평가지표 Pool



II.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과 평가방안

박은경¹⁾

1. 사회적 가치 연구 동향 및 핵심 분석

1) 국내의 연구 동향

- 20세기 초, 영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의 정부들은 부채 증감으로 재정 악화를 겪으며, 기존에 정부가 제공해왔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재정 부담도 커져갔음. 이에 따라, 육아, 돌봄, 교육 등 정부가 담당했던 사회복지 서비스들을 민간 기업 혹은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제공하거나, 아예 이관해 운영하는 경우도 많아짐. 동시에 민간단체나 기업 재단이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의 성과를 평가하고 측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함께 높아졌음. 기업 재단의 경우, 특히 재단 후원자들과 사회서비스 실행 기관들로부터 투자 성과와 사회 영향력에 대한 평가 요구를 줄곧 받아옴
- 90년대 초, 미국의 로버트기업개발재단(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oundation)을 중심으로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 골드만삭스 재단(Goldman Sachs Foundation) 등이 사회적 기업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했음. 로버트기업개발재단은 지역경제개발이니셔티브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사회적 투자 수익률(Social Return on Investment)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약 50여 곳의 기업 재단 및 민간단체와 네트워크를 맺고 사회적 성과 평가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 2008년 비랩(B Lab), 아큐먼펀드(Acumen Fund), 록펠러 재단은 사회적 성과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글로벌임팩트투자네트워크(GIIN, 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를 조직했음. 이들은 재무, 운영, 제품, 영역별 성과에 따른 지표를 개발해 기업의 임팩트를 측정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등급별로 별점을 부여하는 평가 방식을 개발했음. 최근 국제 사회에서는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를 특정 조직 내에서만 상용하는 평가도구를

1)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도입하기보다 외부의 제3의 평가도구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음. 사회적기업 및 사회혁신 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증가하며, 투자자와 후원자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신뢰성이 높은 성과를 제시하고자 하는 조직들이 늘어남에 따른 결과로 보여짐

- 국내의 경우, 사회적 가치 평가도구 개발과 연구는 정부를 중심으로 발전돼 왔음.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과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토대가 마련됨.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자치부와 같은 중앙 부처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확대되고 육성되기 시작했음.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효율적 지원과 육성을 위해 정부는 2010년부터 사회적 가치 평가도구의 개발 연구를 시작했음.
- 2010년 고용노동부의 연구 사업으로 KAIST 사회책임경영연구센터가 진행한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평가도구 개발·평가’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 도구로서의 사회적투자수익률(SROI)를 제안하고, SROI에 대한 해외(미국, 영국, 아시아)연구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해, 핵심지표 8개를 포함한 지표은행(핵심, 보조, 선택지표 구분, 34개 지표)을 구축함. 또한 지표은행에 기초해 7개 사회적기업에 대한 횡단적 가치평가를 수행했음. SROI 도구 외에 BSC, IRIS 등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 도구들에 관한 연구 확장의 필요성을 제시함
- 2010년 5월 함께일하는재단은 SROI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 ‘아름다운 가게’의 2006년도 SROI를 측정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 이 연구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함에 있어서 SROI와 더불어 투자회전율(편익/투자), 편익/비용을 동시에 제시할 것을 권장함. 이외에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성과분석 보고서, ‘행복한 학교’ SROI성과 측정 등 단위 사업평가와 BSC모형의 사회적기업 적용 방안(이용탁, 2009)등 사회적 가치 평가 도구를 국내 사회적기업에 적용하는 연구들이 진행됨
- 기존에는 SROI, BSC 등 글로벌 시장에서 개발된 평가도구를 국내 사회적기업 평가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국내 상황에 맞는 사회적 가치 평가 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뤄지고 있음. 서울연구원은 2015년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성과평가’ 연구를 통해 서울에 위치한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했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도 2017년 ‘사회적 가치(SVI) 지표를 개발해 사회적기업 평가와 지원에 활용하고 있음. 이밖에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8년 사회적 성과를 가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통계지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 ‘사회적경제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한 통합 지표 개발 연구’를 발표했음

<표 II-1> 국내 사회적 가치 평가 연구 연도별 정리

구분	연구 내용
2010년	- 고용노동부 연구사업, 카이스트, 사회책임경영연구센터 주관 '사회적기업 사회적가치 평가도구 개발·평가'
2013년	- 고용노동부 연구사업,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한국임팩트투자진흥원, GIIN, Action Group이 협력해 진행 '사회적경제,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 개발' - 산업통상부 연구사업, 임팩트스퀘어 진행, '사회적 성과 평가 방법론의 글로벌 발전 동향 연구' - SK행복나눔재단, SK 사회적 기업 성과분석 및 평가
2014년	- 고용노동부, '사회적 경제 사회적가치 측정지표 정교화 및 활용을 위한 연구'
2015년	- 서울연구원,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성과평가'
2017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SVI) 지표' 발표
2018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한 통합 지표 개발 연구'

2.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

1)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정의 및 범위

-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6년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 기업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음(제3조3항). 사회적 경제 기업 유형은 총 15개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업법인·조합·회사·단체 등 협동조합 개별법에 근거하는 8개 기업 유형이 해당됨.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아직 국회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으로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4개 유형,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4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 유형은 「사회적기업육성법」, 「고용정책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고 있음. 정부의 담당 부처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 마을기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자활기업은 고용노동부이다.

동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로 각각 나뉘어 있음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일반 영리기업이 주주 또는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을 전제로 지역사회 공헌,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함. 구성원의 권익 향상을 통한 지역 또는 국가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조합원 간 협력 관계, 자조적인 조직의 특성이 강하게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음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 또는 단체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함

<표 II-2> 사회적 경제 기업 구분 및 정의

사회적경제 기업	법적근거	담당부처	정의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노동부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기획재정부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 지역 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부	·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 마지막으로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층 주민이 생산자 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립, 취약계층의 보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남

<표 II-3> 사회적기업 유형 및 목적

유형		목적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역사회 공헌형	가형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형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다형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경우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의 혼합인 경우
기타형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계량화해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자료: 「사회적기업육성법」, 2007.

<표 II-4> 협동조합 유형 및 목적

유형		목적
일반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 소비자들이 소비생활을 협동함으로써 가게를 더 잘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
	사업자 협동조합	· 개별 사업자들이 수익 창출 및 향상을 위해 공동판매 또는 구매, 공동브랜드 사용
	직원 협동조합	·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조합과 고용계약에 의해 직원이 됨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 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사업형	·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고용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위탁사업형	· 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수행
	기타공익증진형	· 그 밖의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자료: 「사회적기업육성법」

<표 II-5> 마을기업 유형 및 내용

유형	내용
예비 마을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으로 마을기업 설립 준비를 위한 예비 마을기업 선정 육성
유통형 마을기업	· (설립단위) 광역 시·도 단위로 1개소씩 설립 · (설립·운영 주체) 시·도 마을기업 협회 · (의사결정기구) 운영위원회 설치 · (지정요건) 법인 여부, 마을기업 참여 적극성, 자발적 추진 의지, 사업성 및 지속가능성 · (판매제품) 해당 시·도 및 전국의 마을기업 제품 중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제품
新유형 마을기업	· (인력자원 활용) 퇴직전문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재능을 지역의 공익실현을 위해 활용하는 마을기업
	· (공공자원 활용) - 향교·서원 등 문화재, 폐교 등 공공시설을 활용·운영하는 마을기업 - 산악, 호수, 특수지형 등 지역의 범위 안에서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독과점적으로 활용하는 마을기업
	· (전문기술 활용) IT, 디자인 등의 기술을 지역 공공자원의 이용 등에 접목·활용하거나 지역 고유기술을 보존·육성하는 마을기업
지역자원 활용형 마을기업	· 지역특산품·문화·자연자원 활용사업 · 재래시장·상가 활성화사업 · 공공부문 위탁사업
친환경 녹색에너지 마을기업	· 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 자연생태관광·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자료: 「정책사업지침」 2010,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행정안전부.

2)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정리

-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요소의 정리가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사회적 경제 기업의 법적 근거에서 제시하는 조직 정의를 바탕으로, 운영 원칙 및 사업보고서, 기타 자료에서 제시된 사회적 가치를 함께 조율해 적용하려 함
- 협동조합의 경우,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에서 제시하는 협동조합 7대 원칙을 차용함. 협동조합 7대 원칙은 협동조합의 핵심 구성원인 조합원을 중심으로 자발적이며, 개방적, 민주적인 조직 운영 원리를 강조하고 있음. 또한 사회적 성과와 함께 경제적 이윤을

- 함께 추구하는 조직으로서, 경제 참여의 의무와 자율적인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와의 건전한 관계 형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협동조합간의 협동과 연대도 주요 원칙 중 하나로 포함됨
-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사회적기업 경영공시 항목과 기업의 사업보고서 항목을 토대로 정리함. 사회적기업은 다른 사회적 경제 기업과 비교해, 취약계층 고용을 포함해 고용창출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관련된 평가항목이 주로 포함됨. 그 밖에도 기업이 장기적으로 운영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재정 성과 및 제품 및 서비스의 평가도 자세히 다루고 있음
 - 마을기업은 2014년 1,249개의 마을기업을 전수해 조사한 마을기업 실태조사(양세훈외, 2015)를 참고했음. 마을기업 실태조사의 항목은 다른 기업과 비교해 재무 상태나 재정 성과에 대한 지표가 없는 것이 특징임. 조사 항목에서는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수 및 매출액, 지역사회 공헌 등의 지역성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음

<표 II-6> 사회적경제 기업의 평가요소 분석

협동조합 7대 원칙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및 경영공시	마을기업 실태조사 ²⁾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권리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간의 협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현황 · 민주적 운영 · 사회적 목적 재투자 · 지원 내역 · 재정 성과 · 취약계층 고용 · 근로자 교육 및 훈련 · 근로자 복지 · 양질의 일자리 · 사회서비스 제공 · 제품/서비스 개발 및 혁신 · 제품/사회서비스 효과 · 자원 연계 ·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공헌 · 기업 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현황 · 고용 현황 · 지역사회 기여 ·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 · 의사결정구조 · 네트워크 활동 · 제품과 서비스 · 지역상권과의 관계 · 지자체 행정서비스 만족도 · 마을기업 지원 정책 만족도

2) 양세훈외, 2015, 마을기업 발전방안 연구.

3. 사회적 가치 평가 방법 분석

1)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지속가능개발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보고서 ‘우리들의 공통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향후의 세대가 자신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의 세대가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 개발’로 정의함. 환경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책 영역인 경제, 사회, 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지속가능개발의 원칙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1992. 6. 13.)을 비롯해 국제조직의 결의와 국가 간의 선언 등 다수의 국제환경 협약에 인용되었음. 유엔은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국제 논의 결과를 모아 전 세계 국가들이 함께 채택해 실행하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발표함. 절대빈곤과 기아 퇴치, 교육 및 보건 위생 등 인류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음
- 새천년개발목표의 실행 완료 해인, 2015년 유엔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발표함.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춰,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함. 사람,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5가지의 가치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이행결과는 15년 후인 2030년 평가할 계획임
- 전 세계 국가들은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정부 정책과 연계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유럽연합은 일찍이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 Strategy)’, ‘EU 2030 기후 및 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EU 2030 Climate and Energy Policy Framework)’,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 등에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해 실천하고 있음. 유럽연합은 민관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구축을 지향하면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계량화된 점수나 평가척도가 있거나 강제성이 있지는 않지만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가 가입한 유엔의 활동 가치와 목표가 담겨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음. 특히, 선진국 국가들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국가 경제, 사회, 환경 등의 분야의 정책의 이정표로 삼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기업의 가치 평가에도 이를 결합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음

<표 II-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목표 주요 내용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목표 2.	기아 종식, 식량안보와 영양 개선 달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 진흥
목표 3.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웰빙 증진
목표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목표 5.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목표 7.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목표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목표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목표 10.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의 실시
목표 14.	대양, 바다 및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목표 15.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목표 16.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자료: 유엔(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 GRI Guideline

- GRI Guideline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정보와 성과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할 때 사용되는 일종의 보고지침임. 환경-사회-거버넌스와 관련된 정보를 통해 투자자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기업의 장기성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보고하고 있는 전 세계 보고 기업 중 약 72%가 사용 중이며, 글로벌 기업 250개 중 74%가 사용 중인 가장 상용화된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 중 하나임. GRI는 ‘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1997년 세리즈 원칙을 제정한 미국의 시민단체인 CERES(환경에 책임을 지는 경제를 위한 연합)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기구. 1999년 3월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발표하고, 가이드라인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상설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1999년 5월의 토론토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 회의의 상설기관화가 결정되고, 이를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었음. 이후, 2002년 4월 상설기관으로서의 GRI가 정식으로 발족되었음

- GRI는 2000년 6월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가이드라인 제1판, 2002년 8월에 개정판(G2), 2006년 11월에 제3판(G3)을 발표하였지만, 노동/인권분야 지표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노동/인권분야지표를 보완한 3.1버전이 발표되었음. 2013년에 발표된 G4는 사회 영역의 평가 및 개선 측면을 보강하였으며, 경제 부분에서는 조달관행 측면을 추가해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였음.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G3.1에서 17개 지표에 불과했던 지배구조 부문을 42개 지표로 늘려 공시 요건을 크게 증가한 점. 지배구조와 지속가능성 성과간 연관성을 환기시키고 최상위지배구조조의 책임과 투명성을 중시한 결과로 보임

<표 II-8> GRI Guideline 4 평가지표

일반표준 공개	전략 및 분석		G4-1, G4-2
	조직 프로필		G4-3 ~ G4-16
	파악된 중대측면과 경계 이해관계자 참여		G4-17 ~ G4-23
	보고서 프로필		G4-28 ~ G4-33
	거버넌스		G4-34 ~ G4-55
	윤리성 및 청렴성		G4-56 ~ G4-58
특정표준 공개	경영접근방식공개		G4-DMA
	경제	경제성과	G4-EC1 ~ G4-EC4
		시장지위	G4-EC5 ~ G4-EC6
		간접 경제효과	G4-EC7 ~ G4-EC8
		조달관행	G4-EC9
환경	원재료	G4-EN1, G4-EN2	

		에너지	G4-EN3 ~ G4-EN7
		용수	G4-EN8 ~ G4-EN10
		생물다양성	G4-EN11 ~ G4-EN14
		배출	G4-EN15 ~ G4-EN21
		폐수 및 폐기물	G4-EN22 ~ G4-EN26
		제품 및 서비스	G4-EN27, G4-EN28
		컴플라이언스	G4-EN29
		운송	G4-EN30
		종합	G4-EN31
		공급업체 환경평가	G4-EN32, G4-EN33
		환경고충처리제도	GE-EN34
	사회	노동관행 및 양질의 일자리	고용
노사관계			G4-LA4
산업안전보건			G4-LA5 ~ G4-LA8
훈련 및 교육			G4-LA9~G4-LA11
다양성과 기회균등			G4-LA12
남녀동등 보수			G4-LA13
공급업체 노동관행평가			G4-LA14~G4-LA15
노동관행 고충처리제도			G4-LA16
인권		인권투자	G4-HR1~G4-HR2
		차별금지제도	G4-HR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G4-HR4
		아동노동	G4-HR5
		강제노동	G4-HR6
		보안 관행	G4-HR7
		원주민 권리	G4-HR8
		평가	G4-HR9
		공급업체 인권평가	G4-HR10~G4-HR11
		인권 고충처리제도	G4-HR12
		사회	지역사회
반부패			G4-SO3~G4-SO5
공공정책			G4-SO6
경쟁저해행위	G4-SO7		

		컴플라이언스	G4-SO8
		공급업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G4-SO9~G4-SO10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충처리제도	G4-SO11
	제품책임	고객 안전보건	G4-PR1~G4-PR2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G4-PR3~G4-PR5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G4-PR6, G4-PR7
		고객개인정보보호	G4-PR8
		컴플라이언스	G4-PR9

자료: G4 Guideline

3) 사회적투자수익률(SROI, Social Return On Investment)

- 사회적투자수익률은 사회적 회계와 비용편익 분석으로부터 발전된 평가 기법임.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여 측정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미국의 비영리조직인 로버트기업개발기금(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und, REDE)에 의해 1996년 개발. 사회적투자수익률은 값을 도출하는 구체적 도구로서의 솔루션이라기보다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기반이 되는 기본적 프레임워크와 원리로 이루어진 상위의 방법론임. 정해진 단계에 따라 원칙에 기반해 대상 조직이 목표하는 사회적 성과가 조직의 어떤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지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채택한 후, 비용과 효과 분석을 통해 각 결과값의 총합을 구해 산출되는 최종 편익을 도출하는 프로세스를 거침
- 사회적투자수익률은 1달러를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편익(Benefit-Cost Analysis)과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는 재무적 분석기법을 통합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음. 사회적투자수익률은 7원칙에 기반해 실행되며 전 과정은 크게 6단계로 구성되는데, 이 단계들은 사회적투자수익률의 전체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줌
- 사회적투자수익률의 가장 큰 특징은 조직이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는데 투입된 비용과 이에 대비되어 창출된 효과를 화폐의 가치로 전환해 표현할 수 있

다는 점. 산출되는 성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의 성과 창출 활동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이 논리적이고 면밀하게 살펴야 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또한 성과 창출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소와 비교기준을 풍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사회적투자수익률은 전세계 비영리기관과 재단들을 비롯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음. 특히, 영국의 사회적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사회투자 부문에서 사회적투자수익률의 측정기법이 응용되고 발전되고 있음. 영국의 싱크탱크인 신경경제재단(NEF, The New Economics Foundation)은 SROI Network를 설립해 사회적투자수익률 보고서 검증과 교육훈련 사업, 네트워킹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사회적투자수익률은 1990년대 후반부터 비영리조직의 성과평가에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점으로 다양한 사회적가치 평가모델이 개발되는 환경을 조성한데에 대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표 II-9> 사회적투자수익률 7대 원칙

1원칙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포함
2원칙	변화사항 이해: 조직 활동으로 인한 변화값 측정
3원칙	변화사항 가치화: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재무적 가치 부여 지표로 사용
4원칙	중요성의 판단: 구체적, 실질적 데이터 수집
5원칙	적정한 측정: 과대산정, 과소산정 금지
6원칙	투명성 확보: 명백하고 투명
7원칙	결과의 검증

자료: 조영복, 류정란. 2010.

<표 II-10> 사회적투자수익률 분석 단계

단계	주요 수행 내용
1단계 '범위 설정과 핵심 이해관계자 확인'	사회적투자수익률 수행 범위와 과정에 관여할 이해관계자와 방법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
2단계 결과물 맵핑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통해 투입물(inputs), 산출물(outputs), 결과물(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향력 지도(outputs)나 변화이론(theory of change)을 개발 할 수 있음
3단계 결과물을 명시 사회적 가치 부여	결과물이 실제 일어났는지의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를 찾고 그것에 가치를 산정하는 일을 수반함
4단계 영향력 확정	결과물에 대해 수집된 증거와 화폐화된 가치를 가지고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확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요인의 결과로 고려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5단계 사회적투자수익률 산출	모든 편익을 합하고 부정적인 사항들을 공제하고, 투자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는 일을 수행함. 또한 결과에 대한 민감도도 검토할 수 있음
6단계 보고 및 활용, 내재화	잊어버리기 쉬운 중요한 마지막 단계는 이해관계자들과 결과를 공유하고 그들의 질문에 응하고 모범적인 결과물 처리과정과 보고서의 검증을 내재화하는 것을 포함함

자료: The SROI Network.

4) GIIRS(Global Impact Investing Rating System)

- GIIRS는 조직의 사회적 성과를 점수 혹은 등급제 시스템으로 옮길 수 있는 평가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음. 호텔이나 영화를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별점 등급제와 유사함. 영리적 이익(Profit)에서 나아가 사회적 유익(Benefit)을 추구하는 B Corp(Benefit Corporation)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 촉진시키고자 미국의 비영리조직 비랩(B Lab)이 2011년 개발해 발표했다. 비랩은 GIIRS 평가 결과 200점 만점에 80점이 넘는 기업에게 B corp으로 인증해주는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B corp 기업들은 인증자격뿐 아니라 인증

기업들이 함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임팩트 투자인프라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함께 전개하고 있음

- GIIRS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총체론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음. 조직의 사회적 가치는 매우 다양한 경로로 창출되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 접근 방식. 따라서 조직이 그들의 미션에 따라 의도를 갖고 창출해내는 영향력에서부터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조직을 통해 얻게 되는 모든 영향력까지 비중을 두고 평가하는 데 중점을 뒀음. GIIRS는 전자는 ‘사회 및 환경 지향 비즈니스 모델’로, 후자는 ‘프랙티스’로 구분하고 있음. ‘사회 및 환경 지향 비즈니스 모델’은 조직이 스스로 목표하는 사회적 성과를 어떻게 창출하는지에 중점을 둬. 반면 ‘프랙티스’는 거버넌스, 고용, 지역사회, 환경 네 분야로 나뉘 파악하고 조직이 사회에 어떻게 긍정적 영향을 창출할지를 조망함
- 각 분야의 핵심이슈에 따라 하위 범주도 조금씩 달라짐. 비즈니스 모델 분야의 경우,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창출되는 모델, 고용형 모델, 생산자 협동조합형 모델 등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해, 각 모델이 창출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질문지가 설계돼 있음. 주로 비즈니스의 결과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매출, 고객 수, 판매량 등을 질문한 후에 그 응답에 따라 사회적 가치 크기를 계산해 점수화하고 친환경 공정 등 비즈니스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주로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시하고 그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정하는 방식
- 프랙티스 분야는 조직이 이해관계자의 사회, 환경적 성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도입하는 정책이나 활동을 위주로 지표가 구성돼 있음. ‘프랙티스’ 평가는 사회책임투자에서의 ESG 성과 평가와 같은 접근 방식을 사용해 그와 유사한 성격의 지표들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 특징
- 먼저 이해관계자 그룹 및 사회·환경 분야를 기준으로 사회적 가치 영역을 거버넌스, 임직원, 커뮤니티, 환경 네 개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각 영역 아래 핵심적 이슈를 중심으로 구분된 하위 범주를 두고, 또 하위범주별로 핵심주제를 선정한 후, 그 주제에 맞는 지표를 도출하는 탐다운 방식의 질문지를 설계했는데,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ESG 평가 항목과 매우 유사함

<표 II-11> GIIRS 평가시스템의 프레임워크

사회적 가치 영역	사회, 환경에 주목한 비즈니스 모델	프랙티스	전체 점수
전체	모델별로 의도한 영향력의 결과를 측정	이해관계자에게 주는 영향력을 SRI의 ESG 평가와 유사한 방식으로 측정 (정책 및 활동 위주)	
거버넌스			
임직원			
커뮤니티			
환경			

자료: 강신일, 박문예. 2012.

- GIIRS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투자자에게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투자자는 포트폴리오에 속한 혹은 앞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기업들을 GIIRS를 활용해 비교할 수 있음. 이를테면 비즈니스 모델 분야의 임팩트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임팩트 측정지표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프랙티스 분야는 표준지표를 유지하며 지역, 산업, 규모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영역별 배점, 지표의 내용, 지표별 가중치 등을 다르게 설정해 표준화와 차별화 사이의 균형점을 찾고 있음. 평가하는 조직의 성과가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평가 영역이나, 평가 항목에 포함된 범위를 넘어설 경우 그 초과치 또는 변동성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어려워 조직의 성과를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표 II-12> GIIRS 평가 프로세스

1단계 정의 및 모델링	평가대상의 비즈니스의 모델, 즉 제품자체에서 사회적가치가 발생하는지, 특정 공정
2단계 분석	1단계 통해 구성된 질문지에 따라 데이터 수집과 검토, 분석, 평가 작업 진행. 실사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년도 평가대상 조직 중 10%를 임의 선정해 현장 실사 진행
3단계 보고	평가 대상 조직에 대한 개요, 전체 총점 및 별점으로 표시되는 등급, 영역별 점수와 등급 등이 표시되는 최종 보고서 작성. 해당 조직의 지역, 산업, 규모, 데이터 매트릭스, 산업, 제품, 관행, 결과별 리스크 정보 등 공개자료들까지 포함

자료: 강신일, 박문예. 2012.

5) 사회적 가치 지표(Social Value Index, SVI)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사회적 가치 지표(SVI) 개발을 2015년 시작해 2016년 개발 완료했음. 사회적 가치 지표는 다양한 지원사업 운영과 기타 사회적경제조직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개발됐음
- 평가대상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사회적 목적을 창출하기 위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임. 측정모형은 사회적기업이 지향하는 가치기준의 속성을 기준으로 관점-범주-영역-측정지표의 순차적인 측정 프레임으로 구성돼있음. 평가지표는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성과 등 3개의 관점을 중심으로 조직미션을 포함한 5개의 범주, 그리고 9개의 하위 영역과 14개의 측정지표로 구성돼있음. 이를테면 3개 영역 중 하나인 사회적성과는 조직미션, 사업 활동, 조직운영 등 3개 범주와 6개의 영역 그리고 9개의 측정지표가 포함돼 가장 많은 측정지표를 다루고 있음. 경제적 가치는 재정성과를 다루며, 고용창출 및 재정 및 노동 성과에 대한 측정지표가 포함됨. 마지막으로 혁신성과는 기업 혁신에 대해 평가하며 기업 활동에서의 혁신성을 평가함
- 사회적 가치 지표의 특성은 활용목적에 따라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혁신성과 3개의 관점별로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했으며, 계량지표와 함께 비계량지표를 도입해 계량지표로 반영할 수 없는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최대한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음. 하위지표별 평가등급은 지표 만점 값을 최고점으로 5등급으로 구분해 점수를 산정하고 있음
- 진흥원은 2017년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던 사회적 가치 지표(SVI, Social Value Index)를 2018년부터 재정지원사업(인건비 지급, 사업비 지원 등)을 신청하는 기업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표 II-13> 사회적 가치 지표(SVI) 평가 지표

관점	범주	영역	측정지표	배점
사회적 가치 (60)	조직 미션 (10)	사회적 미션의 관리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5
			2.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구축	5
	사업 활동 (30)	주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 향성	10
			4. 사회적 경제 조직간의 협력 수준	5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노력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5
	조직 운영 (20)	이윤의 사회목적 재투자	6.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10
			운영의 민주성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근로자 지향성	8. 근로자 임금 수준	10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5
경제적 가치 (30)	재정 성과 (30)	고용창출 및 재정 성과	10. 고용 성과	10
			11. 매출 성과	10
			12. 영업 성과	5
	노동 성과	13. 노동 생산성	5	
혁신 성과 (10)	기업 혁신 (10)	기업활동에서의 혁신성	14. 기업 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10
계		14개 지표		100

자료: 사회적기업진흥원.

6) 임팩트 관리 프로젝트(Impact Management Project, IMP)

- 임팩트 관리 프로젝트(Impact Management Project, IMP)는 영국의 세계 최초 임팩트 투자기관인 브릿지스벤처스(Bridges Ventures)와 네덜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연금을 운영하는 네덜란드 사회보장기금(PGGM)이 함께 고안한 임팩트 관리 및 평가 프레임워크임. 전 세계 700개의 임팩트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고안됨. 평가모형의 개발 취지는 첫째, 조직이 창출하는 임팩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둘째, 투자를 통해 임팩트가 어떤 사회적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파악하며, 마지막으로 임팩트 가치사슬 속에서 임팩트 효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임

- 임팩트 관리 프로젝트는 임팩트의 창출과 임팩트 투자의 측면에서 평가모델을 개발함. 임팩트를 사람과 지구에 미치는 구체적이고 혼합적인 성과로 정의하고, 임팩트의 속성을 중심으로 5가지 평가영역을 분류했음. 5가지 영역은 영역별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하위 임팩트 데이터 지표를 포함하고 있음
- 5가지 영역 중 첫 번째 영역은 임팩트가 실제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주요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임(What). 둘째, 조직에 연계된 이해관계자들이 누구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함(Who). 셋째, 임팩트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평가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고,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고려함(How Much). 넷째, 투자자가 개입했을 때 투자자의 역할이 효과를 더 좋게 하거나 더 나쁘게 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임(Contribution). 마지막으로 임팩트가 우리의 기대보다 얼마나 다를 가능성이 있는지(Risk)를 가늠함. 5개의 임팩트 평가영역의 하위 임팩트 데이터 지표들은 내용에 따라 5개의 점수척도(부정적-긍정적, 중요하지 않음-매우 중요, 단기-장기 등)에 따라 평가됨
- 임팩트 관리 프로젝트 평가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임팩트 투자자들이 투자할 임팩트 목적에 맞게 투자가 가능하도록 기업의 경영 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임. 경영 목적은 기업의 경영활동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기업 경영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임팩트를 인식하고 있으나 크게 개의치 않는 경우 △부정적 임팩트를 줄이기 위한 내규를 만들고 실행하는 경우 △장기적인 재무성과를 유지하면서도 사람과 지구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 △기업이 직접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는 경우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함
- 평가모형에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도 연계해 소셜벤처 등 임팩트를 창출하는 기관을 비롯해 임팩트 투자자들도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속가능발전투자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자 했음

<표 II-14> 임팩트 관리 프로젝트 평가모형

임팩트 영역	임팩트 데이터 지표	평가
무엇을	기간 동안 결과 자본 종류 SDGs SDG 목표와 지표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결과	부정적 결과 긍정적 결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불필요한결과 중요한결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누구를	이해관계자 지리적 위치 경계점 임팩트 효과 이전에 임팩트 결과와 연계된 이해관계자 인구데이터 (C)	충분한 서비스 불충분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얼마나	결과를 경험한 이해관계자 수 (D) 효과로서 이해관계자에 의해 변화를 경험한 정도 (E) 이해관계자의 변화를 경험한 기간 (F)	작은 규모 큰 규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정도가 얕은 정도가 깊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단기 장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업의 공헌도	이해관계자를 위해 변화가 발생한 정도 예측치 (H) 결과의 지속 시간	악화됨 호전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위험	위험의 단계와 종류	높은 위험 낮은 위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자료: A Guide to Mapping the Impact of Management, Impact Management project.

<표 II-15> 노동자 임금 수준을 평가하는 임팩트 관리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예시

임팩트 영역	임팩트 데이터 지표	효과1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					
		데이터			분석	평가	의견
		지표	값	출처			
무엇을	기간 동안 결과 (A)	시간당 임금	£9.5	회사 자료	(A/B)=109%	긍정적	109% 임금은 상당히 좋은 임금 수준이기 때문에 결과는 긍정적임
	긍정적 영향력 역치 (B)	시간당 생활임금	£8.75	영국 생활임금 법			좋은 임금수준은 영국 생활임금 재단 계산에 따르면 최적의 임금 수준으로 평가됨
	자본 종류	n/a	사람	IIRC			IIRC 프레임에서는 이 결과를 인적 자원 결과로 분류
	SDGs	n/a		UN			유엔 SDGs는 최적의 일과 연계됨(SDG 8)
	SDG 목표와 지표	n/a	8.5.1	UN			UN SDGs 8.5.1과 연계됨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결과	조사결과 (5=제일중요)		정기조사	평균=5	중요	직업 만족도조사에서 90% 이상의 임직원이 고용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누구를	이해관계자	n/a	임직원	회사 자료			임팩트 효과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임직원을 위해 발생함
	지리적 위치	나라	영국	회사 자료			기업은 영국에 위치
	경계점	도/시읍면	북서부	회사 자료			기업은 영국 북서부지역에 위치
	임팩트 효과 이전에 임팩트 결과와 연계된 이해관계자 인구데이터 (C)	전년도 시간당 임금	£7.5	회사 자료	(C/B)=86%	취약	기업 고용이전에 직원들은 좋은 임금 수준의 86%를 받는다. 직원들은 긍정적 결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서 취약하다고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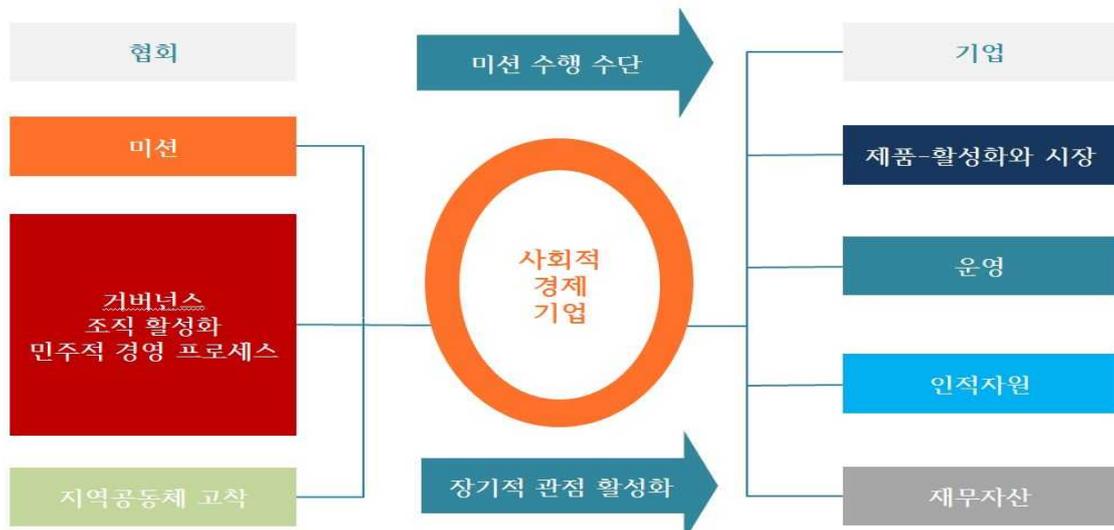
얼마나	규모	결과를 경험한 이해관계자 수 (D)	전체 임직원 수	746	회사 자료			기업은 746명의 직원들에게 효과를 전달하고 있음
	정도	효과로서 이해관계자에 의해 변화를 경험한 정도 (E)			n/a	(A/C)=127%	높은 수준	임팩트 결과의 변화 정도는 전년도 임팩트 결과에 비해 127%임
	기간	이해관계자의 변화를 경험한 기간 (F)	임직원 평균 근속연수	38	회사 자료			평균 임직원근속연수는 38개월임
기업의 공헌도	정도	이해관계자를 위해 변화가 발생한 정도 예측치 (H)	재가복지서비스 산업기준: 평균 시간당 임금	£8.28	산업 통계	(A/H)=115%	양호	시간당임금은 재가복지서비스산업에서 평균시간당 임금대비 155%로서 양호한 변화를 발생하고 있음
	기간	결과의 지속 시간	재가복지서비스 산업기준: 평균 직원 근속연수	14	산업 통계	(F/I)=271%	양호	산업 내 다른 기업대비(14개월) 직원 근속연수는 양호함
위험		위험의 단계와 종류	위험 증명 자료			데이터는 측정가능하며 확인 가능함	낮음	4개 영역에 대한 임팩트 효과를 이해하기에 풍부한 데이터를 갖고 있음. 임팩트에 미치는 사람들의 위기는 기대보다는 낮은 편임.
분류			문제 해결에 공헌함					

자료: A Guide to Mapping the Impact of Management, Impact Management project.

7) 퀘백의 사회적 경제 조직 평가

- 퀘백의 사회연대금융 네트워크(CAP Finance)는 2003년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평가하는 평가가이드를 개발하고, 2015년 개정판을 발표했다. 퀘백은 2013년 제정된 사회적경제법을 기반으로 사회적 금융이 성장하며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중개기관이 재편되기 시작했다. 사회적 경제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으며, 크라우드펀딩, 지역기금과 같은 새로운 사회혁신금융 방식이 등장함. 특히 연금펀드와 같은 기관투자자와 기업 재단의 사회적금융의 새로운 플레이어로서 이들의 영향력이 증가하며, 그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기업평가방식을 사회적 경제 조직에 반영하는 경우가 늘어남
- 단기적 성과에 치우친 이들의 투자방식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난에 부딪힘. 퀘백의 사회연대금융 네트워크는 GIIN 등 글로벌 사회적 가치 평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평가하는 가이드라인을 2003년 발표함
- 퀘백의 사회적 경제 조직 평가 모형은 협동조합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과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조직-운영-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개발됨

<그림 II-1> 퀘백 사회적경제 조직 평가 요소



자료: 퀘백의 사회적 경제 조직 평가 가이드

- 이 모형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협회와 기업 법인격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해, 협회와 기업의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하려고 함. 평가 범주는 크게 공동체적 요소, 재무적 요소, 기업적 요소로 구성됨. 공동체적 요소는 조직 미션, 사회적 편익, 거버넌스, 조직 활성화, 민주적 경영 프로세스, 지역공동체 정착 등 4가지 평가 영역에 대한 하위 지표를 포함. 기업 요소는 시장, 운영, 리더십과 인적자원, 지속가능발전 영역을, 재무적 요소는 프로젝트의 질과 위험정도, 재무건전성, 재무구조, 서비스품질 예고 등 4개 영역을 포함. 각 영역별 하위지표의 점수척도는 상-중-하-부족 4단계로 구분됨

<표 II-16> 퀘백 사회적 경제 조직 평가지표 - 기업 미션 영역

지표 및 평가기준	상	중	하	부족
조직 미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직 미션이 명확하며, 미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문서화되어 있음	기업 미션의 필요성은 인지하나, 모호하게 설명됨	미션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설명이 없음	미션에 대한 설명이 없고, 조직 내 논의가 부족함
사회문제 해결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이 명확하며, 그와 관련된 내용이 문서화되어 있고, 직접 실행되고 있음	사회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부분적 설명됨	사회 문제 방안 효과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이론적 논의는 있음	실행 외에 주요 논의에 대한 부족
기업 비전/가치 소명	조직의 목적을 중심으로 조직의 가치와 소명이 정관에 잘 정리돼있음	조직의 목적이 반영된 일반적인 정관이 있음	매우 일반적인 설명으로, 기업의 목표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음	조직 미션과 실행 사이의 일치가 없으며, 비현실적임
임직원의 조직 미션 인지도	임직원이 미션을 잘 인지하고 공유함	임직원이 부분적으로 미션을 알고 있음	미션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음	임직원간 미션에 대한 합의가 되어 있지 않고, 미션 이해를 위한 지원이 없음

자료: 퀘백의 사회적 경제 조직 평가 가이드

8) 요약 및 정리

-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GRI Guideline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계량화, 점수화해서 평가하기보다 평가 범주와 세부 평가지표를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경우, 전 세계 경제적·사회적 조직들이 함께 추구해야할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제안함. GRI Guideline은 기업의 경제-사회-환경 등 평가 영역별 하위 지표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업이 직접 서술하고 조직의 성과를 자가 진단하는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회적투자수익률(SROI), GIIRS, 사회적 가치 지표(SVI), 임팩트 관리 프로젝트(IMP), 퀘백의 사회적 경제 조직 평가 모형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의 창출 과정, 즉 투입(Input)-활동(Activity)-산출(Output)-결과(Outcome) 네 단계를 고려해 설계되었음. 투입은 조직에 투입된 자원을 말하며, 활동은 그 조직의 주된 활동을 의미함. 산출은 조직 활동의 산출물로, 비즈니스 최종 산출물 뿐 아니라 조직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이 가지는 가치사슬의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이 여기에 포함됨. 결과는 산출로 인해 창출될 사회·환경적 가치이자 변화를 말함
- 이들 사회적 가치 평가 모형은 사회적 가치 혹은 임팩트를 창출하는 조직을 평가대상으로 삼고 있음. 사회적 가치 지표(SVI)는 사회적기업에, 임팩트 관리 프로젝트는 임팩트 창출 기업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모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사회적 가치 평가모형은 평가 범주와 점수척도는 평가 목적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사회적투자수익률(SROI)은 사회적 가치의 화폐화에 취지를 두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평가 범주는 재무정보,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 등 기업의 회계 방식에 근간을 두고 있음. 반면에, 사회적기업들이 자가진단해 기업 운영에 참고하고, 정부 보조금 등의 사업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된 사회적 가치 지표(SVI)는 평가 범주가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 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인증을 위해 개발된 GIIRS의 평가 범주도 거버넌스, 임직원, 커뮤니티, 환경 등 조직의 지속성과 사회적 가치의 지향성을 포괄하고 있음
- 퀘백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평가 모형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평가 영역 및 지표를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평가 영역도 공동체적 성격과 기업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성에 맞춰, 공동체적 요소, 기업의 요소, 재무적 요소로 나눠 각각의 개별지표를 제시함. 임팩트 관리 프로젝트는 임팩트 투자 생태계 확대를 목표로 하여, 임팩트 투자자들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투자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 지표들이 주를 이루는 것이 특징임

<표 II-17> 사회적 가치 평가모형 비교

구분	UN SDGs	GRI Guideline	SROI	GIIRS	SVI	IMP	퀘백
목적	사회적 가치 제시	자가진단	사회적 가치 측정, 지원평가	인증 평가	자가진단, 지원평가	임팩트 측정 및 투자	사회적 가치 측정
대상	기업, 정부, 공공기관, 시민단체, 사회적 경제 조직	기업, 정부, 공공기관, 시민단체	사회적 가치 창출 조직	사회적 가치 창출 조직	사회적기업 위주	임팩트 창출 조직	사회적 가치 창출 조직
평가 범주	사람	일반표준 공개	재무정보 매출액 순이익 임금 부채 등	거버넌스	사회적성과	무엇을	조직 미션 사회적 편익 거버넌스 조직 활성화
	번영	경제		임직원	경제적성과	누구를	민주적 경영 방식 지역공동체 정착
	평화	사회	사회적 편익 고용창출 사회 문제 해결	커뮤니티	혁신성과	얼마나	시장 조직운영
	지구	환경	사회 문제 해결	환경	-	기업 공헌	인적자원
	파트너십	-	사회적 비용	전체	-	위험	재무 건전성
	점수 척도	없음 (가치 제시)	없음 (서술형)	없음 (방법론)	질문마다 점수 부여	5단계	5단계

- 사회적 가치 평가모형들은 평가지표의 서술방식, 평가대상, 사용용도 등에 따라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사회적 가치 평가모형을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임(고용노동부, 2008년). 왜 측정하고,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 것인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도구는 상이할 것이기 때문임
- 본 연구는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이 직접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자가 점검 하도록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GRI Guideline이 제시하는 평가 범주의 프레임워크를 참고로 하되, 세부 평가영역과 개별 하위 지표들은 사회적 가치 지표를 비롯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평가모형을 참고하기로 함. 사회적 가치 평가모형에서 공통 평가 요소인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그리고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내용을 평가 영역에 포함시키고, 관련 개별 하위 지표를 배치하였음

4. 사회적 경제 기업 평가지표 Pool

- 본 연구의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현황 파악과 자료 축적에 초점을 두고 있음. 사회적 경제 기업의 주요 운영 원칙 및 실태조사 항목과 기존의 사회적 평가지표들의 분석을 통해, 공통 지표는 기업 현황, 조직 운영 성과,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로 분류함
- 기업 현황은 사회적 경제 기업 유형과 조직 형태, 업종과 업태, 주요 사업 내용을 기술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조직 운영 성과는 조직 목적, 조직 운영의 민주성, 고용 창출, 양질의 일자리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음. 조직 목적은 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조직 미션이 얼마나 구체적이며,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지향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함. 조직 구성원들이 미션을 어떻게 인지하고 공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도 포함됐음. 조직 운영의 민주성은 기업 거버넌스를 평가하는 지표들로 이루어져있음. 이사회가 얼마나 공정하게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임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갖춰져 있고 실제로 제대로 운영되는

지를 판단하는 지표들임. 고용 창출은 연간 신규 채용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취약계층 근로자 수, 근로자 수 증가율이 포함됐음.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고용 창출 뿐 아니라 고용의 질을 향상하는 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평가지표들로 구성됐음. 연간 이직률을 비롯해 근로자 교육 및 훈련,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설립 및 운영 여부 등을 조사함

-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항목은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 경제 조직간 협력 수준,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의 3개 범주로 나누어짐. 먼저 사회서비스 제공 항목은 사회적 경제 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및 고용 창출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포함됨. 이를테면 기업의 사회서비스의 혜택을 받은 수혜자 수와 수혜자 중 사회 계층의 수, 취약계층 고용인 수가 지표에 해당됨. 사회적 경제 조직간 협력 수준은 사회적 경제 조직 협회 및 네트워크 참여 유무를,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은 지역경제 활성화 규모, 지역사회 기부, 자원봉사자 활동, 지역사회 협회 가입 유무를 조사함
- 경제적 성과 항목은 재정상태, 재정성과와 제품 및 서비스 사회가치 영역으로 구성됨. 재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산, 부채, 자본, 총비용, 총수입이 조사되고, 재정성과는 연간 영업이익, 영업외 수익, 당기순이익, 연간 보조금을, 제품 및 서비스 사회가치는 제품 서비스의 사회적 성과 목표, 사회적 성과 평가 목표 설정 및 실행 유무를 조사함
- 사회적 경제 기업은 유형별, 산업별로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의 영역과 사회적 성과 대상이 달라짐. 기업 형태에 따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성과 영역과 사회적 가치 수혜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지표도 구분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개별 지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별로 공통 지표 중 사회적 성과 항목을 세분화하여 평가 항목을 제시하였음. 산업별 지표의 경우, 폐광지역의 전체 산업 환경에 대한 분석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산업 현황 및 특성에 대한 조사가 우선되어야 함. 공통 지표와 기업 유형별 개별 지표를 기반으로 한 본 연구의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 산업별 지표는 추가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개별 지표 중 유형별 사회서비스 제공 내용을 기업이 직접 자기 진술을 토대로 기술하도록 진행해 산업별 특성을 일부 반영하고 추후 연구를 위한 내용을 축적하도록 함
-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여와 관련 근

로자 수, 그리고 정부 지원 내용과 금액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사함.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7원칙에 근거하여, 조합원의 참여와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조직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중요시하므로 이를 개별 지표에 포함시켰음. 마을기업은 지역문제의 해결과 지역사회 이익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함

<표 II-18> 사회적 경제 기업 평가지표

Pool - 공통 지표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지표	내용
기업 현황	사회적 경제 기업 유형		
	조직 형태		
	업종 / 업태		
	주 사업 내용		
조직 운영성과	조직 목적	미션 정립	미션의 정확성, 문서화 여부
		미션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미션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지 여부
		미션의 구성원 공유정도	조직 미션 확산을 위한 노력
	조직 운영의 민주성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와 지분을
		임원 이사진 구성비	총 임원 이사진 수 대비 성별, 세대별 비율
		임원 이사회 개최 횟수	임원 이사회 연 개최횟수
		조합원 및 임직원 구성	총 조합원 및 임직원 수 대비 성별, 세대별 비율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 소통 채널 유무	
	고용 창출	연간 평균 신규 채용자 수	
		연간 평균 근로자 수	
		연간 평균 취약계층 근로자 수	
		연간 근로자수 증가율	$(\text{직전월 근로자수} - \text{전년 동월근로자수}) / \text{전년 동월 근로자수} * 100$
	양질의 일자리	고용형태별 직원 비율	전체 직원 수 대비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정규직/비정규직, 전일제/시간제 근로자 비율
		연간 이직률	이직률
		근로자 임금 수준	동종 산업 월평균 임금 대비 임금 수준
		근로자 교육 및 훈련	연 평균 횟수 및 시간, 방식
		남녀동등 보수	남녀 임직원 보수 비율
		월 평균 임금	정규직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주당 평균 근로시간	정규직 근로자 주당 평균 근로시간
		4대 보험 가입률	전체 근로자 4대 보험 가입률
근로지속성		정규직 평균 근속기간	
노동관행고충처리제도		노동관행고충처리제도 여부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설립 운영 여부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유무, 노사협의회 연 개회횟수	
사회적 성과	사회서비스 제공	유형별 사회서비스 수혜자수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청소, 보육, 산림, 가사간병, 문화예술, 관광/운동, 문화재, 고용, 기타 유형별 수혜자 수	
		유형별 취약계층 수혜자수		
		취약계층 고용인력 수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 수준	사회적경제조직 협회 및 네트워크 참여 유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활동 평가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내 거래규모 연계 유형별(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 지원, 기타) 연계 기업과 연계 지방자치단체 여부
			지역사회 기부	지역사회 기부비율
		자원봉사자 활동	활동 인원 수, 활동 시간	
지역사회 협회 가입		가입 유무, 협회의 지역/종류		
경제적 성과	재정 상태	자산	총액, 출자금 (현금, 부동산, 현물 출자)	
		부채	총액 (금융대출, 개인 차입금 등)	
		총비용	총비용	
		총수입	매출액(민간시장/공공시장), 영업외수입(중앙정부/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지원금), 조합원 회비	
	재정성과	연간 영업이익		
		연간 영업외수익		
		연간 당기순이익		
		연간 보조금		
	제품/서비스 사회가치	제품 서비스의 사회적 성과 목표		
		사회적 성과 평가 목표 설정 및 실행 유무		

<표 II-19> 사회적 경제 기업 평가지표

Pool - 사회적 성과 부문 기업 유형별 개별 지표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지표	내용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 제공	유형별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여/자체 고용 근로자수	
		유형별 사회서비스 제공 관련	산업별(교육, 보건, 청소, 환경, 문화예술, 가사간병 등)로 사회서비스 수혜자 수를 포함해 사회서비스 내용과 관련된 기업의 자기진단 내용 기술
	지원 내역	정부 지원(인건비,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기타) 내용과 금액	
		기업 후원과 모기관 지원, 일반 기부, 기타 내용과 금액	
협동조합	사회서비스 제공	조합원 수, 이탈 조합원 수	
		조합원 교육 참여율	
		조합원의 출자금액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 수준	유형별 사회서비스 제공 관련	산업별(교육, 보건, 청소, 환경, 문화예술, 가사간병 등)로 사회서비스 수혜자 수를 포함해 사회서비스 내용과 관련된 기업의 자기진단 내용 기술
		연합회 가입 여부, 연합회 구성단위	
		참여여부, 미참여 이유, 연대활동 정도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원재료 조달원	민간/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경제조직, 기타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지역자원을 활용해 사업 활동 하는 정도	지역 내 구매금액/전체 구매금액 *100	
마을기업	사회서비스 제공	유형별 사회서비스 제공 관련	산업별(교육, 보건, 청소, 환경, 문화예술, 가사간병 등)로 사회서비스 수혜자 수를 포함해 사회서비스 내용과 관련된 기업의 자기진단 내용 기술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지역주민 고용률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수	
		총 매출액 중 지역사회 매출액	
		지역 내 자재 및 원료의 조달 비중	지역 내 구매금액/전체 구매금액 *100
		총 매출액 대비 지역사회 공헌 비율	
지역 내 네트워크 협력 내용	자재 구매, 생상품 판매, 인력 제공, 현물 지원, 판매장 제공, 기술/정보 지원, 마케팅/홍보 지원, 박람회/장터 참여, 기타 중 택일		

[참고문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 2018년 사회적 가치 지표(SVI) 활용 매뉴얼.
- 강신일·박문예, 2012, 해외 평가모델 사례를 통해 바라본 임팩트 평가의 현황과 과제, 서스틴베스트, ESG Issue Report vol. 24.
- 임성은·문철우·이은선·윤길순·김진희, 2018, 사회적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한 통합 지표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팩트스퀘어, 2013, 사회적 성과 평가 방법론의 글로벌 발전 동향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 사회적 경제 사회적가치 측정지표 정교화 및 활용을 위한 연구.
- 조영복·류정란·옴김, 2010, SROI: 사회적 투자수익률 측정가이드, 사회적기업연구원·시그마프레스.
- 행정안전부, 2010, 「정책사업지침」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KAIST 사회책임경영연구센터, 2010,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평가도구 개발·평가, 고용노동부.
- 이용탁, 2008, 사회적기업의 BSC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사회적기업연구, 1(1): 65-92.
- 조달호·유인혜, 2015,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성과평가, 서울연구원·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SK행복나눔재단, 2013, SK 사회적 기업 성과분석 및 평가.
- 고용노동부, 2014년, 사회적 경제 사회적가치 측정지표 정교화 및 활용을 위한 연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년, 사회적 가치(SVI) 지표 활용 매뉴얼.
- 양세훈 외, 2013, 마을기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원.
- Alnoor Ebrahim & V. Kasturi Rangan, 2014, What Impact? A Framework for

Measuring the scale and Scope of Social Performanc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v56, No3.

Impact Management Project Team, 2018, A Guide to Mapping the Impact of Management, Impact Management project.

PGGM·Impact Management Project Team, 2017, The Investor's Perspective: How an asset manager can map its portfolio by the effects it has on people and planet - and what we can learn from this.

Pierre Charette·Claude Dorion, 2017, Guide for Analysis of Social Economy Enterprises, 2nd edition, CAP Finance.

GRI, 2018, G4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 Reporting Principles and Standard Disclosures.

The SROI Network, 2012, A guide to Social Return on Investment.

U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III.

사회혁신과 리빙랩 방법론

1. 서론
2. 리빙랩의 개념과 추진현황
3. 사회혁신을 위한 리빙랩 추진 사례 분석
4. 향후 과제



Ⅲ. 사회혁신과 리빙랩(Living Lab) 방법론¹⁾

성지은²⁾

1. 서론

- 사용자 참여와 현장지향성을 강조하는 리빙랩(Living Lab)의 등장
 - 최근 기존 공급자 및 전문가 중심의 기술개발, 정책, 교육 등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는 개념으로 등장
 - 리빙랩은 ‘살아있는 실험실’이라는 뜻으로, 특정지역의 생활공간을 설정하고 공공-민간-시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자 방식(송위진, 2012; 성지은·송위진·박인용, 2013; 2014; 성지은·박인용, 2016)

- 핀란드, 덴마크 등 EU 주요국들은 오픈 이노베이션 2.0 전략과 리빙랩을 도입하여 사용자를 혁신 주체로 인식하고 실제 생활 현장에서의 다양한 시험·실증 진행
 - 아프리카에서는 기존 ODA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기술 중심의 한계를 넘어 사용자 주도형 혁신 모델로의 전환을 시도(성지은 외, 2017)

- 국내에서도 사용자 주도형 혁신모델이자 지역·현장 기반형 사회혁신의 장으로서 리빙랩이 도입·적용
 -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적 정책추진, 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 기술 및 인프라 중심의 지역개발 등 기존 사회·기술시스템 전반의 한계 상황을 리빙랩 개념을 통해 넘어서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음(성지은·박인용, 2016; 성지은 외, 2016; 성지은·한규영·정서화, 2016)

- 이 글에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및 중간지원조직, 대학, 주민 주도에 따른 사회혁신 리빙랩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도출

1) 이 글은 2017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인 『국내 리빙랩 현황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성지은·송위진·정병걸·최창범·윤찬영·정서화·한규영)의 일부를 새롭게 재작성한 것이다.

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 리빙랩의 개념과 추진현황

- 리빙랩(Living Lab) 개념은 ‘살아있는 실험실’ 또는 ‘일상생활 실험실’, ‘우리 마을 실험실’, ‘사용자 참여형 혁신공간’ 등 다양하게 정의
 - 양로원, 학교, 도시 등 특정 공간 및 지역을 기반으로 공공연구부문, 민간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일종의 ‘혁신 플랫폼’
 - 리빙랩 개념을 기술 플랫폼 또는 사용자 커뮤니티이자, 환경·사용자 중심의 실제생활 실험을 위한 방법론, 구체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상호작용하는 시스템 등으로 정의(성지은·박인용, 2016; 성지은·한규영·정서화, 2016)

- 리빙랩은 전통적인 ‘연구 실험실’이나 기존의 실증 및 테스트베드 사업과는 차이가 있음
 - 사용자를 연구혁신의 대상이 아닌 연구혁신 활동의 주체로 보고 있으며, 폐쇄된 실험실에서 벗어나 실제 생활 현장에서의 실험·실증을 강조
 - 실제 사용자가 주도하고 생활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실험·학습을 통해 기술혁신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줄이고 기존 혁신활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작용(성지은·송위진·박인용, 2014)

- 리빙랩은 기술 중심에서 사용자 및 수요 중심으로 혁신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개념
 - 기존 기술획득 중심의 혁신활동과 정책을 넘어 수요자의 니즈와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 시도
 - 연구개발자 입장에서 일반 시민의 창조성을 공식적인 혁신과정과 연계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으며, 사용자 입장에서 리빙랩은 일상생활에서 과학기술을 접하고 스스로 혁신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키우는 계기를 마련(성지은·박인용, 2016; 성지은·한규영·정서화, 2016)

- 최근에는 리빙랩의 의미가 정부-민간 간 거버넌스 구축, SDGs 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수단, 주민 주도형 지역 및 사회혁신 모델로도 확장
 - 지자체, 출연(연), 도서관·박물관·과학관 등 공공연구기관, 복지단체 등에서도 지역사회, 시민(사용자)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창조’의 실험이자 ‘공동학습’의 장으로서 리빙랩을 활용(성지은·한규영·정서화, 2016; 성지은 외, 2017)

- 정책과 현장의 만남으로서, 전문성과 시민성의 결합모델로서, 민-산-학-연-관의 협력모델로서 지역·주민·현장 주도형 지역문제해결 및 사회혁신모델로서 리빙랩의 개념 및 역할 확장

3. 사회혁신을 위한 리빙랩 추진 사례 분석

1) 중앙정부 주도의 사회혁신 리빙랩 사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생활연구와 리빙랩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부)의 주도로 2013년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을 추진
 - 문제해결을 위한 목적지향적 R&D를 추진하고, 과학기술계 연구자와 인문사회 전문가, 실용화 전문가, 수요자(시민)의 협업을 통한 성과창출 유도
 -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 실용화 단계의 제품·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춤
 -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함
 - 기술개발사업의 영역을 제품 생산·판매, 서비스 도입 등의 성과 확산 단계까지 확장

<표 III-1> 기존 R&D와 사회문제 해결형 R&D의 특성

구분	기존 R&D	사회문제 해결형
목적	.국가전략 또는 경제성장 R&D.R&BD(Business Development)	.삶의 질 향상 (과학기술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 R&SD(Solution Development)
목표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사회문제 해결
특징	.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	.수요자 참여형 연구개발 .기술 + 인문사회 + 법.제도 융합
주체	.연구개발부서 중심	.연구개발부서와 정책부서 협업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2)

3) 본 사업의 내용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글로벌 이슈 조사연구」(성지은 외, 2015), 송위진·정서화(2016)을 기반으로 정리하였음.

- 해결이 필요한 사회문제를 일반 시민이 도출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개발된 기술을 체험·검증함으로써 활용 측면을 지향하는 열린 R&D사업을 지향
 - 수요 대상자, 제품·서비스 개발 목표, 생산·판매단계까지의 전달체계, 연구개발 참여자·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형, 실용화 기획 추진
 - 사업기간(2~3년) 내에 실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민연구 멘토단 도입, 사회적 성과의 평가 강화
 - 리빙랩 도입을 통해 R&D에 사용자 참여 확대

<표 III-2> 기존 R&D와 사회문제 해결형 R&D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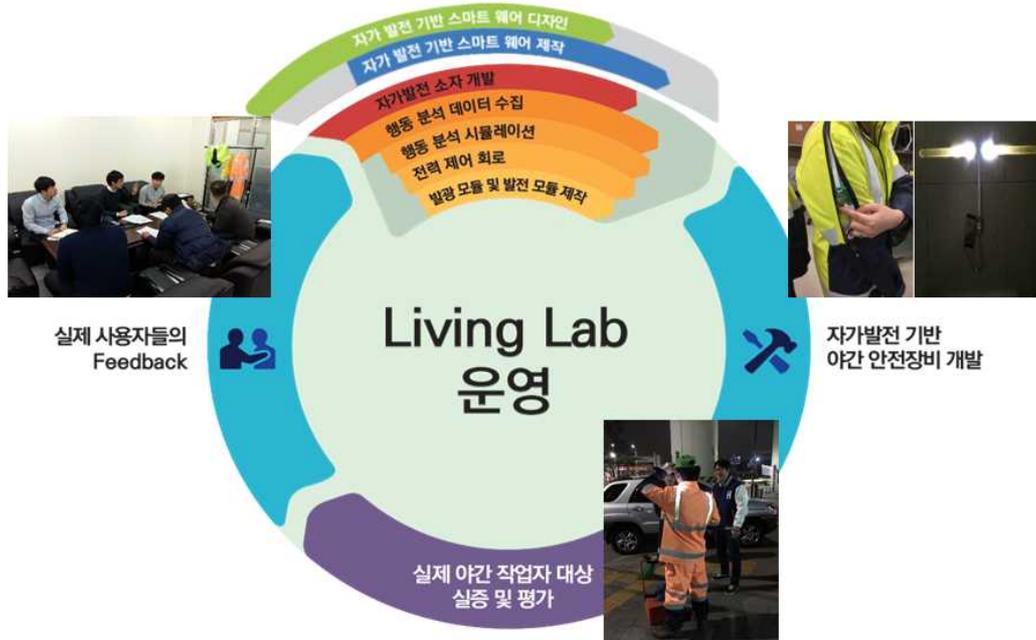
구분	AS-IS	TO-BE
사업분야	· 건강 ·안전 ·환경 분야	· 안전 R&D 강화 · 복지 R&D 확대
과제기획	· 기술 중심기획	· 현장수요 반영 · 사회 ·기술 통합기획
선정	· 서면 및 발표평가	· 현장평가 반영
연구개발 ·실증	· 2~3 년차 실증연구	· 리빙랩 도입 · 시민연구 멘토단 운영
성과관리	· 기술적 성과평가 중심	· 사회적 성과평가 중심 · 열린평가단 운영

자료: 송위진·정서화(2016)

- 사업 추진체계 및 방향
 - 사업단 구성
 - 주체 간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학·연·산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특히 산업체 참여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
 -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강화했으며, 사업선정에 반영함으로써 연계성 확보
 - 기존 R&D 사업과는 달리 성과목표를 기술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분리하고, 양 쪽의 목표를 모두 충족하도록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명시
 - 기술적 성과로 제출된 시제품은 빠른 상용화를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성숙도(TRL)에 도달해야 하며, 인증기관의 요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사회적 성과는 수요자 체감 만족도, 성능, 안전성, 보급 용이성 등이 해당

- 리빙랩 기반 프로젝트 수행을 의무화
 - 연구개발계획서에 ‘사용자 참여 및 검증계획’을 포함시키고, 생산·판매자(기업), 사용자(시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리빙랩 기반 실증연구를 의무화
 - 연구책임자들의 리빙랩에 대한 인식과 운영지식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진화하고 있음
 - 과제 초기에는 리빙랩을 사용자에게 대한 설문조사 정도로 인식했으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최종 사용자, 매개 사용자(지자체, 공공기관 포함)를 포함한 패널을 구성하여 반복적인 의견조사와 협의를 하는 활동으로 발전
 - 현장 최종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애초 기획단계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새로운 니즈와 개선 사항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송위진·정서화, 2016)

<그림 Ⅲ-1> 자가 발전 기술 기반 융합형 안전장비 제작 및 실증 관련 리빙랩 설계



자료: 성태현(2016)

- 본 사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리빙랩 방식을 도입한 최초의 사례임
 - 과제 선정 및 중간평가에서 리빙랩 수행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
 - 과제 상세 기획단계부터 기업, 서비스 전달조직, 최종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수요 지향성을 강화한 사업

- 연구책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최종 사용자와 지자체·공공기관과 같은 매개조직을 접촉하여 사용자와 의견을 조율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조직화된 사용자 그룹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설문조사, 워크숍 등을 통해 공동학습을 수행하여 기술적 요소만이 아니라 법·제도, 문화적인 측면까지 의견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최종 사용자들이 기술을 체험·검증함으로써 기술 활용 및 사업화 촉진(송위진·정서화, 2016)

(2) 행안부의 디지털 기반의 주민주도형 사회문제 해결(공감e가득)⁴⁾

□ 추진 배경

-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회문제(wicked problem)가 확대
 - 선진국에서는 이미 풀뿌리 지방자치를 통해서 주민이 스스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
- 디지털 사회혁신은 주민 스스로 문제 해결 풍토를 조성하고 정부는 지원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전지역에 착근시켜 자치분권 활성화를 도모
(디지털 사회혁신)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효율·효과성, 공공 투명성을 증진하는 활동(DSI: Digital Social Innovation)

<표 III-3> 디지털 사회혁신 패러다임 전환

구 분	舊 체제	新 체제
①역할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 지자체 주도 · 정부-민간 이분법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 민간 수요자 주도 · 민(시민사회) · 관 공동협력
②형식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자 주도 문제해결 (Top-Down) · 결과중심의 성과와 효율 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 주도 새로운 접근의 지역현안 문제발굴/성과측정(Bottom-Up) · 프로세스 등 과정과 환류체계
③경험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사례 위주 정보공유 · 처리과정 정보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패를 인정하고 과정을 통한 경험의 공유와 축적

4) 본 절은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2018)에서 정리한 「2018년도 주민체감형 디지털사회혁신 공모사업(공감e가득) 추진 현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음

□ 사업 개요

- 주민 주도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현안 발굴·해결을 지원하는 공모 사업
 - [추진방향] 주민 생활 속에 체감되는 긍정적 가치 창출, 주민주도로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협력하여 사회문제를 해결, 협업연계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사업기간/총사업비) '18. 6~12월, 특교세 35억원 (지방자치단체)
- (지원규모) 20개 사업 (프로젝트 과제 15개, 도시 과제 5개)
- (운영) 지역별로 주민들의 주도적인 스스로해결단*을 구성
 - * 지역주민(문제발굴 및 해결주도), 지자체(행·재정 지원) 기술전문가(디지털 솔루션 적용) 등이 협업을 통해 현안을 발굴하고,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해나가는 실행조직

【스스로해결단 구성·운영】

지역현안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스스로해결단의 단장(대표)은 지역주민 중에서 호선

참여자	주요 역할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공모 및 추진, 수행 총괄 · 스스로해결단 참여 및 협업 유도 · 성과 도출 및 성공사례 확산
지역주민 (최소 5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 측면의 지역현안 발굴 및 검증 · 지역현안 해결의 창의적 아이디어 제안 · 사업 결과의 수혜자 만족도 검증 및 피드백
ICT 기술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활용 방안 제안 및 관련 전문지식 제공

주민이 전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만족도와 효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토록 운영

□ 과제

-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사업(공감e가득) 공모 추진
 - 공모를 통해 5개 분야* 20개 중점 과제 선정



< 분야별 과제 대표사례 >

- ①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바로소통! 광주” (광주광역시)
 - 제안-공감-토론-정책투표-협치회의-실행이 가능한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 ② 포천 화현 스마트 심부름마켓 플랫폼 (포천시)
 - 교통사각지대 고령층의 생활편의서비스 제공·지원을 위한 맞춤형 앱 개발
- ③ 장애인 편의시설 커뮤니티 매핑(앱)(천안시)
 - 주민의 참여 및 매핑 기술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데이터 지도 조성
- ④ IoT를 활용한 시민안전과 농작물 피해 방지시스템 구현: (경기 광주시)
 - 퇴치 및 감시를 위한 IoT장비 설치, 멧돼지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 ⑤ 공룡나라 나눔페이 : 고성사랑 소액 기부 플랫폼(경남 고성군)
 - 간편한 소액기부 플랫폼을 통해 침체 된 지역 경기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

□ 주민-지자체-중앙정부 참여혁신

- (참여)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와 활동을 위해 ‘스스로해결단’을 구성·참여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

<표 III-4> 각 주체별 역할

구분	행정안전부	지자체	스스로해결단(주민)
주요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중앙-지방이 함께, 디지털 기술로 지역현안 해결 지원 · 스스로해결단 공동 워크숍 - 사업 공유·협력/상호 네트워킹 지원 · 디지털 사회혁신 멘토단 운영 및 과제별 컨설팅 지원 · 공감e가득 열린포럼 기획추진 - 현안별 누구나 참여하여 해결 방안을 공유협력하고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공모 및 행정 사항 수행 등 단위 과제 총괄 · 예산집행 및 관리 · 스스로해결단 참여 및 협업 유도 · 성과도출 및 성공사례의 전국적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 측면의 지역 현안 발굴 및 검증 · 지역현안 해결의 창의적 아이디어 제안 등 과제의 주도적 해결 · 현안해결의 디지털 기술 활용방안 마련 · 사업성과의 수혜자 만족도 검증 및 피드백

- (지원) 지역단위 디지털 사회혁신의 문제해결 역량 및 기술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디지털 사회혁신 멘토단(자문단) 구성·지원
- 중간지원조직, 대학, 출연연, 공공기관 등 32개 조직, 48명 전문가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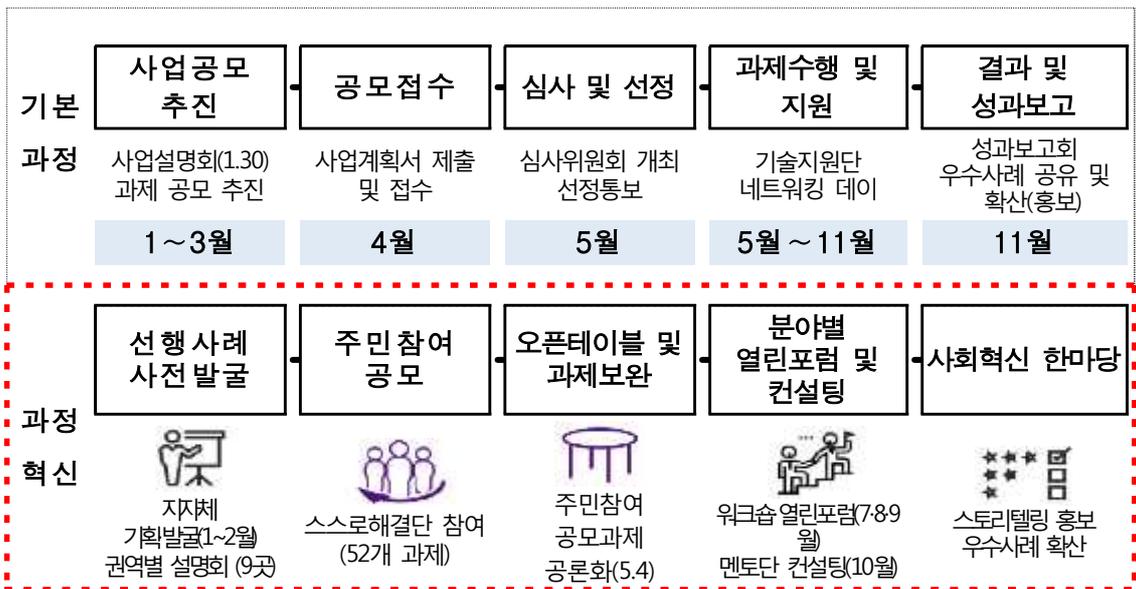
<그림 Ⅲ-2> 디지털 사회혁신 추진체계



□ 정보화사업에서 과정의 혁신

- (과정혁신) 기존 정보화 공모사업의 추진과정과 별개로 지역주민의 직접적 참여와 기여를 위한 사전 사례발굴·주민참여 공론·분야별 열린포럼 등 혁신 과정을 추가하여 공유·협력을 추진

<그림 Ⅲ-3> 사업 추진 절차



- (기회제공) 오픈테이블·워크숍 등 과정의 혁신을 통해 공모제출 이후에도 과제보완 기회 제공 및 멘토링·컨설팅을 통해 추진 보완지원

- ★ 행안부 넛지(Nudge) : 과제보완 기회 제공 및 추진 보완지원
- (참여개선) 강원도 원격의료상담 제공과제는 원격상담시스템 구축과 함께 의료기관과 주민이 상시 소통 가능한 건강돌봄네트워크 조성으로 추진
- (추진개선) 서울 구로구의 원주민-이주민 상생 프로젝트는 안전과 복지 현안을 도출하여 여성안심화장실 및 귀가서비스를 추가 및 구체화 추진
- (기술개선) 부산시의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슬리핑 차일드 개선을 위한 하이테크기술 보다 적정기술(NFC)을 활용하여 가족과 관계자가 공유토록 추진

<표 III-5> 디지털 기반의 주민주도형 사회문제 해결 혁신변화

시행 전	시행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기술전문가가 관주도로 개발하게 되어 주민은 이용자에 머물게 되고 주민체감이 낮음 • 지역 정보화를 기업 간 경쟁방식 추진으로 인해 주민이 지역현안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불가능한 하며 과정에서 발전·숙성을 지원받기 힘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의 혁신으로, 주민들이 '스스로해결단'을 통해 지역현안 발굴과정에서부터 주도적 역할을 하며, 정부·지자체는 주민들의 문제의식을 발전시키고 해결방법을 지원 • 과정의 혁신으로, 공모제출 이후에도 과제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멘토링·컨설팅을 통해 지역문제의 해결역량을 강화하여 공동체 발전에 기여

□ 공감e가득 사업은 참여의 혁신, 과정의 혁신이라는 두 가지 큰 차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추후 중앙행정 및 지자체 대상의 국가정보화 사업 전반에 국민이 공감하는 정부혁신의 활성화를 확산도모

- 공감e가득의 지자체 스스로해결단이 지역문제를 직접발굴하고 적정기술로 해결하는 노하우를 축적하면서 지역단위의 사회현안을 자체적으로 대응하게 되며, 타지자체로도 전파 기여
- (저출산) 슬리핑 차일드 문제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에 대하여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장치(부산) 개발과제를 통해 관련부처(복지부·국토부·경찰청 등)와 함께 디지털 기술 적용 전국 활용방안 등을 열린포럼 협의·적용
- (공동체 지원) 주민 생활에 필요한 도구(공구마트)와 응급장비(소화기·제세동기) 정보 등을 공유·운영하고 장애인 일자리(상주채용)로 연계하여 마을공동체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김해)

- (고령화) 지역사회의 독거노인 및 치매환자에 대하여 집안 밖 및 마을 어디 서나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안심보호하고 지역 자가돌봄단(마을협의회 등)과 온오프라인에서 함께 협력·지원(장성)
- (도시재생) 노후화되고 난개발된 구도심이 가지고 있는 지역현안에 대해 주민과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리빙랩(생활실험실) 구축·운영하여 안심 귀가(스마트 보안등), 여성 안심화장실 등 주민참여 협업추진(구로)
- (온라인 주민참여) 다양한 주민중심의 온라인 참여플랫폼(서울·광주·당진) 개발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과 공론을 위한 온라인 표준 환경을 구축하여 지자체에서 맞춤형(광역·기초/공개SW) 주민참여로 활용 및 확산토록 제공

2) 지자체 및 중간지원조직 중심의 사회혁신 리빙랩

(1)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시니어 리빙랩

<그림 III-4>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한국 시니어 리빙랩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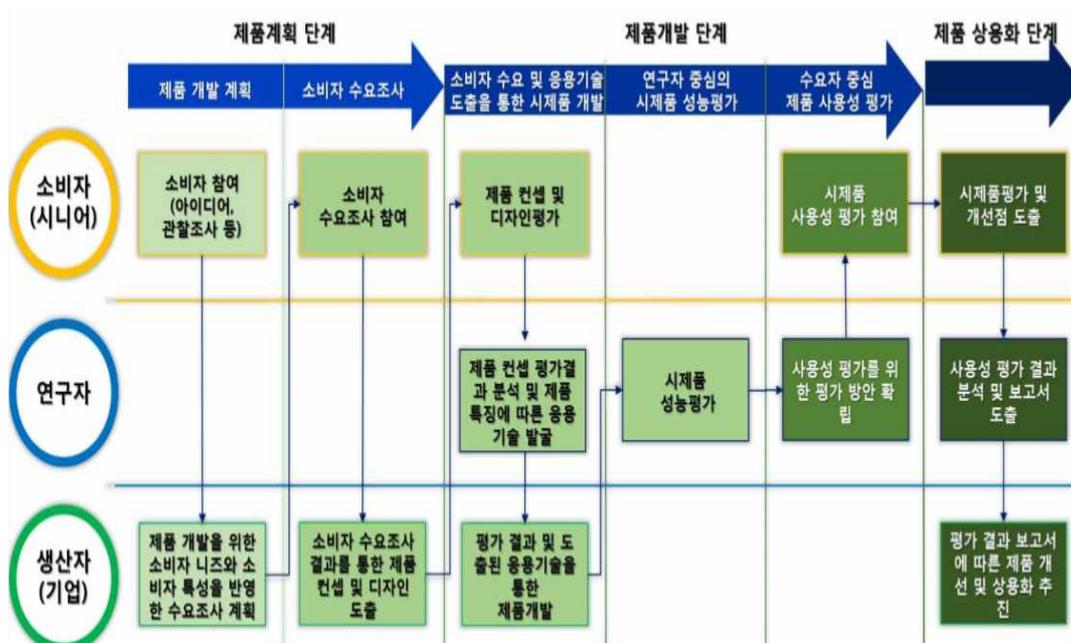


자료: 정택영(2016.5.26)

-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하 체험관)은 고령친화 사업 인프라 강화, 고령친화 산업기술의 고도화, 고령친화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고령친화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 체험관이라는 장소를 기반으로 시니어 대상 연구개발자와 생산자, 소비자가 집결하는 일종의 플랫폼을 구축
 - 이를 통해 모아진 의견과 정보들이 고령친화기업의 제품 개발에 사용됨으로써 고령자들의 생활 속 문제해결을 돕는 시니어 리빙랩을 운영
 - 체험관은 2012년에 설립되어 산업통상부와 성남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성지은·한규영, 2017)

- 체험관은 R&BD 지원센터, 전시/생애/치매 체험 센터, 교육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로 구성
 - 체험관 내에 IOT융합 고령친화제품을 체험해 보고 실제 사용자들인 어르신들의 평가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는 실증실과 고령자 신체기능향상을 위한 운동기기를 통해 각 건강지수와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실을 마련
 - 고령자 문화 및 콘텐츠 향유 실증실도 운영

<그림 Ⅲ-5> 한국 시니어 리빙랩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프로세스



자료: 정덕영(2018)

- 한국 시니어 리빙랩에서는 200여 명의 액티브 시니어 평가단을 운영
 - ‘욕창 예방 국부 압력조절 스마트 전동침대’의 사용성 평가, ‘고령자 배회방지 시스템’의 사용성 평가 등을 통해 시니어 소비자 중심의 제품 개선과 고령친화사업의 성공을 이끌어냄(사이언스타임즈, 2018. 3. 29.)

(2) 포항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사례

- 포항시는 포스코가 있는 철강도시이자 17개의 R&BD기관이 있는 R&D 허브 도시이지만 지역주민과의 교류와 R&D 성과의 지역 확산에 대한 고려는 매우 미흡
 - 포항시는 지역내 다양한 지역현안 문제를 확인하고 관련 정책수요에 대한 체계화된 지역문제 은행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리빙랩 방식을 활용
- 지역의 정량적 데이터를 모으는 첫 번째 시도로 포항시의 2016-2017년 민원 빅데이터, 포항시 통계연보, 그리고 각 부서별 자료를 취합·정리
 - 이 과정을 통해 지역내 생활 밀접형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인구 비중과 낙후도가 높은 지역에서 불법주정차, 쓰레기 수거 등 교통 및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음을 확인
- 포항지역의 정성적 데이터를 통해 지역의 현안 문제를 확인
 - 이를 위해 2017년 10월까지 약 3개월 간 29개 읍·면·동 지역을 방문해 주민센터 관계자 및 관련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문제의 원인과 유형을 조사하고 지역에 적합한 과학기술 가능성을 탐색
 - 지역 내 쓰레기문제 해결 등 주로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수요와 지역 내 고령화로 인한 슬럼화 지역의 문제와 기초수급자 대상의 지속적 일자리 창출, 다문화 가정의 지역 내 역할 모델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
 - 이를 기반으로 지역내 문제의 우선순위와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리빙랩을 적용할 수 있는 과제 내용을 구체화
- 1차 리빙랩은 포항시의 지원을 받아 ‘포항을 바꾸는 100일의 생활실험’으로 시작
 - 총 25개 과제 접수로 1차 14개 선정, 최종 5개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주요 지역 환경개선에 관한 내용이 확인됨
 - 특히 행정제도와 시설 측면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과 문화 공동체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음(포항테크노파크 정책연구소, 2017a)

<표 III-6> 최종 선정된 5개 과제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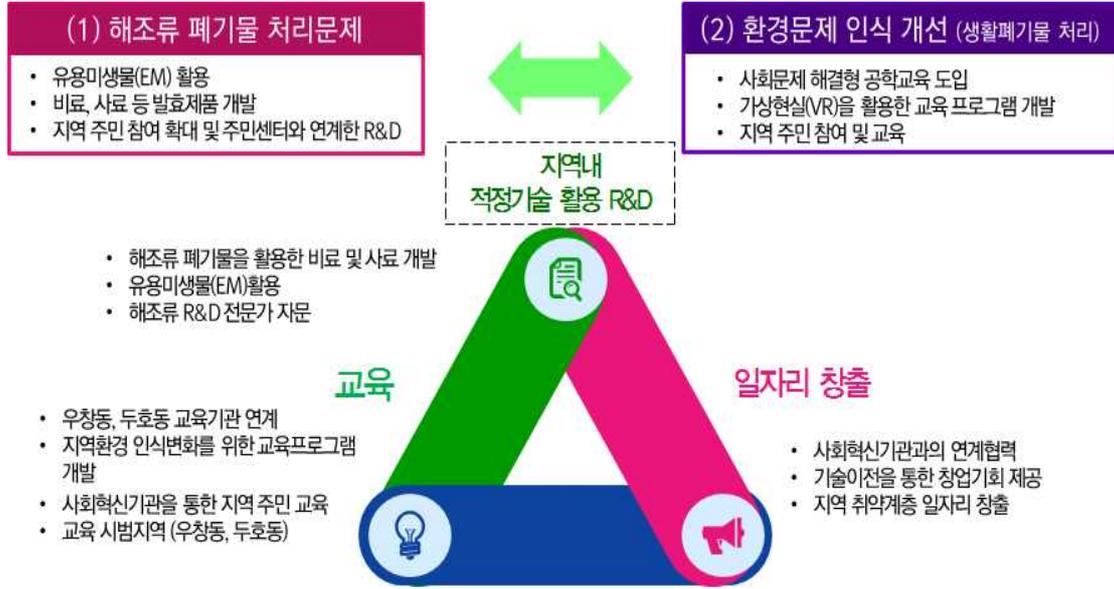
프로젝트명	주요 내용	문제 해결 담당자	포항시 지원부서
포항시 지역대상 사용자 리뷰기반 앱 서비스 제작	포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외국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앱서비스 제작	이열진 (한동대/ 글로벌 프로젝트 담당)	
되살림 공유공간 프로젝트	매일 수거, 쓰레기처리 교육, 재활용품 수거 보상 등을 이용한 불법쓰레기 투기 방지 방안 마련	류인철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실천운동본부/사무국장)	자원순환과
아름다운 포항 해안길 만들기	해안길 주변 마을 벽화작업, 특색있는 테마공간 조성 등으로 시민 및 관광객이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공간 마련	이중섭 (한동대콘텐츠융합디자인 학부/교수)	동해 면사무소
포항 침수지역 시민 안전문제 해결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 알림서비스나 대처방안 공지로 지역 주민들 스스로 사유 재산 및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도움	최창범 (한동대 ICT 창업학부/교수)	하수도과
생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IoT기반 쓰레기통 제작	쓰레기통에 센서 부착하여 쓰레기통 관리 및 배출 방안 마련하고 데이터 수집을 통하여 지역에 맞는 쓰레기문제 해결 가능	김상환 (한동대 ICT 창업학부/교수)	자원 순환과

자료: 포항테크노파크 정책연구소(2017a)

□ 2차 리빙랩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우리동네 과학클럽’ 공모과제로 추진

- 포항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대 해조류 문제를 지역내 시민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영일대 V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적정기술을 통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시도
 - 첫 번째로 지역내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생산하는 EM을 활용하여 해조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안을 실험
 - 두 번째는 환경문제 인식 개선을 위한 VR을 활용한 콘텐츠 시민들과 제작하여 지역내 교육 체계로의 결합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까지 고민
- 성과물로 만들어진 해조류 액비는 지역내 특산물인 부추와 시금치의 생장에 도움이 되는 걸로 확인되었으며,
- 시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역 교육기관들의 참여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의 관심유도, 그리고 지역 R&BD기관과 외부 전문기관들의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을 증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포항테크노파크 정책연구소, 2017b)

<그림 III-6> 영일대 V프로젝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자료: 포항테크노파크 정책연구소(2017b)

(3) 대전시 센서기반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 관리 리빙랩⁵⁾

-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은 대전시(61%) 및 중부권(42%) 최대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1987년 개장
 - 2009년~2013년(4년간) 339억원 사업비로 시설 현대화 사업(수산시장은 제외)을 진행하였으나 소음, 악취, 주차문제 등 생활불편요소는 여전히 발생
- 리빙랩 방법론을 활용한 대전시 지역사회 문제해결 시범사업 추진
 - 2016년도 사전 검토 및 기획을 통해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문제해결 활동을 대전시의 리빙랩 시범사업 대상으로 설정
 - 리빙랩 방식과 센서 기술 등을 접목하여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이 겪고 있는 다양한 생활불편요소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을 시민사회조직 및 현장 구성원과 공동으로 모색하고 현장실험을 수행
 - 수행시기: 2017년 7월 ~ 11월 (5개월)
 - 수행기관: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협동조합 세상속의과학

5) 이 부분의 내용은 『센서기반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 관리 리빙랩』(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협동조합 세상속의과학, 2017)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재정리하였음.

□ 문제 발굴 활동 절차 및 방법

○ 사전 조사 및 심층면접 조사

- 사전조사: 홈페이지·발간물·내부업무자료·언론보도·선행연구 등 자료 수집과 검토 → 현장방문조사 및 핵심 관계자 대상 사전 의견 청취 → 문제 영역 분류
- 심층면접: 예상이슈 정리 및 심층면접조사표 작성 → 연구진 사전교육 → 면접대상자 선정 → 심층면접 수행

○ 이슈 검토 및 분류

- 심층면접 결과로부터 이슈 도출 → 문제 영역 재분류
- 1, 2차 워크숍을 통해 문제해결 접근체계 논의, 중점 해결과제 선정, 중점 해결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심층 토론 진행

□ 문제해결 솔루션 적용 연구 절차 및 방법

○ 문제해결 영역 선정: 폐기 농산물 및 위생처리장 악취 문제

- 사업기간이 짧아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 발굴 과정과는 별도로 현장방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기술적 솔루션 탐색 및 적용이 용이한 주제를 사전 선정

○ 시장 내 악취 발생원 및 현황조사

- 현장방문조사를 통한 도매시장 내외부의 악취 발생원 사전 점검
- 샘플링 측정 방식을 이용하여 악취 공간분포 조사 2차례 실시

○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법 구성

-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적용 가능한 악취방지기술 검토 및 선정
- 악취 분석방법 및 적용 센서 선정
- 실시간 악취 추적조사 가능한 센서기반 악취저감장치 구성

○ 악취저감장치 현장 적용 및 성능 평가

- 성능 평가 피드백을 거쳐 적용실험 2차례 실시
- 실험결과 평가 및 향후 적용방안 제안

□ 악취문제 현황·원인 점검과 솔루션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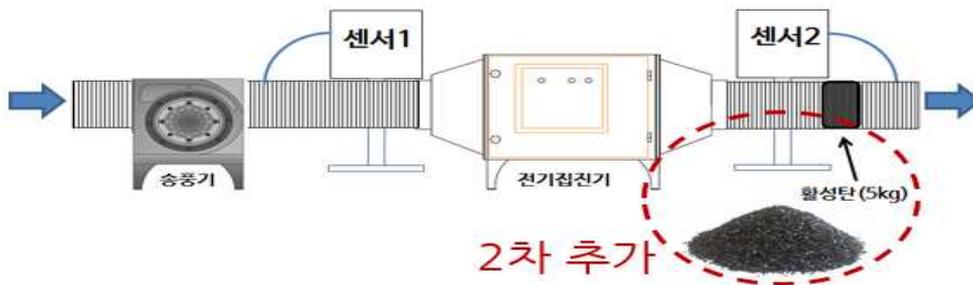
○ 도매시장 및 주변지역 악취현황조사

- Passive air sampler를 이용하여 다수 지점에서 아황산가스(SO₂) 및 암모니아(NH₃)동시 샘플링 및 분석
- 2017년 9월 14~15일에 걸쳐 15개 지점 대상으로 1차 조사, 10월 30일~11월 1일에 걸쳐 25개 지점 대상으로 2차 조사 실시

○ 센서기반 악취저감장치의 구성 및 적용

- 실시간 악취제거효과 평가를 위해 전기집진기의 유입단과 유출단에 악취센서를 설치하여 악취저감장치의 효율평가에 활용 ([그림] 참조)
- 1차 설치평가 결과(2017년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현장운영 테스트) 폐기물처리장 운영시간의 작동기록 기준으로 일별 최소저감률 47.8%, 최대저감률 72.4%, 기간평균저감률 61.2% 확인
- 2차 설치평가 결과(2017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8일간 현장운영 테스트) 폐기물처리장 운영시간의 작동기록 기준으로 일별 최소저감률 76.2%, 최대저감률 88.5%, 기간평균저감률 83.0% 확인

<그림 Ⅲ-7> 폐기물처리장에 설치한 센서기반 악취저감 장치



자료: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협동조합 세상속의과학(2017)

□ 사후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통한 변화 확인

- 사업종료 4개월 후 현장 방문하여 해결방안으로 논의되었던 다수 사항 변화 확인

- 시장 내부 쓰레기에 대한 종량제 및 분리수거제 시행
- 종량제 쓰레기봉투 기본수량 초과 시 발생하는 추가구입비용으로 인해, 중도매인 등 시장 구성원들의 자발적 쓰레기 배출 절감노력 형성
- 폐기농수산물 발효기 시범도입,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 착공, 구입 영수증 소지시 무료주차시간 30분으로 연장 등 시설 및 시스템 변화
- 심층면접 및 워크숍을 통해 확인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운영법인 예산을 투입하여 자체 문제해결활동을 전개하는 양상 확인

□ 주민참여 활동과 현장기반 실험적용 등 추후 대전지역 또는 국가 차원의 리빙랩 사업 확대 환경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경험 형성

○ 전국의 농수산물도매시장들이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어 향후 이들 시설환경의 개선에 참고자료 및 사례로 활용 가능

- 상인 공동체의 특성상 영업과 매출에 관련된 문제들에는 민감하지만 본인들의 건강·안전·생활편의 등의 문제들에는 둔감하여, 이들 문제제기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는 경향 확인
- 연속모니터링과 실시간 분석이 가능한 반도체식 악취센서의 결합을 통해 악취저감효율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고, 장치 유지·관리와 성능변화에 대한 즉시 대응도 가능한 장점 확보

(4) 서울혁신파크의 ‘사회혁신 X 리빙랩’ 프로젝트

2016 서울혁신파크 리빙랩 「내가 바꾸는 서울, 100일의 실험」 개요
<p>이번 실험의 주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가 골목의 쓰레기난과 주차난에서부터, 도를 넘은 학교 안의 폭력과 따돌림, 갈수록 심해지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피해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모든 문제가 이번 실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p> <p>다만, 리빙랩 실험의 취지에 맞게 동네 골목, 아파트 단지, 재래시장, 학교 교실, 회사의 생산현장, 종합병원 입원병동, 온라인 커뮤니티 등 구체적 삶의 현장을 실험실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험의 설계에서부터 해법 도출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시민의 주도적 역할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 주제 : 자유(제한 없음) ▪ 공모 부문 : 서울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실험 ▪ 지원금 : 총 2억 5천만 원(프로젝트 당 3천~5천만 원) ▪ 접수 기간 : 2016년 7월 13일(수) ~ 8월 15일(월) 24시 ▪ 실험 기간 : 2016년 8월 20일 ~ 11월 30일(약 100일) ▪ 응모 자격 : 실험의 설계 및 수행 능력을 갖춘 단체

자료: 서울혁신파크 홈페이지 공모사업 공지
 (<http://innovationpark.kr/livinglab>) (2017. 7. 2 접속)

- 서울혁신파크는 2016년 서울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해법 창출을 위해 리빙랩을 시작
 - 「내가 바꾸는 서울, 100일의 실험」이라는 사업명으로 총 지원 금액은 2억 5,000만 원이 투입
- 공모에는 총 총 48개의 단체(프로젝트)가 응모했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총 6개의 단체(프로젝트)가 최종 선정
 - 선정된 단체와 실험명은 <표-7>와 같음

<표 Ⅲ-7> 내가 바꾸는 서울, 100일의 실험 선정과제

단체명	실험명
감성놀이터	청소년 심리치유 VR 메이커 스페이스
독산4동 행복주차주민위원회	독점에서 공유로 '행복주차' 골목 만들기
마포 경제공동체 모아	지역 대안화폐를 통한 공동체경제 & 공동체기금 건설
엔젤스헤이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인라이튼	다시 쓰는 더 나은 방법_배터리뉴(BETTER REnew_더 나은 되살림) 프로젝트
피치마켓	발달장애·비장애 학생의 참여형 통합교육 시스템 개발

자료: 성지은 외(2017)

- 2017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추진
 - 지속적인 리빙랩 프로젝트 운영으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운영 역량을 향상시키고, 참여자들 또한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를 도모

<표 Ⅲ-8> 2017년 사회혁신×리빙랩 프로젝트 공모

단체명	실험명
123컬렉터	현대화된 직기 개발과 재직조 스튜디오 구성, 의류 폐기물의 재사와 재직조를 통한 상품 판매
엔젤스윙	드론과 시민참여를 통한 쪽방촌 지도 그리기
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	지역화폐 사용 확대를 통해 지역을 위해 사용될 기금 확보, 지역의 경제자립에 도움이 될 공동체 은행 건립
마을에숨어	재건축을 앞둔 둔촌 주공아파트의 디지털 가상세계 구축을 위한 기록과 수집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 센터	아이와 함께 타고 장보기가 가능한 카고바이크 '서울형 엄마바이크' 제작 및 보급
2023 독산행복골목위원회	공유주차, 공유상자, 골목길 행사를 통한 어울림이 있는 행복한 골목길 만들기
어라운드	흡연자, 비흡연자 갈등 해소를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형 서비스 디자인 워크숍 및 공공디자인 제품 제작
고구마교육음악연구소	서울 서북부 지역의 음악예술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마그네틱 5	시각장애아동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촉각그림책 제작
세눈컴퍼니	작은 결혼식 프로젝트, 혁신가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서울혁신파크 공간 재생
라임프렌즈	국내 거주 이주민들을 위한 법안 및 생활정보 번역 플랫폼 구축

자료: 「2017 서울혁신파크 “사회혁신×리빙랩” 프로젝트」정미나 발표자료(2017, 7.12)

- 서울혁신파크 리빙랩 사례는 도시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민 주도 사회혁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줌
 -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들은 시민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맞닿아있는 문제이자, 많은 시민이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성지은 외, 2017)

3) 대학 주도의 사회혁신 리빙랩 추진 사례

(1) 동국대 리빙랩 사례

- 동국대는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으로 리빙랩을 도입해 대학의 교육·연구·지역협력 모델을 재정립하고 있음
 - 지역산업·대학의 강점을 연계하여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학과 지역사회, 기업 간 당면 과제를 해결하면서 학생들에게는 현장 실무형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을 테스트베드 공간으로 개방하고 리빙랩을 설치·운영
- 리빙랩이 대학교육과정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리빙랩 특성화 분야 선정, 리빙랩 인프라 구축, 리빙랩 교과 운영 및 지원 체계 마련, 리빙랩 잠

- 재적 테스트 패널 구성·운영’ 등의 세부전략을 수립·추진
- 사용자 혁신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캡스톤디자인 및 창업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커리큘럼에도 변화를 주고,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계약학과 또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
 - 동국대의 리빙랩은 기존의 대학 운영 방식과는 다르게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각 참여주체별 역할을 <표 9>과 같이 명확하게 설정 (동국대학교, 2017a; 2017b)

<표 Ⅲ-9> 동국대학교 리빙랩 참여주체별 역할

참여 주체	역 할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및 회의 주재 - 세미나 및 워크숍 주재 - 연구할 수 있는 리서치 자료 제공 - 학생들에게 기초적인 공간디자인을 할 수 있는 특강 제공 - 학생들이 프로토타입을 구현할 수 있는 재료 제공 - 참여기관의 프로젝트를 연구주제로 채택 - 참여기관과 연구팀의 계약 체결 - 참여기관과 학교, 학생간의 원활한 관계 구축 - 연구결과를 참여기관이 반영할 수 있도록 결과보고회의 개최 - 연구결과와 실천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에 참여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을 중심으로 연구 과제 수행 - 전공별 특성에 맞게 연구주제를 탐색 - 전공심화를 위한 특강주제 및 강사 제안 - 연구주제를 세미나에서 발제하여 심화시킴 - 연구주제를 정리하여 보고서에 반영
참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학생의 연구를 위한 허가 획득 - 참여기관과 연구팀의 계약체결 - 연구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결과보고회의 개최 - 연구결과와 실천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위원으로 연구자 참여 도모

자료: 동국대학교(2017b)

- ‘서애 대학 문화거리 조성 청년 프로젝트’는 중구청의 ‘역사문화 중심도시 중구 재창조’를 위한 사업으로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8개월간 프로젝트를 수행

- 학생과 관광객이 머물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문화거리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 시설과 개성 있고 예쁜 점포 유치 지원, 보행환경과 가로경관 개선, 건물 리모델링 규제완화, 서애광장 조성 등을 추진
- ‘인현시장 Safety’ 리빙랩은 캠퍼스 인근의 낙후된 전통 재래시장인 인현시장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 사고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이 갖고 있는 범죄 인프라 및 전문 지식을 활용해 재래시장 상권을 재생시키고, 지역사회-대학-공공기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근거 중심의 범죄예방 모델을 도출
- 체계적인 리빙랩 추진을 위해 경찰사법대학 내 예비 범죄예방 전문 인력을 양성해 범죄예방 활동을 실시한 결과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음(동국대, 2017b)

(2) 경남대 리빙랩 사례

- 대학의 주요 기능인 교육, 연구,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리빙랩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리빙랩 사례를 2017년부터 만들어가고 있음
- 경남대는 입학생의 80%가 경남지역 출신이며, 졸업생의 80%가 경남지역에서 취업하는 지역밀착형 대학으로, 대학발전 비전과 인재상을 ‘미래를 열어가는 지역감동 대학’,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창의융합 지역인재’로 설정하여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 대학의 사회적, 공공적 역할의 중요성을 학내 교육혁신포럼과 각종 토론회를 열어 지속적으로 공유
- 대학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혁신적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 스스로 혁신의 대상이 되어야한다는 공유인식을 가지고 경험기반 교육체계 확립, 창의융합 교육과정 확대, 오픈캠퍼스 구축, 지역사회(산업)연계교과목 운영, 혁신적 교수법 연수 및 교수동아리 발굴지원, 청마지(청춘들이 바꾸는 지역사회)프로젝트 등 교육과정 개편과 교수 및 학생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을 다양하게 추진
- LINC+사업단 지역사회혁신센터에서는 교수, 학생, 직원으로 구성된 맞춤형 리빙랩지원단을 조직하여 실제적인 협업활동을 전개하며 리빙랩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음
- 리빙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속가능한 리빙랩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 이 모델에는 4가지 실천전략을 포함
- 상생과 협업을 위한 리빙랩 거버넌스 ‘함께’ 형성하기, 2)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넓게’ 파악하기, 3)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구조를 ‘깊게’ 형성하기, 4)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오래’ 지속가능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하기

<그림 III-8> 경남대 지역사회 혁신 리빙랩 추진 모델



자료: 정은희(2018)

□ 대표 사례

- 2013년부터 시작된 자유학기제를 활용하여 경남대학교의 교육학과 교수와 학생, 창원시청,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창동상인회, 경상남도교육청, 마산지역 중학교가 함께 마산원도심 체험활동 ‘골목여행’ 프로그램을 개발
 - 매학기 약 2천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지역 중학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고, 원도심 유동인구 증가와 상권 활성화에 기여
 - 2016년에는 경남대학교 사범대 8개 학과가 참여하여 기존의 프로그램을 마산원도심 교과 연계형 ‘골목여행’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하여 현재까지도 지속
 - 2017년에는 대학이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계 협업하고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자유학기제 콘텐츠로 개발하고 지속한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부 장관상을 2개 수상

□ 2018년도에 선정된 으뜸마을 중 4개의 마을(교방동, 봉암동, 반월중앙동, 창

원중앙동)과 창원시지속가능협의회, 공무원, 민간단체, 기업 등과 함께 리빙랩지원단을 발족하여 정기적으로 사업 연계 추진

- 교방동에서는 대학교수와 학생, 마을의 초등학생, 중학생, 성인 등 40명과 함께 이틀 동안 마을주민회의를 개최하여 도시재개발로 사라져가는 마을의 역사문화를 지키고 교육하기를 의제로 삼고 ‘사라져가는 교방동보물찾기’프로젝트를 실천
 - 교방동 리빙랩 참여자들은 마을에 대한 주민인식을 조사 분석하고, 마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
 - 주민 마을해설사를 양성하는 등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무관심하고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것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지역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달아 가고 있음
- 올해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11월까지 진행되며 창원시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된 대학연계 리빙랩 활동에 특히 주목하고 우수사례로 추진 중

4) 주민 주도의 사회혁신 리빙랩 추진 사례

(1) 성대골 에너지 전환을 위한 리빙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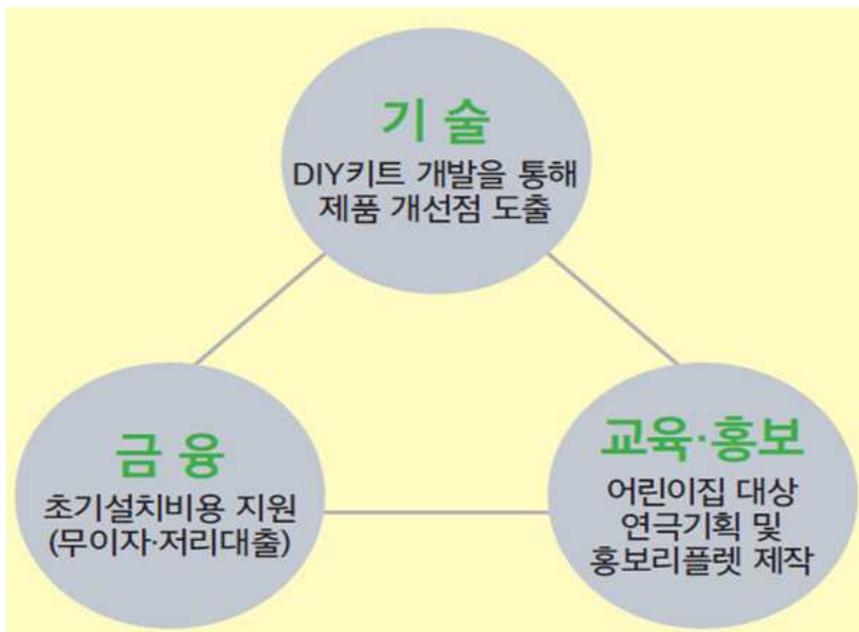
-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성대골은 활발한 마을만들기 운동으로 도심지역에서 공동체를 회복한 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운동이 시작됨
 - ‘생활 속 삶과 핵’을 주제로 강좌를 개설하고, 연이어 개최된 ‘착한에너지로 거듭나기’에 대한 다섯 개의 강좌와 워크숍(우리동네 녹색아카데미)으로 에너지 전환 운동이 본격화
 - 이를 계기로 마을 내에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통된 담론이 형성되었고, 성대골 에너지자립(전환) 마을을 목표로 다양한 학습(에너지자립마을 견학 및 강의)과 실험(성대골절전소, 착한에너지지킴이 동아리 조직, 착한에너지합창단 결성)이 시작
- 2012년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에 선정되어 마을 내에서 태양광 발전, 태양열온풍기 설치, 에너지카, 건물단열사업 등과 같은 에너지 관련 실험과 사업이 본격화

- 마을 내 경제적 지속성을 확보해 자립구조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을기업, 햇빛발전협동조합, 마을닷살림협동조합, 에너지슈퍼마켓 등의 시범 사업을 추진
-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의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공모사업 과제로 ‘도시지역 미니태양광 리빙랩’(이하, 성대골 리빙랩)을 추진
 -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주)마이크로발전소, 연세대학교 지속가능한 도시전환 연구실 등 총 4개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이뤄 사업을 진행(김준한·한재각, 2017)

□ 성대골 리빙랩 성과

- 총 7회 주민워크숍, FG1 회의 6회, FG2 회의 3회, FG3 회의 11회 등을 진행해 지역 주민 약 300명(누적) 참여를 이끌어냈고 49명 마을연구원을 모집
- 홍보물 4종 18,000부가 배포되었고, 그 외에도 현수막, 배너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성대골 리빙랩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
- 실제 제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개선해 DIY 제품을 출시했으며, 총 19명의 마을연구원이 성실하게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시제품 설치까지 진행

<그림 Ⅲ-9> 성대골 리빙랩 주요 분야



자료: 김준한·한재각(2017)

- 동작신협, 마을연구원과 함께 우리집솔라론을 개발해 지역 주민이 초기 설치 비용 없이 월 1만원씩 무이자로 갚아나가는 금융상품을 출시
 - 마을연구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600W, 900W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은 전액 에너지복지기금으로 사용(김준한·한재각, 2017)
- 성대골은 지역 기반의 에너지 운동을 통해 기존의 하향식·공급 위주에서 상향식·수요 위주로의 에너지 전환을 시도
- 주민과 서울시, 연구소, 기업이 함께 참여해 에너지 절전소, 에너지 슈퍼마켓, 에너지 반상회 등 다양한 에너지 전환 실험을 시도

(2) 대전 지역문제 해결 리빙랩 프로젝트 ‘건너유’

- 대전에서는 하천 범람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웹서비스를 개발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리빙랩 실험이 이루어짐

<그림 Ⅲ-10> 건너유 프로젝트



‘호우 시 매번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리빙랩 제안,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통한 테스트 베드



건너기전에, 갑천 범람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민들의 참여로 직접 개발

자료: 천영환(2015)

- 대전의 유성 홈플러스 인근 징검다리, 일명 ‘물고기다리’에서 호우 시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했으나 시 차원에서 뚜렷한 안전대책을 제시하지 못함
 - 다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2014년 8월)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주도 하에 다리의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프로젝트(건너유)가 추진
- 하천의 범람과 안전 상태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한 웹서비스를 개발하여 시민의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함

- 건너유 프로젝트의 참여 주체는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코워킹 스페이스 별집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전지역 청년들의 사회혁신조직, 메이커커뮤니티 ‘용도변경’, 일반시민로 구성
 - ‘별집’은 유성구에 위치한 창의적 커뮤니티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공유하는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로 리빙랩 공동 스터디 및 워크숍을 설계
 - 메이커커뮤니티 ‘용도변경’은 메이커(Maker) 및 개발자들의 커뮤니티로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등을 보유하고 소규모 워크숍 등을 진행하는 자작(Self-making) 커뮤니티로 오픈소스를 조사하고 태양광 충전 모듈 개발, IoT를 이용한 무선 IP카메라 장착, 반응형 모바일 웹 등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프로토타이핑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공익적 시민활동을 지원하는 대전시 산하 기관으로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기관과의 연계 및 예산을 지원
 - 물고기 다리 인근의 주민과 대학생은 워크숍에 참가하여 아이디어를 제공

- 건너유 프로젝트는 마을 주민과 공동체가 공동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지자체에 해결 방안을 제안한 시민사회 주도의 상향식 문제 해결 모델로 평가 가능
 - ICT를 통해 누구든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지역 사회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저비용 기술과 기존 장비·인프라 등의 지역 내 과학기술로 지역문제를 해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토타입 및 서비스 개발뿐만 아니라 서버 구축 및 모바일 시스템 구현에서도 별도의 개발 없이 해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개발의 효율화를 도모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함 (성지은·한규영·정서화, 2016)

4. 향후 과제

- 최근 여러 주체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리빙랩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함(성지은 외, 2017)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사회혁신 사업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리빙랩 사업의 경우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의 유연성이 요구되며, 많은 경우 리빙랩을 운영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와 대안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추진 체제가 필요
 - 정부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 및 방향부터 논문·특허 위주의 대학 및 연구개발 평가체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틀이 바뀌지 않는 한 리빙랩 실험은 실효성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제도, 인프라, 환경 등을 지원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있음
 - 지속가능한 플랫폼 구축에 대한 전망 필요
 - 리빙랩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 사용자 수용성이 높은 문제해결책이 개발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시민사회와 공급자인 전문조직의 네트워크, 즉, 일종의 문제해결 플랫폼이 구축됨
 - 리빙랩 플랫폼은 사용자 참여형 실험이 이루어질수록 더 많은 사용자 패널이 구성되고, 관련 정보·지식이 축적되며, 네트워크가 확장되므로, 리빙랩 활동은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
 - 공익성을 지닌 똑똑한 최종 사용자 조직이 필요
 - 일회적인 참여나 설문 형태의 단순 조사를 통해서만 시민들의 내밀한 수요를 파악하기 힘들며 개인들의 사적 민원만 파악할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화된 사용자 그룹이 참여해야 연구자·기업들과 지속적인 상호학습이 가능
 - 이들이 공익성을 지니고 있어야 특정 집단의 민원해결이나 대중적 활동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되는데, 혁신적 아이디어를 스케일업하고 공공적인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공공성과 전문성이 있는 사용자 및 사회혁신조직의 참여가 필요
 - 다양한 리빙랩 실험과 함께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체계 구축
 - 현재 리빙랩 개념은 계속 확대·진화하고 있으며, 현장은 이론보다 더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각 사업에서 진행되는 구체적인 리빙랩 활동과 성과는 무엇이고, 향후 개선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성지은 외, 2017)

- 현재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리빙랩 활동을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 등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서로 연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리빙랩 활동은 대중적인 문제해결이나 일회성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문제 해결, 자원순환, 지속가능한 발전이 통합된 장기 비전을 가지고 사회·기술시스템 혁신으로 연계해 나갈 경우 그 자체로 '전환 랩(transition lab)'이 될 수 있음
 - 이를 위해, 과학기술, 환경, 에너지, 산업, 복지·사회 등 관련 정책과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므로, 부처 간, 산·학·연·관 간 연계·협력은 물론, 전문가와 시민사회 간의 협업은 필수적임(성지은 외, 2017)

[참고문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2),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新과학기술(R&SD) 추진전략(안)”.
- 김준한·한재각(2017), 에너지 전환을 위한 리빙랩의 경험: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의 도시지역 미니태양광 리빙랩 사례를 중심으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Working Paper_201708.
-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협동조합 세상속의과학(2017), 『센서기반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 관리 리빙랩』, (재)대전테크노파크·대전광역시(시민참여형 지역사회 문제해결 협력사업 최종보고서).
- 동국대학교(2017a), 동국대학교 Campus Living Lab 추진현황, 제5차 한국리빙랩네트워크 포럼 발표자료.
- 동국대학교(2017b), “동국대학교 Living Lab 간략소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이언스타임즈(2018. 3. 29.), <생활문제 해결 R&D, 리빙랩이 뜬다>.
- 서울특별시(2015), 「IoT 융합 실증사업 추진전략 및 현황」, 제8차 북촌협의회 발표자료.
- 서울혁신파크 홈페이지 공모사업 공지(<http://innovationpark.kr/livinglab>)
- 성지은·박인용(2016), 시스템 전환 실험의 장으로서 리빙랩: 사례 분석과 시사점, 『기술혁신학회지』, 제19권 제1호.
- 성지은·송위진·김종선·정서화·한규영(2016), “멘토링을 통해 본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STEPI Insight』. 191.
- 성지은·송위진·박인용(2013), “리빙랩의 운영 체계와 사례”, 『STEPI Insight』, 127, 1-46.
- 성지은·송위진·박인용(2014), 사용자 주도형 혁신모델로서 리빙랩 사례 분석과 적용 가능성 탐색, 『기술혁신학회지』, 제17권 제2호, pp. 309-333.

- 성지은·송위진·정병걸·최창범·윤찬영·정서화·한규영(2017), 『국내 리빙랩 현황 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성지은·한규영(2017), 중간지원조직의 리빙랩 현황과 플랫폼으로서의 발전 가능성 탐색, 『기술혁신학회지』, 제20권 제4호.
- 성지은·한규영·정서화(2016),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리빙랩 사례 분석, 『과학기술학연구』, 제16권 제2호. p. 65-98.
- 성태현(2016), “야간 작업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자가 발전 기술 기반 융합형 안전장비 제작 및 실증”, 제1차 멘토링 회의 발표 자료.
- 송위진(2012), “Living Lab: 사용자 주도의 개방형 혁신모델”, 『STEPI Issues & Policy』, 59, 1-14.
- 송위진·성지은·김종선·장영배·정병걸·이은경(2014),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에서 사용자 참여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14-0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송위진·정서화(2016),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현황과 과제”, 『STEPI Insight』. 185.
- 정덕영(2016. 5. 26),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리빙랩 운영계획”, 한국 시니어 리빙랩 개소 기념 워크숍 발표자료.
- 정덕영(2108), 한국시니어리빙랩을 활용한 고령친화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연세공학교육포럼 발표문(2018. 6. 1.).
- 정미나(2017. 7. 12), 「2017 서울혁신파크 “사회혁신×리빙랩” 프로젝트」 포럼 발표자료.
- 천영환(2015), 「대전 리빙랩 프로젝트 ‘건너유’」, 『과학기술+사회혁신 포럼』 발표자료.
- 포항테크노파크 정책연구소(2017a), 「포항을 바꾸는 100일의 생활실험」. 최종 보고서.
- 포항테크노파크 정책연구소(2017b), 「2017 포항지역 사이언스 소사이어티 활동 성과 보고서」 한국과학창의재단 우리동네 과학클럽.
-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2018), 『2018년도 주민체감형 디지털사회혁신 공모사업(공감e가득) 추진 현황』.

IV.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을 위한
강원도 사회적경제 교육 모델 제안

1. 머리말
2. 강원도 사회적경제 교육 현황 및 문제점
3. 강원도 사회적경제 교육 모델 제안
4. 소결



IV.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을 위한 강원도 사회적경제교육 모델 제안

- 협동조합 교육과 나눔 사회적경제교육 로드맵을 중심으로 -

조경자¹⁾

1. 머리말

2018년 7월, 정부는 사회적경제 인재유입 확대와 종사자 역량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최근 고령화·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가 확산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역에서 활동할 “사람”을 키워야 하나, 현재 인재양성을 위한 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여 청년·신중년 등 다양한 계층의 신규 인재 유입이 저조하고, 부처별 창업 지원에만 편중되어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교육전문가·지원인력 등 분야별 전문가 양성과정 등은 거의 부재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인재가 사회적경제로 지속 유입되고, 전문성을 갖춰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²⁾는 것이 인재양성종합계획의 핵심내용이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강원도 사회적경제를 확산하고 지속 성장시킬 “사람”을 키우는 교육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본 글은 2018년도 올 한해 진행되었던 강원도 사회적경제 교육현황을 분석하여 현재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을 위한 강원도 사회적경제 교육 모델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1) 협동조합 교육과 나눔 상임이사

2) 관계부처합동,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2018

2. 강원도 사회적경제 교육 현황 및 문제점

1) 2018년 강원도 사회적경제 교육 현황

2017년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정부기관의 사회적경제관련 교육 현황 실태조사에 기반한 분석자료를 살펴보면, 중간지원조직에서 가장 많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2018년 강원도 사회적경제 교육 현황은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인재육성센터 교육훈련 현황에 기반하여 분석이 이루어 졌으며,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유형(일반교육, 창업교육, 창업지원교육, 전문교육)과 대상(학생·교사, 일반인, 창업희망자, 사회적경제종사자)으로 구분하여 교육내용을 분석하였다.

(1) 교육프로그램 유형별·대상별 현황

교육 현황에 분석된 교육프로그램은 2018년 진행된 총 36개 단위 교육프로그램으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V-1> 교육프로그램 유형별 분류

유형분류	일반교육	창업교육	창업지원교육	전문교육
현황	6	5	3	22

<표 IV-2> 교육프로그램 대상별 분류

대상분류	학생·교사	일반	창업희망자	사회적경제종사자
현황	4	2	8	22

교육프로그램 유형별 분류를 보면, 전체 교육 중 전문교육이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교육, 창업교육, 창업지원 순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 참여대상자 분류를 보면, 사회적경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창업희망자, 학생·교사, 일반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IV-1> 교육프로그램 유형별 분류

교육프로그램유형분류



<그림 IV-2> 교육프로그램 대상별 분류

교육프로그램 참여대상 분류



2014년 강원도사회적경제인재육성센터 교육체계개발을 위하여 진행되었던 교육관련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은 현실적용이 가능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업종 전문 교육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³⁾, 2018년 전문교육현황을 보면 현장의 욕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사회적경제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주된 목표로 진행된 전문교육은 총 22건으로 전문교육 교육프로그램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일반

3) 강원도사회적경제인재육성센터, 강원도사회적경제기업 교육체계개발사업 결과보고서, 2015년

실무교육이 6건으로 가장 많으며,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사업 설명회 형식의 교육, 컨설팅지원 연계 공통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업종관련한 전문교육 진행은 4건에 불과했다.

<표 IV-3> 전문교육프로그램 현황

번호	교육프로그램	대상자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조사교육	사회적경제종사자
2	마케팅전문가 양성과정	사회적경제종사자
3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역량강화 아카데미	사회적경제종사자
4	협동조합 정기총회 운영교육	사회적경제종사자
5	재정지원사업설명회	사회적경제종사자
6	마을기업 전문교육	사회적경제종사자
7	협동조합 경영공시교육	사회적경제종사자
8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설명회	사회적경제종사자
9	마을기업 HACCP 교육	사회적경제종사자
10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설명회	사회적경제종사자
11	국고보조금 e-나라도움 교육	사회적경제종사자
12	예비사회적기업대상 지식 재산권 교육	사회적경제종사자
13	사회적경제기업 전문실무능력 과정	사회적경제종사자
14	강원도 사회적기업가 워크숍	사회적경제종사자
15	전문MD연계컨설팅 공통교육	사회적경제종사자
16	공공시장진출 역량강화교육	사회적경제종사자
17	협동조합기초컨설팅 공통교육	사회적경제종사자
18	사회적기업대상 맞춤형컨설팅 공통교육	사회적경제종사자
19	마을기업컨설팅 공통교육	사회적경제종사자
20	성장단계별 맞춤형컨설팅 공통교육	사회적경제종사자
21	인사노무 역량강화교육	사회적경제종사자
22	나라장터입찰제안서 역량강화교육	사회적경제종사자

일반교육은 학생(대학생 포함)·교사 대상의 체인지메이커 교육과 일반인,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해 교육, 그리고 일반인 대상의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표 IV-4> 일반교육프로그램 현황

번호	교육프로그램	대상자
1	체인지메이커촉진자양성 교사연수	학생교사
2	체인지메이커 청소년캠프	학생교사
3	체인지메이커 대학트랙 운영	학생교사
4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해교육	일반
5	강릉원주대 사회적기업 특강	학생교사
6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설명회	일반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은 마을기업 설명회 및 설립전 교육,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설명회, 그리고 핸드메이드 창업아카데미가 진행되었다.

<표 IV-5> 창업교육프로그램 현황

번호	교육프로그램	대상자
1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설명회	창업희망자
2	마을기업 설명회	창업희망자
3	핸드메이드 창업아카데미	창업희망자
4	핸드메이드 성장아카데미	창업희망자
5	마을기업설립교육	창업희망자

창업지원교육은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에 참여하는 팀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 진행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강원도 사회적경제 교육의 문제점

2018년 강원도 사회적경제 교육현황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교육의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1) 일반 시민 인식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부족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속 가능하려면 사회적경제 가치에 공감하고 후원하는 주체로서의 시민양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사회적경제 역사가 짧고, 초중고 교육과정이나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저조하다.

2017년 고용노동부가 일반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일반시민의 47.3%가 사회적경제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40.2%도 들어본적은 있으나 무엇인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일반 경제교육의 경우 교과과정에 반영되어 대부분의 학생이 교육을 접할 수 있으나, 사회적경제는 소수의 학생들만 교육을 이수하고 있고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들도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⁴⁾

강원도의 경우에도, 2018년 일반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경제 인식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현황은 ‘사회적기업가 특강’,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설명회’ 2건이 진행되었으며, 체인지메이커 교육을 중심으로 학생·교사 대상의 교육이 3건 진행되었다.

지역 주민의 사회적경제 교육 접근성을 강화하고 초중고 교육과정 반영 등 학령기 대상 교육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2) 창업 교육의 부족 및 제한적 분야에서의 창업입문교육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교육 현황을 보면, 마을기업설립전 교육을 제외하면 핸드메이드 창업아카데미가 유일하며, 제한적 분야에서의 창업입문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유능하고 다양한 인재들이 사회적경제를 찾아오기 위해서 창업 입문과정이 다양하게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사업화 집중지원, 체계적인 성장 지원 등 창업기 이후 지속 성장에 필요한 인재육성 전략과 연계된 창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관계부처합동,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2018

(3) 리더·종사자 대상 맞춤형 전문교육 부족

앞서 언급한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교육체계개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강원도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경영교육의 중복성 및 교육프로그램 다양성 부족을 문제로 느끼고 있었다. 리더와 사회적경제기업 종사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전문교육 보다는 기초 소양수준의 교육이 반복적으로 제공되면서 교육효과가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업규모가 영세하여 교육참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종사자의 일부만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어 집체교육 형태가 아닌 사업장 맞춤형 교육형태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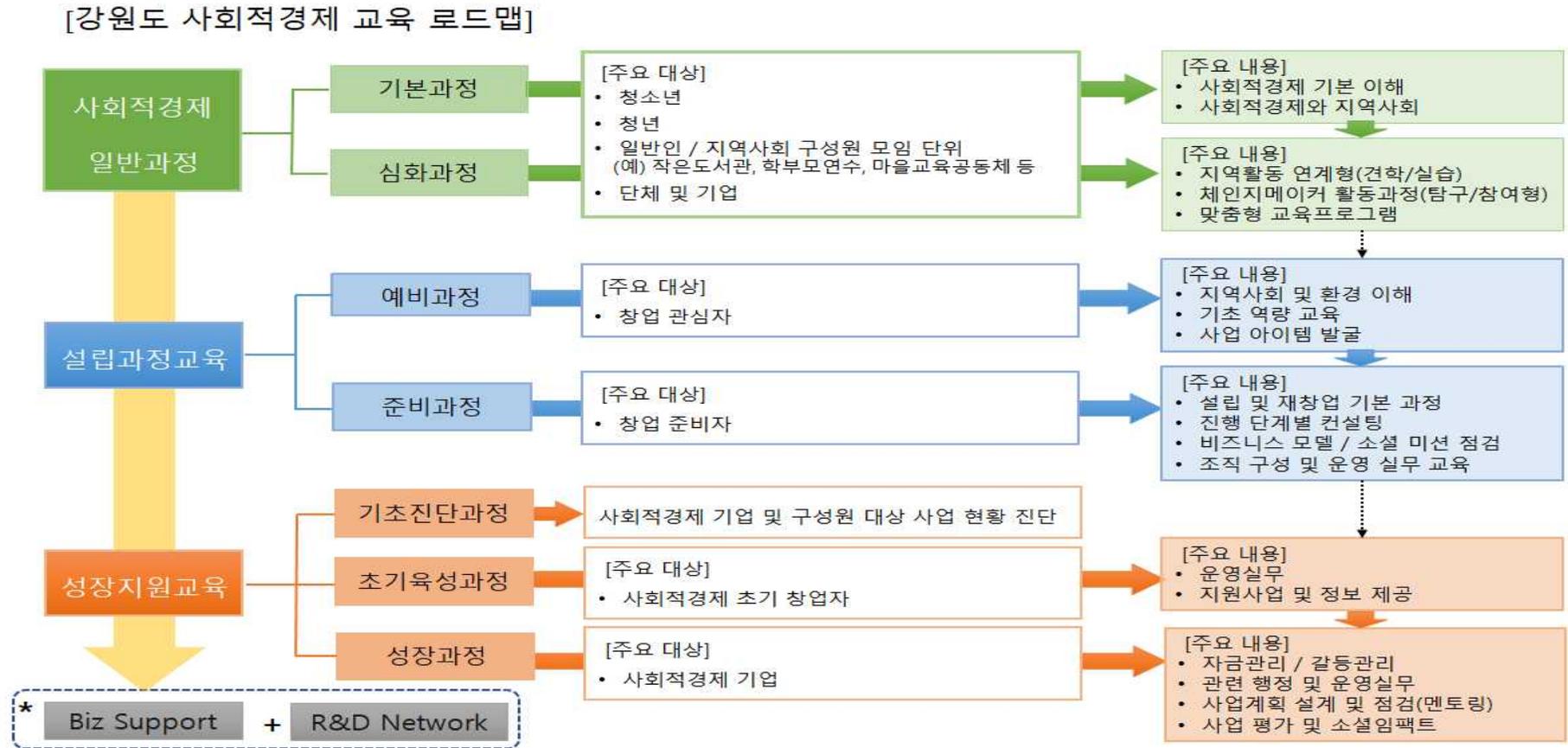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의 전문인력화와 사회적경제 내부 인력을 핵심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 편의성 제고 및 분야별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3. 강원도 사회적경제 교육 모델 제안

2018년, 협동조합 교육과나눔에서는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교육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사회적경제 인재유입 확대와 사회적 책임의식과 기업가 정신을 겸비한 리더육성,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강화를 목표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교육 로드맵”을 제시하였고, 다음에 제안하는 강원도 사회적경제 교육 모델은 로드맵에 근거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사례로 인용되는 교육예시 내용은 협동조합 교육과나눔이 자체 기획하여 진행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용되었다.

1) 강원도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교육 로드맵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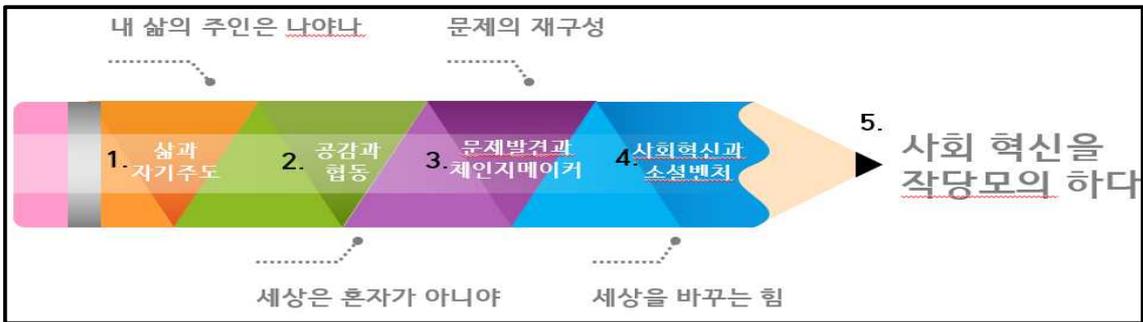
5) 협동조합 교육과나눔, 강원도 사회적경제 교육 로드맵, 2018

2) 사회적경제 일반과정 교육

사회적경제 일반과정은 초, 중, 고 학생들이 생활속에서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담고 있다.

2018년, 강원도교육청은 시범사업을 통하여 강원도청소년사회적경제교육체험네트워크6)에서 개발한 “유스 씨: 프로젝트(청소년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프로젝트)” 수업을 3개 고등학교에서 진행하였으며, 교육과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IV-3> 청소년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예시(유스 씨: 프로젝트)



차시	주제 및 세부내용	진행방법
1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트 오리엔테이션 서로 인사나누기(프리즘카드 활용) 키워드로 만나는 나, 감정으로 만나는 나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몸으로 느끼는 '공감과 협동' 	
2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가 궁금해요! - 사례를 통해 만나는 사회적경제이야기 내가 정의하는 사회적경제 	강의 실습
3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 운영 무엇이 다른가? 	강의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하는 보드게임 - 렛츠쿵 	
4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좋은 일에 대한 생각 정리하기 - 좋은 일을 찾아라~ 내가 좋아하는 일은? 	강의 실습

6) 협동조합 교육과나눔, 사회적협동조합 새움, 협동조합 이율이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사회적경제교육체험업종 네트워크

차시	주제 및 세부내용	진행방법
5회차	○기업가정신과 체인지메이커 - 체인지메이커 이해	강의 실습
	○공감에 기반한 문제찾기 / 팀빌딩	
6회차	○문제 깊이 들여다보기 - 진짜문제 정의하기 / 문제 원인찾기	강의 실습
7회차	○공감판 만들기 ○공감캠페인 진행 및 성찰하기	강의 실습
8회차	○솔루션 찾기 / 프로토타입 만들기 ○행동계획 수립하기	강의 실습
9회차	○체인지메이커 스토리 분석하기 실습	강의 실습
10회차	○똑!똑!똑! 사회혁신 - 사례를 통한 사회혁신 이해	강의
	○소셜벤처카드를 활용한 소셜벤처 리스트만들기	실습
11회차	○사회혁신 기업 들여다보기 - 춘천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 알아보기 - 춘천 사회적경제지도 그리기(썸맵)	강의 실습
12회차	○춘천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탐방하기(공동)	탐방
13회차	○춘천지역 사회적경제 기업가 특강 1 - 질의 응답 / 인터뷰지 작성	탐방
14회차	○춘천지역 사회적경제 기업가 특강 2 - 질의 응답 / 인터뷰지 작성	
15회차	○기업분석 보고회...내가 CEO라면... ○교육 마무리 / 소감나누기	실습

또한, 지역 주민의 사회적경제 상시학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내 평생 교육 기관 등 지역 단위 각종 교육기관에서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개설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반주민들의 사회적경제 인식개선과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활동과 연계한 현장·사례 중심의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효과적으로 주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구성되는 있는 작은 소모임(예를 들어, 작은도서관, 학부모모임, 마을교육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확산 방안도 필요하다.

아래 내용은 2018년 춘천시 시민의정부 준비위원회에서 정책과제로 정리한 내용으로 사회적경제 저변확대와 사회적경제 가치에 공감하고 후원하는 주체로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지역사회 교육모델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⁷⁾

<일상에 기반한 협동조합 시민교육 토대 구축>

□ 도입배경

- 협동과 호혜를 작동원리로 하는 협동조합 도시 구축을 위해 전생애적 평생교육 관점에서 협동에 기반한 문제해결 경험과 협동조합 교육 필요
-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사회적경제 가치에 공감하고 후원하는 주체로서의 시민양성 필요

□ 정책방향

- 전학령기(초등, 중·고등 및 대학)를 대상으로 한 협동조합 교육 확대
- 평생교육기관 등 교육기관 연계 협동조합 상시학습 지원
- 각급 공무원 교육과정에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개설·운영

□ 사업개요

- 사회적경제 교육 선도 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친화도시”지정 추진(2019년)
- **춘천형 협동조합 시민교육 모델 구축**
 - 추진목적 :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평생교육 관점에서 춘천형 교육모델 구축을 통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저변확대
 - 사업대상 : 청소년, 대학생 및 일반시민 전체
 - 사업기간 : 2019. 1월 ~ 2022. 12월
 - 사업내용
 - 초/중/고등학교 대상 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지원(현재 3개교 운영)
 -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활동기관 연계 체인지메이커 교육 등 청소년 교육과정 개설·운영 지원
 - 지역경제교육센터, 평생교육기관 등 지역단위 각종 교육기관 연계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개설·운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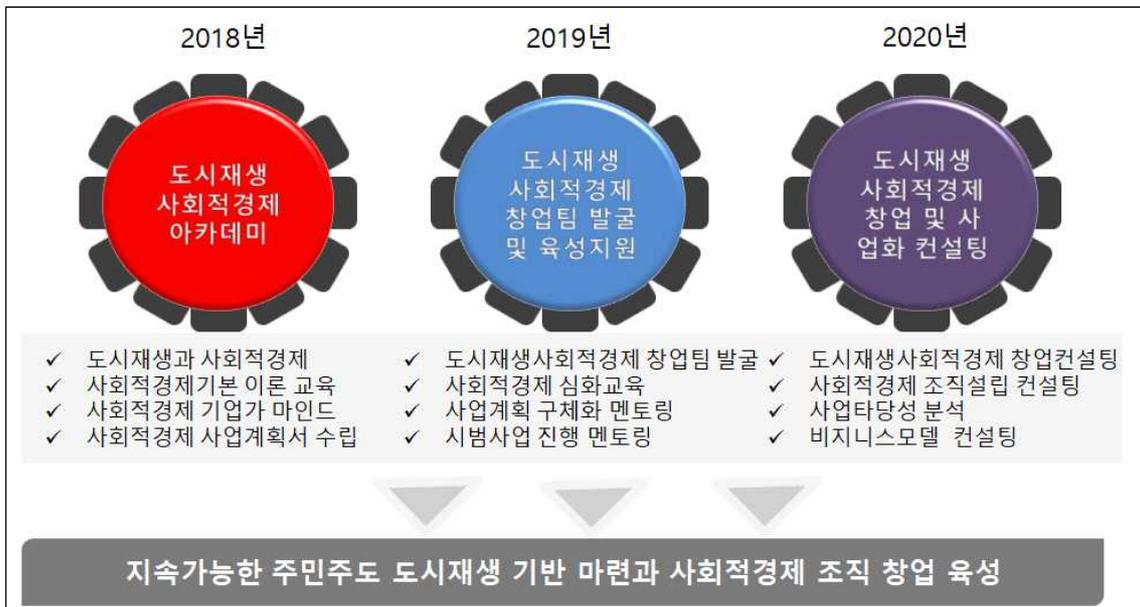
7) 춘천시 시민정부 준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18

3) 설립과정 교육

설립과정교육은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적경제로 유입되고, 전문가로 키워지는 과정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회적경제 창업입문과정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별(도시재생 등) 특화된 창업입문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 내용은 2018년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위탁운영한 ‘도시재생사회적경제아카데미’과정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IV-4> 맞춤형 특화 창업입문교육과정



* '도시재생사회적경제아카데미' 로드맵

또한, 창업 관심자와 창업 준비자를 구분하여 예비과정과 준비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창업 관심자들을 대상으로는 하는 예비과정은 지역사회문제해결 측면에서 사회적경제 창업의 아이디어 도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IV-6> 설립과정 교육 예시

예비과정	창업 관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및 환경이해 ○ 사회적경제 창업아이템 발굴
준비과정	창업 준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및 재창업 기본 과정 ○ 비즈니스 모델 / 소셜 미션 점검 ○ 조직 구성 및 운영 실무 교육

<표 IV-7> 창업 예비과정 예시 : 강원랜드 희망재단 사회적경제 창업티움과정⁸⁾

차시	주제 및 주요내용
1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강의 1: 사회적경제 창업아이디어 어디에서 오는가? -Act 1 : 우리 사업 가치 찾기 -Act 2 : 가치를 사업아이디어로 표현하기
2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강의 2 : 사업계획서 작성의 이해 -Act 3 : 내가가진 자원 찾기 -Act 4 : 조직 열개 정리하기 -Act 5 : 내부자원 분석하기
3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강의 3 : 시장조사 이해 -Act 6 : 최고의 상품을 기획하자
4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강의 : 마케팅 이해 -Act 7 :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자
5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강의 4 : 민주적인 조직운영이란 -Act 8 : 민주적인 조직운영 계획 수립하기 -Act 9 :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재정계획 작성하기
6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 : 사업계획 멘토링

4) 성장지원 교육

성장지원교육은 사회적 책임의식과 기업가 정신을 겸비한 리더 육성,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기업 성장단계별, 분야별 맞춤형 특화 교육 진행이 필요하다.

현장에 요구되는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해 경영분야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적경제기업 업종·분야·지역별 우수사례 공유 및 발전방안 토론, 중간관리자 간 네트워킹 구축도 필요하다.

또한, 지역내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지정 등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 전문교육 과정 및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8) 2018년 협동조합 교육과니눔이 강원랜드 희망재단으로부터 위탁운영한 교육과정임

<표 IV-8> 성장지원 교육 예시

기초진단과정	○ 사회적경제 기업 및 구성원 대상 사업현황 진단	
초기육성과정	사회적경제 초기 창업자	○ 운영실무 ○ 지원사업 및 정보 제공
성장과정	사회적경제 기업	○ 자금관리 / 갈등관리 ○ 관련 행정 및 운영실무 ○ 사업계획 설계 및 점검(멘토링) ○ 사업 평가 및 소셜임팩트

또한, 성장지원 교육은 일상적인 지원체계와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Biz Support는 정보 축적 및 공유, 전문가 풀 구성 및 제공을 주요기능을 수행하며, R&D 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 기업 리더와 종사자들이 지속적 연구와 학습활동에 참여하며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또는 권역단위 각종 사례 연구회 및 세미나 포럼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 Biz Support

[주요 기능]

- 정보 hub (축적 및 공유)
- 전문가 pool 구성 및 제공

[활용 방안]

- 1) 정보 제공 : 시장흐름, 환경 변화 등 관련 정보 제공
- 2) 컨설팅 지원 : 실행과정에 따른 요구 반영
- 3) 멘토링 지원 : 사업 계획 수립 및 자문 지원

R&D Network

[주요 기능]

- 지속적 연구와 학습활동 진행
- 자료 및 정보 체계화,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지역 기업 중심 사례 연구 및 공유 -> 일상적 사회적경제로 확산 촉진

[활용 방안]

- 1) 사례 연구회 진행
- 2) 세미나 / 포럼 등 활용 : 관련자 + 지역민 대상

4. 소결

본 글은 어떻게 하면 강원도 사회적경제가 확산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을 “사람”을 키워갈 수 있는 교육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하였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을 위한 사회적경제교육모델은 초, 중, 고 학생들과 일반시민들이 생활속에서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일반교육과정과 다양한 인재들이 사회적경제로 유입되고 전문가로 키워질 수 있는 설립과정 교육, 기업 성장단계별·분야별 맞춤형 특화교육을 위한 성장지원교육의 3단계로 교육 로드맵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강원도 사회적경제 교육모델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 위해서 중간지원기관, 민간 교육기관, 당사자조직 등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며 이 글을 맺는다.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2018),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2018), “사회적경제 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조성
사업실적보고서”

협동조합 교육과나눔(2018), “강원도 사회적경제교육 로드맵”

춘천시(2018), “행복한 시민정부 준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강원도사회적경제인재육성센터(2015),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교육체계개발
사업 결과보고서”

<붙임 :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재양성 프로그램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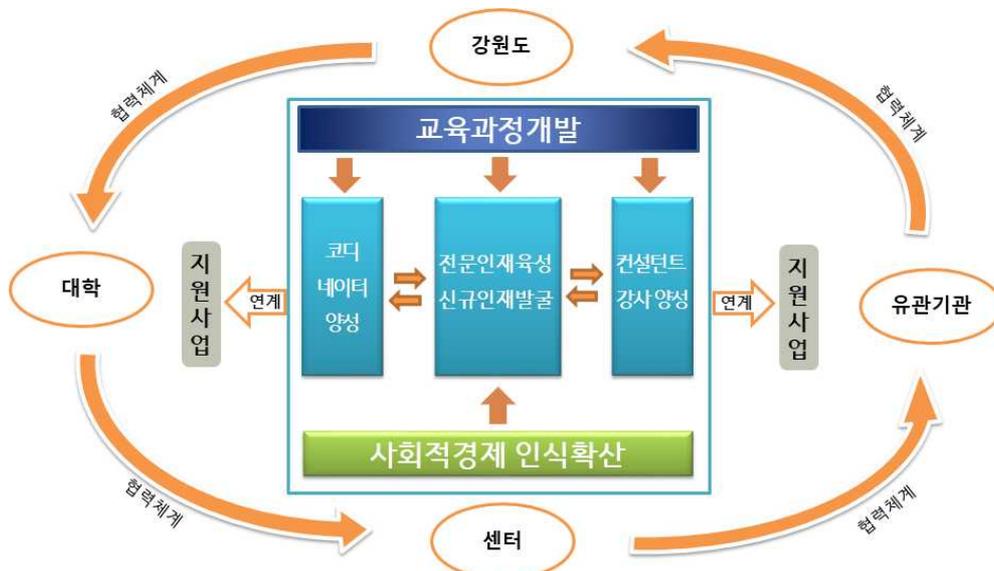
2019년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프로그램 자원 계획

- 강원도 사회적경제 교육 및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 발굴
- 사회적경제 인재 발굴 및 육성을 통한 도내 사회적경제 전문성 강화

I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 주요사업
 1. 사회적경제 교육기획단 운영
 2. 사회적경제 전문강사 양성과정
 3. 사회적경제 지역혁신 활동가 양성과정
 4. 사회적경제 성장유망 분야 전문가 양성과정
 5.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강화 아카데미

II 사업추진 체계



III 세부사업 계획

1. 사회적경제 교육기획단 운영

사회적경제 영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사람을 키우는 교육의 중요성도 크게 부각되었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 인재육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교육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역 사회적경제 현장의 특성과 현황이 반영된 교육 과정 연구가 요구되었다.

사회적경제 교육기획단은 강원도 사회적경제 교육 전문성 강화 및 인재육성 환경 조성을 위한 조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다. 강원도형 사회적경제 교육 과정 및 교(보)재 개발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역할도 일부 수행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강원도형 사회적경제 교육이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사업개요

- 기획단구성: 7인 내외(사회적경제 교육 전문가 5, 센터 2)
- 자문단구성: 5인 내외(외부 전문가 위촉)
- 내 용
 - 강원도형 사회적경제 교육 과정 개발
 - 강원도형 사회적경제 교(보)재 개발
 - 강원도형 사회적경제 교육 자문

2. 사회적경제 전문강사 양성과정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은 사회적경제 가치에 공감하고 후원하는 주체로서의 시민 양성에 기반한다. 그러나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사회적경제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및 이해가 저조하다. 이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전문강사를 육성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사회적경제 이해와 실습 프로젝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1)사회적경제 체인지메이커 과정, 사회적가치에 기반한 종합상담이 가능한 2)사회적경제 컨설턴트 과정, 사회적금융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핵심이슈를 연구하여 현장 밀착 지원을 수행하는 3)사회적경제 코디네이터 과정으로 나뉜다.

사회적경제 전문강사는 스스로가 사회적경제 가치에 공감하고 후원하는 주체임과 동시에, 교육을 통해 시민 단위 지지기반을 구성하는 핵심주체가 된다. 나아가 사회적경제 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경제 교육의 풍부한 사례와 경험, 인력풀을 바탕으로 강원도 사회적경제 교육·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내 사회적경제 인식 개선 및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자 한다.

□ 사업개요

- 대상: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및 교육 운영 희망자
- 사업내용: 사회적경제 전문강사 양성(3개 과정)
- 교육내용(안)

과정	1.사회적경제 체인지메이커	2.사회적경제 컨설턴트	3.사회적경제 코디네이터
대상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및 교육 운영 희망자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방식	강의식 학습법(시연을 통해 배운 내용을 가르치며 학습하는 방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이해 - 체인지메이커와 사회혁신 - 체인지메이커 과정 실습 - 체인지메이커 실전 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기업 유형별 인증절차, 지원사업 이해 - 소셜미션 수립 - SE 비즈니스 모델 - 커뮤니티케이션 스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금융과 지원 모델 - 사회적경제 진로설계 -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별 연계방안 모색 ※ 타사업 연계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강사풀 구축 - 사회적경제 교육시 강사 위촉 		

3. 사회적경제 지역혁신 활동가 양성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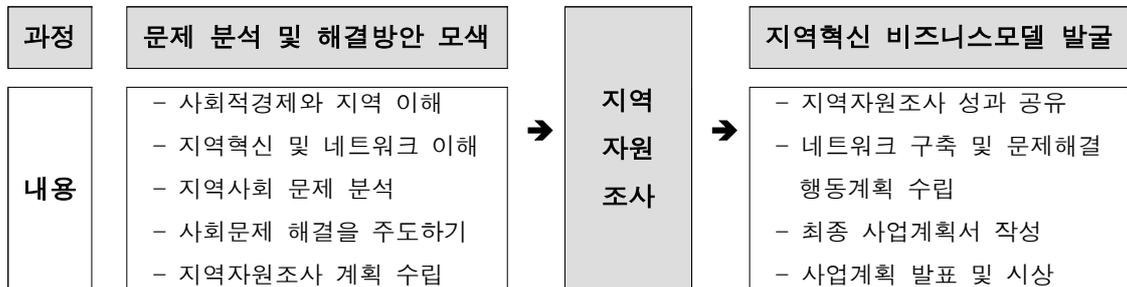
사회적경제의 지역화 전략이란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고 대안적 지역발전모델을 확산하는 활동들을 일컫는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한다.

사회적경제 지역화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이 지역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주민은 지역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지역발전모델 수립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주민 스스로 사회적경제 지역혁신 활동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회적경제 지역혁신 활동가 양성과정은 지역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의제 발굴 및 문제해결 전략 수립, 지역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혁신 주체를 육성하고 지역혁신 비즈니스모델 발굴한다. 나아가 지역혁신 비즈니스모델을 현장에서 적용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 사업개요

- 대 상: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희망자(창업 1년미만 포함)
- 내 용(안)
 - 사회적경제 이해를 통한 지역혁신 주체(지역주민) 발굴
 -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혁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
- 교육내용(안)



- 사후관리
 - 센터 사업화 지원사업 연계(교육 성과에 따라 가점 차등 부여)

4. 사회적경제 성장 유망 분야 전문가 양성과정

강원도에서 우려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지방소멸이다. 주요원인으로 저출생과 청년층 유출을 꼽는데, 이것은 결혼과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뜻한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 유출을 더욱 심각하다. 언어병리학의 경우 도내 2개 대학교에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나 졸업생들이 지역에 남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는 강원도내 사회서비스 부족 및 지역적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지역 정주 여건 중 중요한 요소인 환경 분야 역시 쓰레기 수출, 미세먼지 등의 이슈들이 부각되며 전세계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강원도 내 대응은 미비한 상황이다.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18.7.3, 정부 종합부처)에 따르면 청년 사회적경제인 양성의 일환으로 교육·돌봄·환경 등 지역 내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경험 및 소득을 지원하는 계획이 있다. 지역사회 내 현안 문제점·수요에 대응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이다. 강원도는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두루바른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우수사례로 꼽히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곳곳에 환경 분야(청소, 위생 등) 사회적경제 기업이 분포해있다. 정부의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과 발맞춰 강원도내 사회적경제 성장 유망 분야에 대한 육성이 필요한 때이다.

사회적경제 성장 유망 분야 전문가 양성과정은 강원도 내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사회서비스·환경)를 중심으로 핵심인재를 발굴·육성한다. 더불어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동기반 마련을 위해 맞춤형 프로젝트 및 사회적경제 취·창업 코디네이팅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강원도 내 다양한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 사업개요

- 대 상: 도내 사회서비스·환경 분야 실무자
- 내 용(안)
 - 성장 유망 분야 핵심인재 발굴 및 육성
 - 성장 유망 분야 맞춤형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전략 사업 모색

○ 교육내용(안)

과 정 명	사회적경제 사회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	사회적경제 환경 전문가 양성과정
대 상	도내 사회서비스(사회복지, 돌봄 등) 실무자	도내 환경 분야(기후, 환경보호 등) 실무자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와 사회적경제 - 사회혁신기업가 정신의 이해 - 사회서비스를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 방안 - 사회서비스 분야 취·창업 코디네이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사례 분석 - 사회적경제의 이해 - 환경 문제 해결 프로젝트(체인지메이커) -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네트워킹

5.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강화 아카데미

그동안 사회적경제 인재육성의 초점은 창업가 발굴·육성에 맞춰져있었다. 사회적경제 기업을 창업하고 이끌어갈 리더 발굴·육성에 집중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사회적경제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는 비교적 소홀했다. 업종별로 다양한 직무역량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전문교육은 부족했다. 특히 신규입사자들이 동료들과 소통하며 사회적경제인으로서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는 전무했다. 리더십이 중요한만큼 리더를 따르는 조직원들의 역량, 즉 팔로우십도 중요하다.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강화 아카데미는 1)새싹 단계와 2)열매 단계로 구분되며 사회적경제 경력과 담당 업무분야에 따라 맞춤형 교육 및 동료공동체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함께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이를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사업개요

- 교육 명: 사회적경제 가치성장 아카데미
- 대 상: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 종사자(강원JOBS 일경험 참여자 포함)
- 교육내용(안)

과 정	1.새싹 단계	2.열매 단계
대 상	20명, 사회적경제 경력 2년 미만	20명, 사회적경제 경력 2년 이상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 이해 - 자아·진로 탐색 - 필수기초역량강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학습동아리 구축 - 종사자 담당 업무별 소규모 팀티칭 - 사회적경제 종사자 네트워크 구축
동료 공동체 구성 네트워킹(타사업 연계)		

V.

강원도 여성 사회적경제 취업 및 창업 활성화 방안

1. 여는 말
2. 경력단절여성 대상 경력이음 지원 현황
3. 사회적경제와 여성일자리
4. 주요 사업 모델과 활성화 방안 탐색
5. 강원여성 JOBS 활성화 방안
6. 맺는말

V. 강원도 여성 사회적경제 취업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여성JOBS 모델 제안 -

김윤정¹⁾

1. 여는 말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 가운데 특히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인구변화가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에는 ‘인구소멸’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으로 이는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내수부진, 경제성장률 저하, 노령인구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대안 마련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일자리의 형태 또한 기술, 환경의 빠른 변화로 기존의 일자리 구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 구조 또한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중앙에서 지방 중심, 대규모에서 소규모 지역경제 기반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실질 인력 매칭으로 전환의 필요성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노동시장은 노동력의 유연화에 따른 고용불안정성 증가와 ‘고용 없는 성장’ 시대의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취업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청년일자리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여성의 취업은 남성에 비해 어렵고,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숙련, 저임금 직종으로 몰리고 있는 추세이다(허목화 외, 2017).

향후 전체 인구에서 미래 청장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할 것을 고려해볼 때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여성인력이 얼마나 빨리 보완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동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반가운, 2014).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재진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회적경제 분야로의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적경제 분

1) (주)나비 부설 연구소장

야의 조직들이 지역에 기반한 소규모 창업이나 일자리 제공형으로 운영되는 특성이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진입에 적합할 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취업 혹은 창업이라는 진입과정에 대한 준비가 지역별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강원도의 여성창업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양성평등기본조례」 제11조에 “도지사는 여성의 취업 • 창업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에는 17개소의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강원도와 가톨릭관동대학교를 창업선도대학으로 청년창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여성창업보육센터는 춘천에 소재한 강원여성창업보육센터 단 1곳에 불과하며, 아직 시작 단계로 볼 수 있다.

각 지역별 상황이나 보유 인프라가 상이한 만큼 경력재개를 희망하는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의 지원모델과 협력체계가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단순한 일자리와 창업 지원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엔 다양한 영향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력과 경험의 유무와 더불어 휴직기간이나 사회참여의 요인 정도,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탐색의 시간, 자존감의 회복, 가정과 육아문제의 균형관계 등이 여성의 사회진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단계별, 유형별, 또는 분야별 맞춤형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함이 과제로 제기된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 관점에서 여성들의 경험과 강점이 특화될 수 있는 분야별 직무와 창업모델의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사회에서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감안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의 여성인재 발굴과 여성친화모델의 강점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들이 우수한 학력 수준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이유로 경력단절을 겪고 있으며, 이는 높은 성별 임금격차 지속, 비정규직 증가 등 여성 고용의 질적인 수준을 저하시키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제도 · 문화적인 개선을 통하여 여성인력이 활약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양서영, 2018)

2) 경력단절로 인한 여성 일자리의 문제와 현황

우리나라에서 ‘경력 단절’이라 이야기되는 여성 일자리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20~30대 여성의 경력단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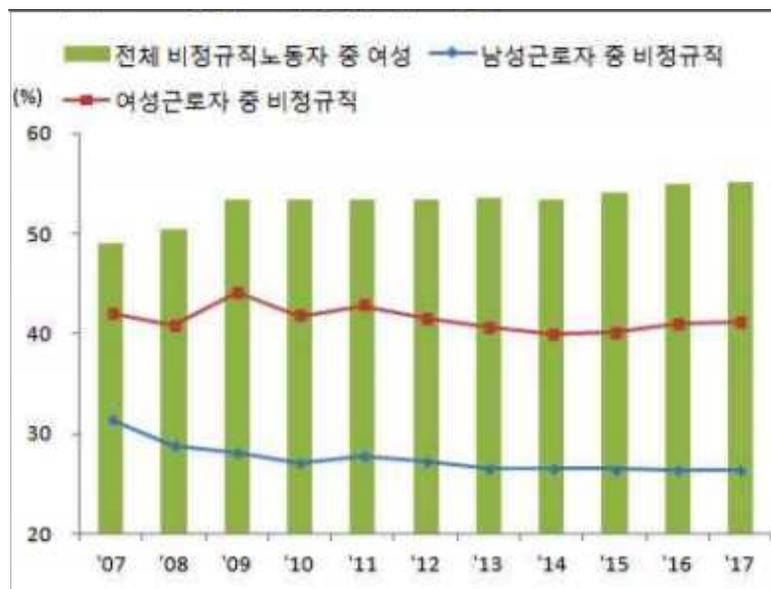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재취업까지의 기간이 평균 8.4년으로 매우 긴 편으로 조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세진, 2017).

2016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 두게 된 경력단절 여성은 190만 6000여명이었으며, 특히 30대 여성이 101만 명으로 전체의 53.1%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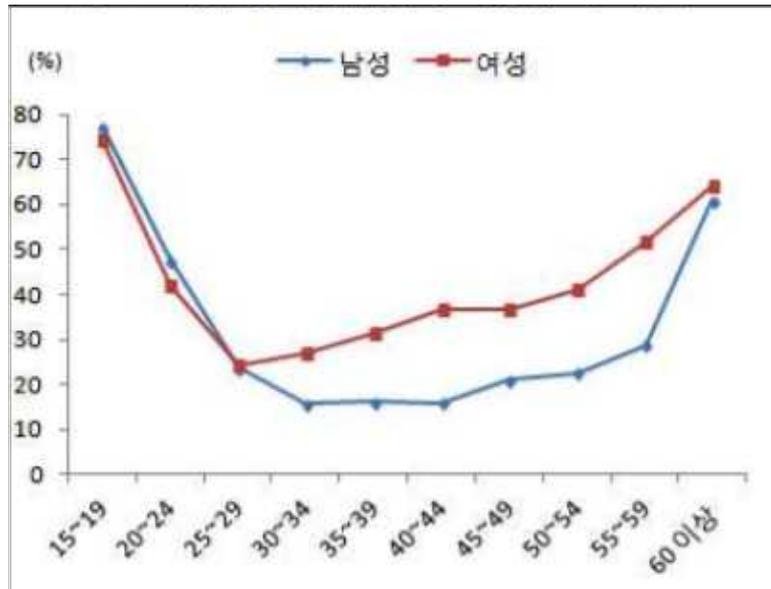
여성들의 경력단절기간이 길어질수록 직무에 대한 숙련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채용을 기피하거나, 취업희망자의 입장에서조차 자신감과 직무능력의 부족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직면하는 상황이다. 혹은 재취업에 성공을 하더라도 일자리의 수준이나 임금의 보상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여성들의 높은 학력수준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여성의 고용 현실은 개인의 성장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근로자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인 점 역시 여성 고용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여성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17년 41%로 남성 26.4%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임금격차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비율도 연령대별로 차이가 큰데, 남성의 경우 20대와 60대 이상에서만 높게 나타나는 반면, 여성은 25~29세를 저점으로 하여 그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는 경력단절이 발생한 후 상당수의 여성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로 고용시장에 복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양서영, 2018)

<그림 V-1> 성별 비정규직 비율



<그림 V-2> 성별·연령 계층별 비정규직 비율



*출처 : 2017 통계청 자료, 양서영(2018)에서 재인용.

3)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과 대안 탐색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결혼과 출산, 육아의 시점에서 여성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사회구조적인 상황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가정과 직장생활의 병행이 가능한 ‘육아시스템’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며, 양적 기반보다는 질적 측면의 만족도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특성이 있다. 돌봄서비스의 체계화와 남성육아휴직의 활성화, 유연한 근로시간과 근로방법 등의 여성친화적인 근로문화의 정착 환경이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과제로 제기된다.

정부가 2000년대 중반부터 여성 고용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가정 양립제도들을 확충한 결과 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의 제도 활용 미진, 경직적인 직장문화 및 과도한 업무량, 제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활용에 많은 한계를 보인다. 특히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하여 필수적인 제도인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증가하였지만 휴직 후 직장에 계속 근무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다. 출산휴가만 사용한 경우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직장 유지율이 낮고, 육아휴직을 1년 이상 사용 후 직장을 6개월 이상 유

지할 확률은 44.5%에 머문다. 이는 여성에게 부과된 육아부담 및 복귀 후 근무환경 적응이 어려운 점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윤정혜, 2015).

<표 V-1> 주요 일-가정 양립제도와 한계

목표	제도	한계
모성보호 강화	전일제 육아휴직	·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율(40%)이 낮음 · 대체인력 채용부담 및 고용불안정성 등으로 인하여 비정규직·중소기업 제도활용 미진 · 육아휴직 후 직장 지속 근무 비율 저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부분이 전일제 휴직을 선택하여 활용도 저조
	남성육아휴직 아빠휴직 보너스제	· 남성의 육아휴직 문화 미성숙 (남성 36.8% 육아휴직 활용 시 승진 등 경쟁에서 뒤쳐질 우려)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 조성	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 장시간·경직적인 근로문화 만연 ·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인건비부담 및 도입 절차상의 어려움
보육 지원	국공립 및 직장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요대비 공급 매우 부족 · 중소기업 비용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어려움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	· 인센티브 부족, 형식적인 성과평가

* 출처 : 국회('09), "일·가정 양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부('15),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대책" 재구성 자료. 양서영(2018)에서 재인용.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부족한 현실도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기혼여성의 취업중단 사유 중 1위는 믿고 맡길 보육시설 부족(43.0%)으로 나타났고, 미취학자녀에 대한 육아는 경력단절의 가장 큰 사유로 꼽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2017년 6월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수 28만 명(머니투데이 2017. 12. 15일자) 전체 어린이집의 89%가 민간에 의존하고 있어 공영시설 비중이 30%이상인 선진국에 비하여 공립 비중이 낮다. 직장어린이집은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설치와 운영에 소극적이며 대기업도 위탁보육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맞벌이 가정 가운데 아이를 돌봐줄 친인척이 없는 경우, 민간 베이비시터나 공공서비스인 아이돌보미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돌봄 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민간 베이비시터의 경우 기초적인 교육도 실시하지 않는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으로 질적인 측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김소영 외, 2013)

2. 경력단절여성 대상 경력이음 지원 현황

1) 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활성화 지원

■ 여성가족친화 (예비)사회적기업 아이디어 공모 및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사례

여성가족부는 2014년부터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일·생활 균형 확대’, ‘여성 안전 증대 및 범죄예방’,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및 다문화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음(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표 V-2> 수상팀 사업 아이디어 및 모델

사업(팀)명	주요 사업 내용
위드위터	사라져가는 대중목욕탕을 이용하여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힐링 장소를 마련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수증재활운동사로 양성
행복한학교 희망교육 협동조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돌봄학교 위탁운영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취·창업 기회를 제공
가사두레	아파트 주민 간 오투오(O2O, online to offline) 웹사이트 플랫폼을 이용하여 가사서비스, 육아 돌봄을 연계 하는 사업 아이디어
에듀알(R)컬처	경력단절 결혼이주여성을 외국어 강사로 육성 하여 온·오프라인 외국어회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디어
퍼플레이컴퍼니	영화계 성불평등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성영화 어플리케이션 운영, 여성영화 상영회 개최 등의 아이디어
나나토리	학교에서의 따돌림 문제 해결을 위해 55세 이상 여성을 전문상담가로 채용하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형 교육 실시

*출처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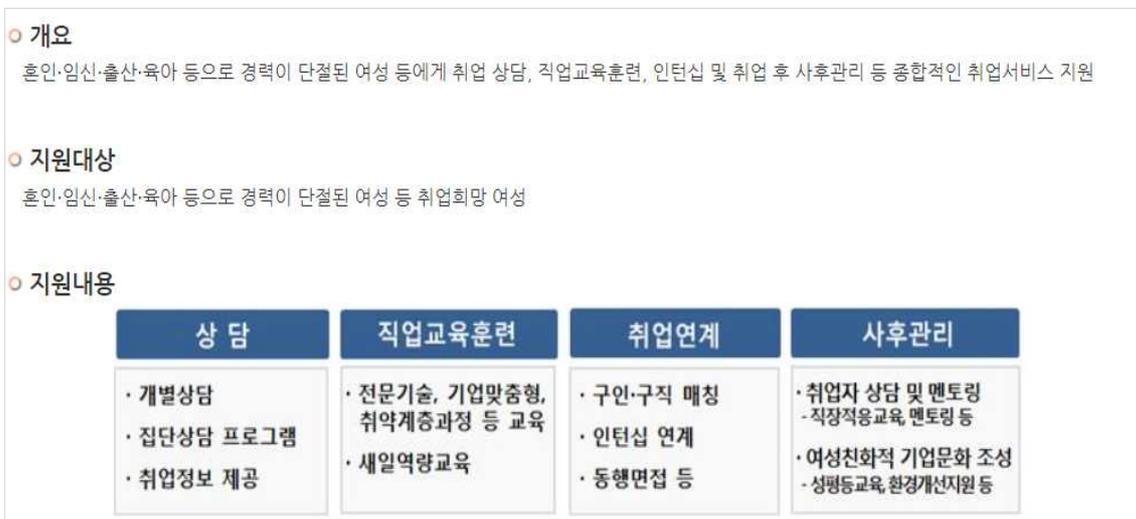
다양한 여성가족형 사업 모델에 대한 발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나,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도 안착할 수 있도록 연계기관과의 협업기반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실행 아이디어가 지역상황에 따라 이식, 확장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성장방향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지원 체계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새일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일센터는 장기간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던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새일여성인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새일여성인턴제도는 새일센터를 통해 인턴을 연계 받은 기업에 인턴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3개월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 시 기업체와 인턴에게 각각 취업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림 V-3>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과정



*출처 : <https://saeil.mogef.go.kr>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관련 부처, 지자체, 지역별 새일센터 간의 업무 추진체계를 갖추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황은 다음 <그림 V-4>, <그림 V-5>와 같다.

<그림 V-4> 경력단절예방 주요 사업 내용



*출처 : <https://saeil.mogef.go.kr>

<그림 V-5> 경력단절예방의 추진 체계



*출처 : <https://saeil.mogef.go.kr>

또한 온라인 기반으로 ‘꿈날개’라고 하는 온라인경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력개발형과 취·창업준비형에 따라 대상별 「진단-경력개발 계획수립-경력개발 및 취/창업준비-취업지원-사후관리」의 과정으로 지속적인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기관의 통합 솔루션의 정보연계가 실제 지역별로 격차가 존재하며, 상담과 코칭의 서비스가 현장에서 제공되지 못하는 지역들도 있어 실제 생활하는 지역에서의 연계는 지역기반의 모델로 실행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V-6> 온라인경력개발센터(꿈날개) 운영 체계



*출처: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sp/geq/sp_geq_f013.do

3) 춘천시 경력이음 지원 현황

■ 춘천YWCA 산하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1960년대부터 춘천지역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자립을 위해 여성직업개발사업을 진행해왔다. 강원도가 지원하고 춘천YWCA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사업, 여성 고충상담 및 각종 여성관련 후생복지, 문화활동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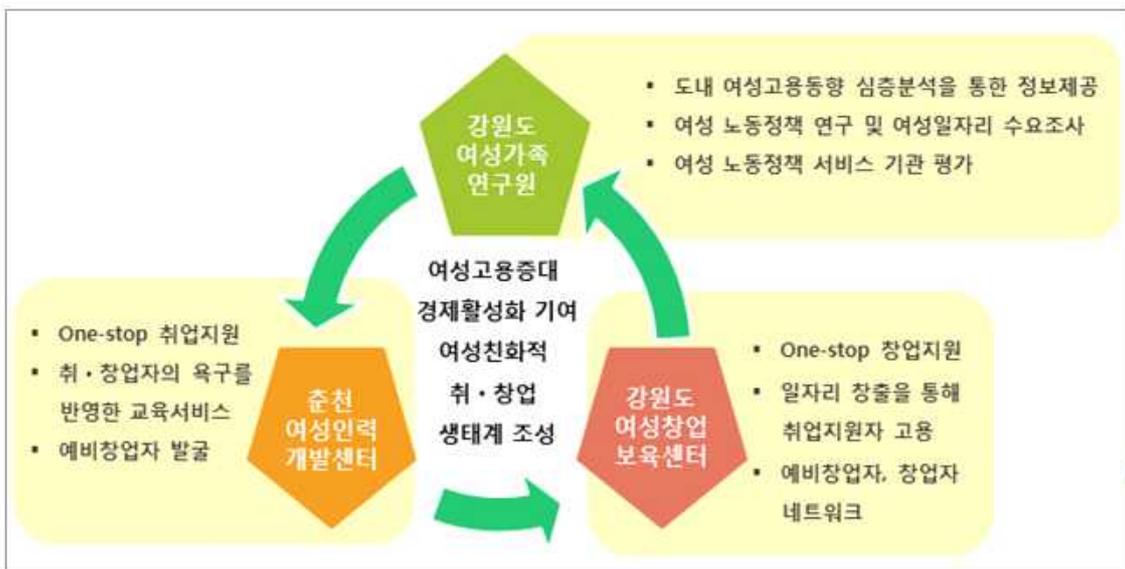
<표 V-3>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주요 활동 및 사업 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지원 사업	전문 직종훈련	각종 후생복지 사회문화활동 지원 사업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재직자&실업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사업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 국비지원훈련	주부인턴제사업 새일인턴제사업 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운영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진로상담 및 취업알선	자격증 취득과정 취업 및 창업과정 지도사 과정 정보화과정	취미와 교양을 위한 각종 사회문화 프로 그램 운영 여성동아리 활동지원, 봉사활동 등

*출처 : <http://www.ccwomen.or.kr> 바탕으로 구성.

허목화·서영주(2017)의 연구에서는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과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창업보육센터의 사업 기능들을 연계하여, ‘연구기관-교육기관-창업보육기관’이 공간적으로 모여 있다는 특성을 살려 여성의 취·창업 관련 공공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의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림 V-7> 춘천 소재 여성 취·창업 지원 기관의 역할과 협력 모델



*출처 : 허목화·서영주(2017), 강원도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방안 모색, p.65.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및 미취업 여성들을 위해 집단상담에서부터 직업교육훈련, 취업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교육과 취업연계 등을 통해 협동조합이나 창업으로의 연계 지원도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V-8> 춘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구성 내용



*출처 : <http://www.ccwomen.or.kr>

■ 강원도 창업보육센터

강원도에서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신규창업자의 보육으로 창업을 촉진하며, 센터별 특화업종의 차별화된 보육을 통한 다종의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도내 운영기관은 2018년 현재 총 19개소(춘천5, 원주5, 강릉5, 동해1, 태백1, 삼척1, 고

성1)로 입주대상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미만 중소기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여성기업이나 여성창업을 위한 지원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중 여성창업보육센터는 춘천의 1개소에 불과하다. 주요 지원 사항은 창업보육실 및 사무집기, 장비 등 시설지원과 경영, 기술, 마케팅, 회계, 특허등록 등의 비용 일부가 지원된다.

<표 V-4> 춘천소재 창업보육센터 현황

운영기관명	센터명	특화분야
강원대학교	강원창업보육센터	IT, 기계, 환경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강원센터	강원여성창업보육센터	IT, 웹 디자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바이오
한림대학교	한림창업보육센터	IT, BT
한림성심대학교	춘천창업보육센터	IT, CT, 멀티미디어

*출처 : 강원도(<http://www.igcs.co.kr>), 2018. 12월 기준.

춘천의 경우, 여성의 경력이음을 위한 전문지원기관과 창업보육센터 등이 있다는 지역의 장점은 있으나 연구와 정책, 현장연계를 바탕으로 한 지자체 및 관련기관 간의 협력 모델 확산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3. 사회적경제와 여성일자리

1) 사회적경제의 주요 개념과 유형별 현황

■ 사회적경제의 개념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 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사회적경제란 통상적으로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사람 중심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사회적경제는 18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상호부조조합, 커

뮤니티 비즈니스 등의 형태로 등장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 농민협동조합과 도시 빈곤층들의 두레조합의 형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1960년대 시작된 신탁운동, 1980년대 생협운동,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화된 실업문제, 고용불안, 심화되는 빈부 격차, 쇠락하는 지역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의 측면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http://www.gsef2014.org>).

유럽 사회적기업연구 네트워크인 EMES 드푸리니*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를 설명하는 방법은 크게 조직의 성격과 운영 원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직의 성격으로는 협동조합(co-operatives), 공제조합(mutual societies), 결사체(associations), 재단(foundations) 등이 사회적 경제에 해당한다고 했다. 주요 운영 원칙으로는 ①이윤보다는 구성원이나 지역사회 이익을 위한 활동이 우선적 목표, ② 독립적 운영, ③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④ 자본보다는 인간과 노동을 먼저 고려한 소득 배분이 주요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Defourny, 2004).²⁾

사회적경제는 정부, 민간, 시민사회라는 이해관계자 영역 중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각각의 영역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장용석 외, 2015).

<그림 V-9>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주체



*출처 : 정태인 <사회경제론-공동체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에서 발취
한겨레21(803호) <http://h21.hani.co.kr>에서 재인용.

2) Jacques Defourny : 벨기에 리에쥬대학 교수, EMES(European Research Network) 대표

■ 사회적경제의 주요 특성(여성가족부, 2013 pp.19-23 바탕으로 정리)

<표 V-5> 우리나라 주요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및 유형

조직유형 (중앙부처)	정 의	현황	유형
인증 및 예비 사회적 기업 (고용 노동부 등)	<p>인증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일정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p> <p>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p> <p>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p>	<p>2016년 기준, 1,713개소 (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시 2,821개소)</p> <p>고 용 인 원 39,195명 (사업보고서 기준)</p>	일 자리 제 공 유형이 70% 차지
협동조합 (기획재정부)	<p>일반협동조합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 기본법)</p> <p>사회적협동조합 : 위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p>	<p>2016년 기준, 10,640개소</p> <p>고용인원 29,861명 (추정)</p>	<p>일반협동조합 :사업자 협동 조합이 전 체 75%차지</p> <p>사회적 협동조합 :지역문제 해결 목적형이 전체 40% 차지</p>
마을기업 (행정자치부)	<p>"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행정자치부, 2017:1)</p>	<p>2016년 기준, 1,446개소 고용인원 16,101명</p>	지역농산물 가 공·판매업종이 58%차지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p>"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보건복지부, 2017:14)</p>	<p>2016년 기준, 1,149개소 참여인원 7,629명</p>	5 대 표 준 화 사 업 중 청 소 소 득 이 21% 차지

*주 : 표 내용에서 따로 참고문헌을 적지하지 않은 자료는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합동(2017: 6~7)의 자료를 재인용 함.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하는 경제 행위를 통해 자본주의 상품 경제에 대한 대안을 찾는다. 자본주의 상품 경제가 추구하는 것이 이윤인 반면, 사회적경제는 타인 또는 공동체를 먼저 고려하여 인간과 더 나은 사회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경제 행위를 통해 일상에서 꾸준히 확대시켜 나갈 기회를 만들어간다.

문제를 느끼는 당사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자주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이다. 사회적경제는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해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조직화하는 과정으로 민주주의의 기반과 직결되는 의미를 지닌다.

사회적경제는 주로 지역사회에 기반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생산과 판매, 고용이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 결과물이 지역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노동의 참여를 중요시한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노동자들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점으로 국한된 것에 반해 사회적경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참여를 중요시 여겨 이들이 주체가 되도록 한다.

국가와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서의 적극적 역할을 사회적경제가 수행하면서 시민사회의 대안을 재구성할 수 있다. 현재 국가와 시장의 실패가 거론되는 부분에서 사회적경제는 문제해결의 기제를 통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이 함께 논의되어지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기인한다(김정원, 2012).

또한 사회적경제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지역사회에 기반하는 사회적경제의 특성이 회사와 지역사회로 일터와 삶터가 분리된 자본주의 현실에서 주로 삶터(지역사회)에 기반하는 여성의 역할을 주목하게 한다. 돌봄서비스 등의 여성 강점 영역의 사업이 가능하며, 여성 노동력의 주요한 진입과 여성 리더로의 성장도 기대해볼 수 있다.

2) 여성친화적 사회적경제 조직 모형 연구

여성가족부(2013)의 연구에서는 여성친화적 사회적경제 모델을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연구하여 여성가족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V-6> 여성친화적 사회적경제 조직모형 요약

구분	여성친화적 사회적경제 모델	기존 사회적경제 모델	사회적경제조직 유형	사 례	특 징	여성부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A형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예비 사회적기업	(주)한신플러스케어	아동 정서심리서비스 여성 전문 인력 활용 및 고용증진	고학력 전문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B형	전문적돌봄 서비스형	전문적 돌봄서비스형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주)나눔과 돌봄 도우누리(사회적협동조합) (주)온케어	경력단절 여성 전문 돌봄서비스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여성
C형	여성친화적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마을기업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와 마을기업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	다문화여성, 농촌여성, 고령여성 등
D형	여성 공동 창업과 청소년 자립형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	오가니제이션 요리 (오요리)	'하자센터'의 청소년 및 다문화 가정 여성 중심 셰프 교육과 요리레스토랑 문화예술기업	청소년, 다문화 여성, 예비창업여성 등
			사회적협동조합	노리단 도봉구 경력단절여성 봉제협동조합 (감 좋은 공방)	여성 사회참여형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출처 : 여성가족부(2013, p.151).

<표 V-6>과 같이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한 고학력 전문여성에서부터 다문화여성, 농촌여성, 고령여성, 예비창업여성에 이르기까지 각 유형별 사례가 지역별 특성과 현황을 바탕으로 연결지점을 찾는 데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하지만, 유형에 따라 돌봄서비스 사업들의 경우에는 시장이 구성된 영역에서 자생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가격지거나 정부 보조금을 통한 서비스 비용 보전 등의 기초적인 시장 수요 형성에 대한 국가재정의 역할 또한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이재원, 2011).

이와 같은 여성친화형 사회적경제조직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에 대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과제 또한 내포하고 있다.

3) 강원도 사회적경제의 여성친화성 관련 연구 결과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2017)의 보고서에서 분석된 강원도 사회적기업의 특성 및 여성친화성에 대한 결과를 참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강원도 사회적기업의 여성 근로자 현황

18개 시,군 중 양구를 제외한 17개 지역에 86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원주(18개소), 속초(15개소), 춘천과 강릉(각 9개소) 등 일부 시 지역에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강원도 사회적기업의 대표자는 남성이 70.9%, 여성이 29.1%로 여성대표자 비중이 강원도 전체 사회적기업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기업의 대표자 성비가 남성에게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5년 12월 말 기준, 강원도 소재 사회적기업 근로자는 총 2,164명으로 정선이 931명의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원주(278명), 춘천(148명), 강릉(119명), 영월(117명)의 순이었으며, 이 중 여성근로자는 1,347명으로 전체의 62.2%를 차지, 남성근로자 817명에 비해 약 1.6배 많은 규모를 보였다. 따라서 강원도 사회적기업에서의 여성근로자 규모는 남성근로자의 고용 규모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51.2세로 남성근로자 평균 연령 45.6세보다 5.6세가 많다. 연령집단별 분포는 여성근로자의 50대가 39.2%, 남성근로자는 30대가 27.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40~50대(66.2%), 남성근로자의 경우 30~40대(54.5%)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60대 이상의 근로자에서는 여성근로자가 21.5%, 남성근로자가 17.1%로 나타나 여성근로자가 남성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연구 결과로는 첫째, 성별고용평등측면에서는 성별 임금격차와 성별에 따른 정규직 비율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여성인재개발 측면에서 여성 관리자 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부재로 직종을 살펴본 결과, 강원도 전체 유급근로자 중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1.7%로 남성에 비해 3배 비율로 낮은 수준이다. 셋째, 일-가정 양립지원에 있어 면접조사 참여 기업 모두는 단축근무, 출퇴근시간 유연근무 등 근무시간과 관련한 조정을 비요적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넷째, 조직문화 측면에서 여성근로자 대부분이 전문성을 지닌 인력이며, 이들의 공백이 기업운영에 큰 영향을 미

친다고 판단, 유연한 근무형태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목적 수행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비율은 여성근로자(63.0%)가 남성근로자(58.8%)에 비해 4.2%p 높았다. 사회적기업의 여성 고용률이 높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인원수로도 취약계층 여성의 고용인원이 남성보다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 외에, 강원도 사회적기업의 업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식품제조업, 도소매업 등 3개 업종에 50% 이상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여성대표 사회적기업은 청소 및 위생관리, 돌봄 관련 사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사회적기업 업종의 제한으로 여성근로자 역시 약 80% 가까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대표 기업의 평균 매출액(약 4.9억원)은 남성대표 기업 평균 매출액(약12.8억원)보다 약 2.6배 낮았으며, 강원도 평균 매출액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여성대표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업종에 따른 여성 우위 요소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 강원도 사회적기업의 여성친화성 장애 요인

강원도의 사회적기업 대표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여성친화적 요인과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 조성 관련 장벽 요인으로는 일-가정양립제도를 적극 도입하기에는 대체 인력의 채용 여건이 열악하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경력단절여성 채용에는 사회적기업 운영 지침의 경력단절여성 인정 조건의 제약이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녀가 어린 경우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욕구가 컸으나 비용 효율적 측면에서 실제 실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엇보다도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 어려운 현실이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수익증대를 위한 사업 역량 강화, 우선 구매 등의 판로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네트워크 강화 등의 다각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주요 사업 모델과 활성화 방안 탐색

1) 여성친화형 사회적경제 영역 창업 모델 사례

(1) 째깍악어(주)

● 대표자 : 김희정 대표

● 주요 사업 내용 및 운영 현황

- 아이의 성장과 가정의 행복을 돌보는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 아이를 키우면서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엄마들이 모여 엄마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
- 이윤추구 보다는 우리만이 누구보다 이 일을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다는 엄마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사업 모델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유아교육과 돌봄 경력이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을 확대해가고 있음.
- 아이를 키우는 모든 엄마의 마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여성 강점과 친화력을 잘 살려내며, 육아 관련 대기업에서의 경험과 글로벌 IT분야의 역량을 살려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주요 서비스로는 아이들 등하원부터 놀이, 학습, 체험, 그룹 돌봄까지 이용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서비스 제공자의 커리어 관리와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채용 방식으로 신뢰 구축함. 째깍악어 선생님의 최종 선발률은 22%에 달함.

<그림 V-10> 째깍악어 선생님 선발 과정



* 출처: <http://tictocroc.com>

<표 V-7> 째깍악어 이용 현황 (2018. 12월 기준)

구 분	부모님 회원 수	악어선생님 지원자 수	등록된 악어선생님 수	이용 후 부모님 만족도(5.0만점)
		21864	8314	1183

*출처:http://tictocroc.com

아이돌봄에 대한 방문형 서비스와 찾아가는 악어선생님의 역량관리, 학습컨텐츠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온오프라인의 체계적 사업모델을 구축해가고 있음.

<그림 V-11> 이용방법 소개



*출처:http://tictocroc.com

(2) 사회적기업 ㈜테스트웍스

● 대표자 : 윤석원

● 주요 사업 내용 및 운영 현황

- 경력단절 여성을 테스트웍스의 교육, 취업 연계 과정을 통해 전문 SW 테스터로 육성, 일자리를 제공함.

- 2015년 설립, 2017년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
- '2017년 여성 친화적 사회적기업 아이디어 및 우수모델 대상 수상
- 경력단절 여성을 비롯한 취업 취약계층을 전문 소프트웨어 테스터(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있는지 테스트 해보는 일)로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전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

<그림 V-12> 사업영역과 조직구성



*출처 : <http://www.testworks.co.kr>

(3) 한국창의여성연구협동조합(서울시)

● 대표자 : 추명자 이사장

● 주요 사업 내용 및 운영 현황

- 2013년 12월 20일 창립총회, 2014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선정
- 한국창의여성연구협동조합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하여 여성이 언제나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설립.
- 결혼·출산·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고학력 여성들은 재취업의 기회가 적고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잠재력 있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을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모델로서 연구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었음.

- 협동조합을 통해 많은 분야의 고학력 경력단절여성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향후 전문분야별 경력단절여성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역할을 수행함. 또한 ‘경력이음 멘토링’ 서비스 제공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주요 사업은 연구개발분야에서 기초연구사업,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등과 같은 과학 기술 분야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며, 주 연구 분야로는 망막 노화 억제를 위한 보조제 및 약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함.
- 정책연구로는 미래부·복지부·여가부 등 관련 부처 정책연구 용역과제, 지자체 등의 기금사업 과제, 정부 위탁 사업(예: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일거리 사업 등) 및 창의 인재 육성, 가족 및 노인 복지, 경력단절여성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함.

*참고 : <http://www.koworc.kr/>

2) 강원도 지역기반 협업 모델 사례

(1) 토닥토닥맘협동조합 (강원도 원주시)

● 대표자 : 조미화 이사장

● 주요 사업 내용 및 운영 현황

- 토닥토닥원주맘이라는 온라인커뮤니티를 기반으로 2015년 2월 창립총회
- 2016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선정, 2018년 사회적기업 인증
- 정기모임, 프리마켓,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지역 엄마들이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발굴, 협동조합을 통해 사회적인 일로 만들어가고 있음.
- 원주협동조합경제네트워크와의 협업으로 지역의 생생마켓을 기획, 운영함.
 - 로컬 친환경 지역 먹거리와 사회적경제 상품 판매의 장을 제공하고 있음.
 - 시즌별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셀러 모집으로 매달 60여팀의 셀러 참여함.
 - 마켓사업으로 연 1억 매출, 지역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함과 셀러들이 공방 창업으로 성장하는 등의 결과 창출

- 온라인 커뮤니티 멤버들이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 참여 주체로의 전환
- 일자리 제공 뿐 아니라 지역여성들의 경력 개발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과 부모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음.

강원 자출산극복 네트워크

원주토닥바른맘클래스

부모코칭 특강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감정조절 기술"

[11월30일/원주토닥바른맘클래스] 부모코칭 특강 /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감정조절 기술



*출처:<https://deskgram.net/>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flower4653&logNo=221403840395>

(2) 마미핸즈 (강원도 화천군)

● 대표자 : 변지윤 대표

● 지역의 특성 및 현실적 문제

- 로컬푸드 산지임에도 공급처 부족으로 비싼 물가로 구입하게 되는 지역 현실과 일할 수 있는 젊은 군인가족의 경력단절 여성비율 증가추세가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화천지역은 젊은 청년들의 도시 진출로 지역 노령화가 급속해지고 있는 반면, 3개 사단의 젊은 군인가족들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발생하고 있음.
-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를 운영하며 경력단절여성 100명을 통한 조사 진행 결과, 화천지역의 경력단절여성의 56%가 3년 이상의 경력단절기간에 답했으며, 구직 의사를 가진 비율도 88%로 나타남.
- 강원도 지역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2018년 기준 8.1%로 매우 낮으며, 대부분의 지역이 군사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 2가지 이상의 규제지역으로 중복구역을 포함한 면적이 전체의 142.1%를 차지하여 생활 규제가 심각함.
- 화천군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있어왔으나,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변지윤 대표 인터뷰 내용 및 내부자료 제공)

● 주요 사업 운영 현황

- 2018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선정, 2018년 12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주)마미핸즈의 첫 사업으로 Cafe 마미핸즈 2018년 4월부터 운영, 지역 젊은 엄마들의 커뮤니티 공간 제공, 힐링과 교류의 장소로 자리잡고 있음.
- 카페운영 직원 4명이 모두 경력단절여성으로, 제과제빵과 바리스타, 네일아트, 비누, 수제화장품 제조 등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카페 운영
- 지역 젊은 엄마들과의 커뮤니티 활동을 위해 화천마미핸즈 맘카페를 개설하여 지역에서의 만남과 이벤트를 진행. 카페 회원 3,200여명이 가입, 일일 접속자 수 평균 2만회 이상으로 지역 홍보의 장이 됨.
- 2016년부터 다양한 재능을 살린 지역플리마켓 진행하면서 화천군과의 협업 행사 진

행, 토고미마을과의 협업을 통한 농산물 소비 및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상호협력사업 실행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 제조 및 판매, 유통으로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지역여성들에게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과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고자 함.

*자료 참고 : 강원사회적경제이야기, <http://gwse.tistory.com/>

◎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업 내용

- 화천지역에서 일자리를 희망하는 젊은 여성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 따른 생활상의 변수들이 존재하는 것이 가장 큰 재취업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화천군의 경우,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창업보육지원센터 등의 지원 인프라가 없는 상황이므로 육아에 대한 배려를 공동으로 감안하며,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음.
- 지역의 경력단절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교육 뿐 아니라 공동돌봄센터 형태의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함.
- 따라서 지역 특성을 살린 공동돌봄센터를 연계한 일자리와 돌봄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게 됨.
- ‘화천형 일자리 & 돌봄 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화천 내 물레방아공원과 화천청소년수련관 일대를 대상지로 하여 물레방아공원 전시관 리모델링을 통해 여성공방과 공동돌봄센터, 여성공방 전시실 및 판매장을 신축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돌봄-일자리 창출-문화공간 제공-지역경제 활성화의 지역순환모델을 추진함.
- 맞벌이 부부의 돌봄 문제 발생을 학교-교육시설-공동돌봄센터 간 셔틀 버스 운행 및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
- 또한 여성인력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이 가능한 여성공방-평생학습프로그램(자격증반)-자격 취득 후 강사 채용-창업-전시실 및 판매장 제공의 순순환 모델을 구축함에 있어 지역의 예비사회적기업인 마미헨즈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그림 V-13> 화천군 지역 협업을 통한 사업 추진 구상도



* 출처 : 화천군 내부자료.

3) 루트임팩트의 '임팩트커리어W' 프로젝트 모델

■ 프로젝트 개요

"임팩트커리어 W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이 소셜섹터에서 다시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펠로우십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펠로우로 선발되는 여성들은 사회적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전의 직무,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 등 각자 체인지메이커로서의 새로운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 소셜벤처에서 그 커리어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루트임팩트는 펠로우들의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의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에 한 발짝 다가서고자 합니다."

*출처 : 루트임팩트 (<http://rootimpact.org>)

루트임팩트의 ‘임팩트커리어 W’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취업 연계 교육 프로그램으로 참가자 모집을 통해 △디스커버리캠프 △펠로우십 △정직원 전환 평가 등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치도록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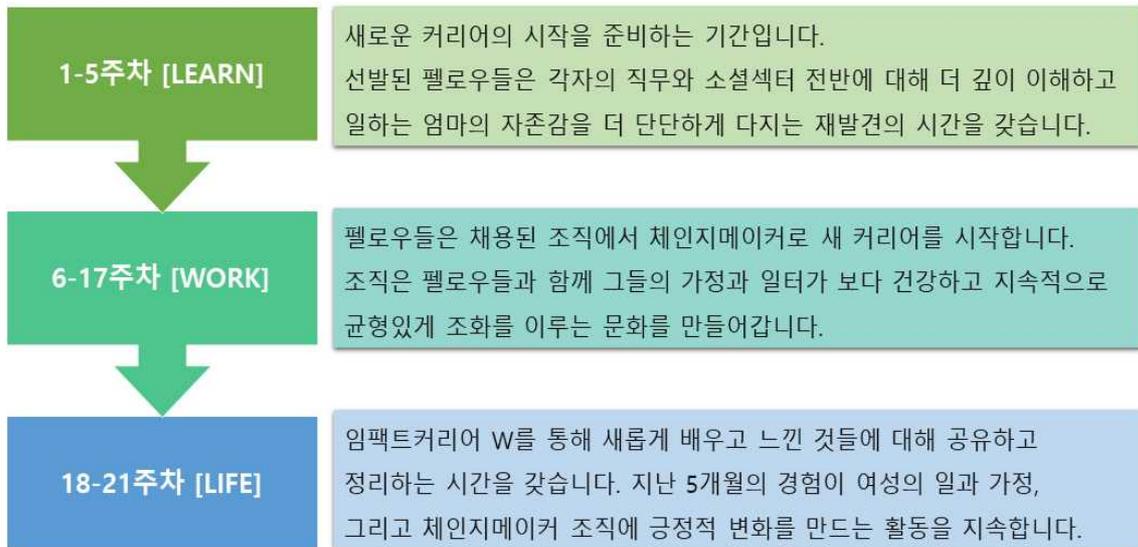
참여 대상은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일을 쉬고 있는 여성으로 이들을 ‘경력보유 여성’으로 정의한다.

체인지메이커 조직과 경력보유여성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여성과 남성의 구분 없이 모든 체인지메이커가 일터와 가정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확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비영리조직, 기업 사회공헌부서 등)에서 다시 일하기를 희망하는 여성은 5개월 과정의 모든 세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 후에는 지원 기업에서 12주 동안 근무하는 리턴십 프로그램 ‘펠로우십’을 진행하고 이후 기업별로 정직원 채용을 결정하는 ‘전환 평가’가 이어지게 된다.

여성의 관점에서 참가자들은 대체로 출산, 육아 등 공통 관심사를 바탕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녀 돌봄 서비스’도 공통적으로 제공한다.

<그림 V-14> ‘임팩트커리어W’ 주요 프로그램 진행 단계



*루트임팩트 사이트 참고 재구성 (출처:<http://rootimpact.org>)

■ 주요 파트너

경력보유여성의 활동 지원을 위해 위커넥트, 진저티프로젝트, 제깍악어 등의 기업이 주요 프로그램 파트너로 함께 하고 있다. 경력보유여성의 교육과 활동 지원을 위한 연

계사업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또다른 협업모델을 보여주는 시도라 볼 수 있다.

- 2018년 채용 파트너사 (총 5개 기업 참여)
 - 에누마 / 경영관리분야
 - 이원코리아 / 경영관리분야
 - 점프 / 디자인 및 펀드레이징분야
 - 진저티프로젝트 / 교육기획
 - sopoong / 리서치 및 UX/UI 컨설팅

■ 참여기업 소개 자료 및 채용 분야

#에누마 #경영관리

에누마는 세상의 모든 아이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스타트업입니다. 일과 가정을 균형있게 유지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분이라면, 다음 세대에 더 나은 교육경험을 제공하는 멋진 일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에누마 한국사무소의 운영과 회계 등 경영관리를 맡아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원코리아 #경영관리

이원코리아는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모두가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계, 브래들리 타임피스를 만듭니다. Design for Everyone이라는 미션에 공감하며,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확산하여 보다 아름답고 공평한 사회를 꿈꾸는 분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이원코리아는 회계, 인사, 총무 등 경영관리를 맡아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점프 #디자인 #펀드레이징

점프는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에게 균형잡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나눔과 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하는 비영리 스타트업입니다.
 점프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세우고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디자이너와 신규 후원자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주실 펀드레이저를 찾고 있습니다.

#진저티프로젝트 #교육기획

진저티프로젝트는 개인과 조직의 건강한 변화를 위한 실험실입니다. 진저티의 방식으로 변화를 읽고 연구하며, 다른 이들이 보다 수월하게 변화의 파도를 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진저티프로젝트와 함께 조직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교육을 기획하고 외부에 알리는 일을 담당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다양한 파트너들과 유연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있는 분을 환영합니다.

#sopoong #리서치 #UX/UI컨설팅

sopoong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에 씨드투자자와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하는 소셜벤처 인큐베이터입니다. 새로운 혁신을 찾고 지원하는 일을 통해 사회문제를 더 빠르게,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소셜벤처 투자전략 수립을 위해 산업, 시장 및 경쟁현황 등의 리서치를 도와주실 분과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UX/UI 컨설턴트를 찾고 있습니다.

*출처: 루트임팩트 블로그 (<https://blog.naver.com/riblog/221226701590>)

■ 참여 기업의 조건 및 혜택

[참여조건]

-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수도권 소재의 체인지메이커 조직
(소셜벤처, 비영리 단체 등)
- 여성의 경력단절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기여하길 희망하는 조직
- 신규 입사자가 1년 이상 근속 가능한 채용 포지션을 계획 중인 조직
- 유연근무가 가능한 업무환경을 갖춘 조직
(선택적 시간 근무, 원격 근무, 시차 출퇴근 등)

[참여혜택]

- 해외비영리재단의 후원으로 채용 선발 및 교육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 impact.career를 통해 채용공고 뿐 아니라 지원서류, 면접일정 등 채용 프로세스 전반을 손쉽게 관리합니다.
- 최종 합격자에게 입사 전 2주간의 소셜섹터 입문교육 및 경력직 맞춤형 집중교육을 제공합니다.
- 최종합격자에게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터 복귀의 부담을 덜고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팩트커리어^W의 경우, 경력보유여성들의 재취업활동의 진입단계에서 소셜섹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작하며 참여기업들의 구인 활동 또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상호매칭의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력들이 사회적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혁신기업을 만나 새롭게 디자인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 또한 여성들의 경력이 가치있게 재생산 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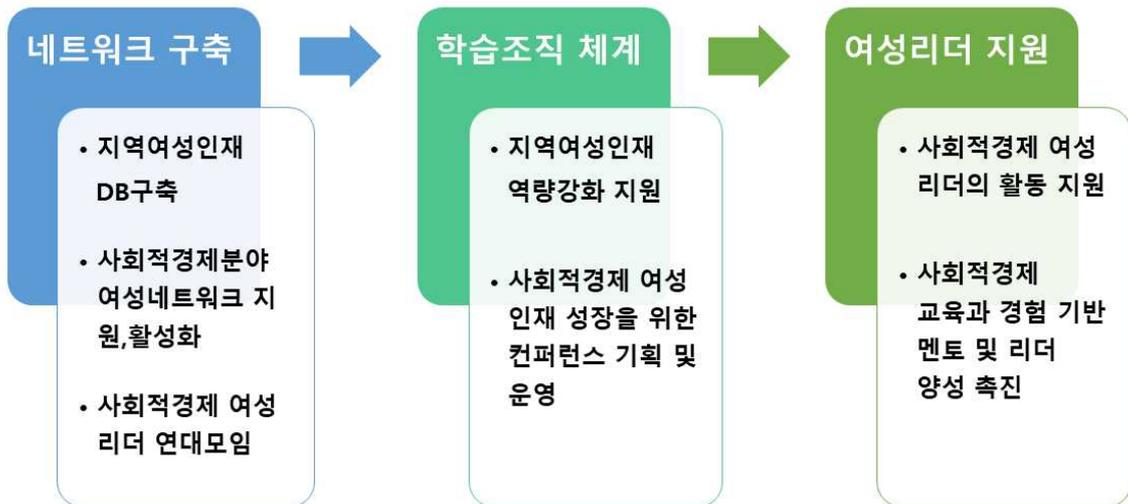
다만, 강원도 대다수 지역의 상황이 전문경력을 보유한 여성의 발굴이나 제한된 자원, 효과적인 코칭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별 상황에 효율적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협업체계를 갖추는 것에 출발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강원여성 JOBS 활성화 방안

1) 기반 조성과 문화 형성

강원도의 경력보유여성들이 사회적경제 분야의 여성인력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여성들이 자신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건강한 자기 기반을 갖도록 할 수 있다. 더불어 사회적 차원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발굴, 성장시킴으로써 사회적 가치 생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단계별 준비작업과 기획작업이 꾸준히 뒷받침되어야하기에 다음과 같은 진행 방향을 제시해 본다.

<그림 V-15> 사회적경제 여성인력 성장기반 조성 진행방향



네트워크 기반은 경력에 따른 여성 인력pool 구축을 통해 전문분야, 경력과정이 필요 시 된다. 기존 워크넷 등의 구인구직 시스템과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직업훈련과정 참여자를 연계하는 방법, 사회적경제 분야의 구인구직 지원 pool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사회적경제 리더 양성과 지원을 위한 아카데미과정이나 여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리더/종사자/교육자) 등을 통한 연결망을 활용하여 여성들의 공감대와 필요를 소통해내는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여성리더들이 진입을 희망하는 여성들과 연결되고, 필요한 경험이양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서로 성장

할 수 있는 학습과 여성의 사회진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대 또한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킹과 학습조직 활성화 등의 실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들의 코워킹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현장의 조성도 필요시 된다.

여성창업보육센터나 코워킹 스페이스가 마련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기관들이 시설운영과 콘텐츠 운영을 통해 코워킹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향할 수 있겠으나,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역 내의 커뮤니티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공간 및 인적자원의 기획이 필요시 될 것이다.

코워킹 문화형성을 위한 주요한 운영 요소에 관하여 서종석 외 2인(2015)의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표 V-8> 코워킹 운영 요소

코워킹 운영 요소	내 용
관계 촉진 (Relationship facilitation)	고객들이 서로 친근해지고 관계를 조성하여 협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
네트워킹 이벤트 및 파티 (Networking event & Party)	고객과 고객 간 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교류할 수 있도록 이벤트 및 파티를 개최하고 관리하는 활동
커뮤니티 및 정보소통 (Community & Communication)	관계, 협업, 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조성과 정보가 지속적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채널 등을 관리하는 활동

*출처 : 서종석 · 이근춘 · 옥영석(2015).

지역에 활용 가능한 코워킹 기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 기획하는 역할에 대한 활성화 지원이 필요시 되며, 물리적 기반이 충분치 않은 지역의 경우엔 여성들의 육아 모임이나 소그룹 네트워킹 단위를 통한 채널을 확보하여 정보와 기회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우, 정보의 채널을 찾고 관련 전문가를 만나는 기회를 쉽게 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지역에서 다양하게 기획되는 아카데미나 행사가 있어도 시간적, 공간적인 조건들이 맞지 않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또한 같은 상황이나 비슷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면, 필요한 학습조직 구성이나 이벤트 마련, 취업 기회의 탐색이나 준비, 혹은 협업 등의 다양한 형태로 여성들의 활동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코워킹의 경험은 프리랜서 활동, 취업, 창업 등의 자신의 상황과 경력에 맞춰 설계되는 진입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여성친화적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정현주(2017)의 연구에서는 여성친화적인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과 지원을 제안하였다.

사회적경제 여성친화적인 일자리 생태계 조성 및 여성친화적인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채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 확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함(여성채용 우수 사회적경제 업체에게는 세금감면, 공공자금 융자추천이나 대출 금리의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예산 지원 방법과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이용 시 여성채용 우수업체에 우선적 기회를 주는 제도이용의 방법을 활용함). 여성들이 직장에서 업무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내에도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적경제 여성종사자를 위한 공공교육 기반 확충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여성대표자 뿐만 아니라 여성종사자에게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사회적경제 발전에 있어서 대표의 마인드가 주요한 요소이며, 여성 대표자에게 경영안정화를 위한 세부적이고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함). 사회적경제는 여성에 대한 수요가 많으므로 사회적경제의 주요 노동력인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화 된 공공교육이 필요시 된다.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여성노동력의 수요가 많은 사회적경제의 성장발전은 여성일자리 확대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사회적경제 총괄체계 구축, 행정부서 및 중간지원기관 역할 강화, 기금마련 등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사회적경제 여성창업을 위한 체계화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 사회적경제 여성창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필요

- 창업교육 : 각 여성창업지원센터에서 권역별 특화된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성장단계에 있는 사회적경제 업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학습(OJT)을 실시하여 실효성을 높임.
- 맞춤형 전문컨설팅 : 사업계획 수립, 경영환경 분석, 지원제도 활용, 사업타당성 분석, 홍보 및 마케팅 전략, 네트워크 구축 등 단계별 체계화된 전문컨설팅을 실시
- 인큐베이팅 : 지역 여성창업보육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신설업체 안정화를 위한 보육체계 구축
- 홍보 및 지역자원연계, 네트워크 : 사회적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대를 위한 공동마케팅 및 사업홍보를 실시함. 또한 사회적경제 업체, 지자체, 중간지원기관의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활동을 실시

3) 여성친화적 특화 직종 및 경력 개발 코칭 시스템 지원

앞서 살펴본 연구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면, 사회적경제 조직 중에서도 여성에게 더욱 친화적인 직종과 사업모델에 특화할 경우 여성의 전문성과 임금수준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의 제시 영역도 있으나, 직무의 세분화 및 개발을 통한 창직과 창업의 가능성도 고려해볼만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와 정보, 인턴십의 기반활동들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관점의 필요와 수요확대에 따른 여성강점기반 분야 및 직종(직무)개발을 통한 접근도 모색되어야 할 부분이다.

예를 들면 장애아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인, 발달장애직업코치, 노인인지치료강사 등 사회적 돌봄과 수요가 급격히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경력 개발 지원과 활동 연계 프로세스 기반이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지면, 지역수요 맞춤형 일자리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이 더욱 유연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V-16> 커리어코칭 프로세스 모델



4) 지역 기반 협력 모델 다양화

여성친화적 사회적경제 진로 탐색, 진출은 지역별 상황에 대한 큰 격차를 보이게 된다. 물리적, 경제적, 인적, 사회적 환경의 차이들이 존재하는 만큼 지역의 자원들이 연계 가능한 방식의 협력 모델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자원이나 기

관별 역량을 연계하는 모듈형 방식도 고려해볼 만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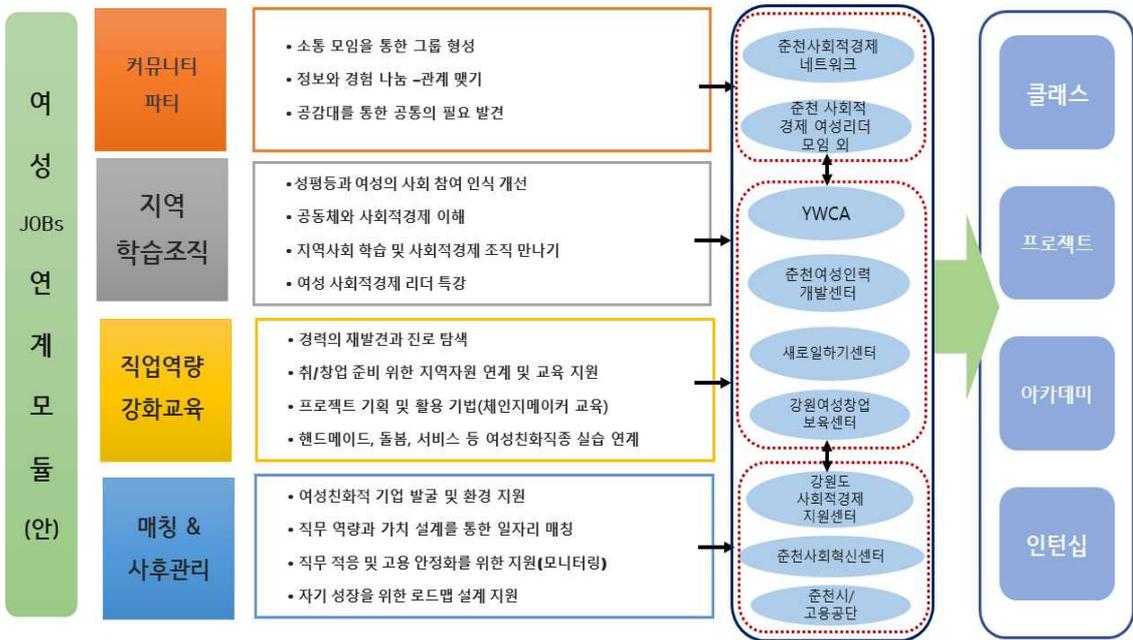
춘천시의 경우,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새로일하기센터, 사회혁신센터, 강원여성창업보육센터 등의 기관이 각각의 여성일자리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의 여성친화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모델을 제시하고,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춘천시아이돌봄지원센터’ 등의 육아지원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매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경제가 지역의 필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지역사회 이해를 통한 필요의 발견 기회가 일상적으로 맞닿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지역 네트워크 활동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사회적경제를 비롯한 소셜섹터 분야의 공유와 경험도 좋은 출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여성적합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및 시범 운영

지역의 상황과 특성이 반영된 여성특화형 사회적경제 모델을 발굴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확산한다면 안정적인 여성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고학력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여성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의 고학력 여성인력을 사회적경제로 진입하게 하는 모델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그림 V-17> 지역 기반 협력 모델(안)



관련 네트워크 및 자원 기반 구축 - 온라인(컨텐츠 아카이브 제공) / 오프라인(지역거점공간)

6. 맺는 말

경력단절여성의 경력이음, 경력보유여성의 경력 재발견을 위한 지원에는 장거리의 기반조성과 사회적 필요의 연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해결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하지만,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의지를 모은다면 보다 가까운 거리의 변화부터 시도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근로시간 및 근로방식의 유연화 측면에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워크(Smart Work) 및 SOHO(Small Office & Home Office) 방식의 업무기반 적용과 같은 다양한 근무조건이 가능하도록 업무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도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 경험과 근로경력, 창업 준비과정에 있어 시간제 근로가 합리적으로 질과 보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조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와 경력이음이 경력개발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시도가 더욱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경력단절여성들이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방법으로는 여성친화적인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취업을 돕는 것과 사회적경제 영역의 여성 창업과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처음부터 어떤 기회가 적절한 것인지를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의 상황과 자신의 욕구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일상의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경력이 단절된 상황의 여성들이 다시 일자리를 갖고, 사회활동을 재개한다는 것은 단순한 구인구직의 측면이 아닌 여성들이 처한 다양한 가정환경,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성급한 일자리 매칭과 경제적 소득보장의 관점을 넘어 여성들의 경력재개와 자기 성장의 비전을 마련하고, 이들이 지속가능한 직업 및 창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자원들이 여성인력의 정서적 지원과 성장가능성의 발견, 가족구성원의 협력 지원, 사회적 돌봄 시스템과 인식 전환, 경력이음의 가능성 보장 등의 기반 마련을 위해 함께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복태·홍지현·사회적경제 분야의 여성근로자 인적자원개발 현황 및 개선 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소영·장혜경·김영란·선보영(2013), “민간베이비시터 운영실태 및 관리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정원,(2012). “자활기업의 지역화 실천-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와 자활기업」, 아르케.
- 서종석·이근춘·옥영석(2015). “코워킹스페이스 운영전략 연구”, 「벤처창업연구」 10(4):157-165.
- 양서영, Weekly KDB Report, 2018. 3. 12
- 윤세진 기고(2017. 8. 18.). 정책브리핑 www.korea.kr
- 윤정혜(2015), “육아휴직제도 활용 현황과 시사점”, 한국고용정보원.
- 이재원(2011),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확충 과제- 「사회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 2011년 사회서비스학회 자료집.
- 장은진·허미영·이강익·진현주·김성락(2017). “강원도 여성친화적 사회적 기업 지원모델 연구”,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정현주(2017. 6) 부산여성가족 BRIEF vol.032,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 여성가족부(2013)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허목화·강원도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방안 모색.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미운오리새끼 '공공형 어린이집', 국공립과 함께 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17. 12. 15자)

[온라인 참고 사이트]

강원도 <http://www.igcs.co.kr>
강원사회적경제이야기 <http://gwse.tistory.com/>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춘천YWCA <http://www.chchywca.or.kr/>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http://ccwomen.or.kr/>
여성새로일하기센터 <https://saeil.mogef.go.kr>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http://gwfri.gwd.go.kr/>
Gsef2014 <http://www.gsef2014.org>
짜각악어 <http://tictocroc.com>
테스트웍스 <http://www.testworks.co.kr>
한국창의여성연구협동조합 <http://www.koworc.kr/>
루트임팩트 <http://rootimpact.org>
한겨레21(803호) <http://h21.hani.co.kr/>